

# 표지면지

해외입양인 인권실태 및 인권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웹자보**

☐ **인사말**

- ❖ 국회의원 김성주 ..... i
- ❖ 뿌리의 집 김도현 목사 ..... iii
- ❖ 사단법인 온울 윤세리 이사장 ..... vii

☐ **발표 (Speeches)**

- ❖ 연구개요 ..... 1
- ❖ Research Overview ..... 7
  
- ❖ 양적조사분석 ..... 13
- ❖ Results from Quantitative Data Analyses ..... 31
  
- ❖ 질적조사분석 ..... 49
- ❖ Results from Qualitative Data Analyses ..... 67





- ❖ 질적조사결과 : 친생부모 파트 ..... 85
- ❖ Qualitative Data Analyses Results – Birth Parents ..... 99
  
- ❖ 정책제언 ..... 113
- ❖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Related to Overseas Adoption ... 123

## ☐ 토론 (Discussion)

- ❖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 황준협 변호사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Youth,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Hwang Junhyup (Attorney at law) .. 133
- ❖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 / 피터 뮐러 공동대표  
Danish Korean Rights Group / Peter Møller (Co-representative) .. 143

## ☐ 보고서요약본 (Summary)

- ❖ 보고서요약본(한글본) ..... 151
- ❖ Summary report on the Research on human rihgts  
in the oversea adoption process ..... 193



# 해외입양인 인권실태 및 인권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2023. 2. 22. (수) 14:00~16:3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김성주 TV 온·오프라인 병행 진행 동시통역 제공



사전신청

**사회** 전민경 변호사(사단법인 온움)

**인사말** 국회의원 김성주, 뿌리의 집 김도현 목사

**발제** 연구개요 및 설문조사 결과 확인된 해외입양인의 인권상황  
노혜련 교수(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면접조사를 통해 확인된 해외입양인의 인권실태  
이태인 교수(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해외입양절차 상 친생부모의 인권실태  
신필식 사무국장(입양의 공공성 강화와 진실규명을 위한 연대회의)

해외입양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소라미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좌장**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패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김지연 과장

국무조정실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  
피터 웰러 공동대표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황준협 변호사

#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Verifying and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Overseas Korean Adoptees**



Advance  
Application

2023. **2. 22.** (Wed) 14:00 - 16:30 (KST)

National Assembly Members' Office building, Meeting Room 3

This conference will be livestreamed on the  **김성주TV / @iljiam**  
Real-time Korean-English, English-Korean interpretation will be provided

**Conference Moderator** Jeon Minkyong (Attorney at law, Onyul)

**Opening Remarks** Kim Sung-joo (Congressman, Democratic Party of Korea) & Kim Do-hyun (President, KoRoot)

**Keynote Speeches** **Assessment of the Current Human Rights Conditions of Overseas Korean Adoptees identified through research, an Overview and Survey**  
Noh Helen (Professor, The School of Social Welfare, Soongsil University)

**The Human Rights Conditions of Overseas Korean Adoptees Identified by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terviews)**  
Lee Tae in (Professor,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eju Halla University)

**The Human Rights Conditions of Korean Birth Parents Regarding Overseas Adoption Procedures and Regulations**  
Shin Pil-shik (Secretary General, Adoption Solidarity Forum)

**Proposals for Improvements to the Current System to Ensure the Human Rights of Overseas Korean Adoptees**  
So Ra-mi (Professor,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Law)

**Discussion Moderator** Hwang Pillkyu (Attorney at law,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Discuss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Division of Child Welfare Policy**  
Lee Hae-hee (Administrative Officer)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Danish Korean Rights Group**  
Peter Møller (Co-representative)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Youth,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Hwang Junhyup (Attorney at law)

## 인사말



김성주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 국회의원 김성주입니다.

먼저 「해외입양인 인권실태 및 인권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뿌리의집, 사단법인 온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발제와 토론을 기꺼이 맡아주신 전문가분들을 비롯해 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특별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을 권리, 부모가 누군지 알 권리,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적절한 행정적, 입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과거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1962년 254명의 아동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해외입양은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 큰 수출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980년부터 1989년 10년간 총 6만 6,511명이 해외로 입양되었습니다. 당시 기준 출생아 1,000명 중 9명은 해외로 입양된 셈입니다.

해외입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당시 입양을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민간 입양기관은 해외입양 부모로부터 입양 성사 건당 막대한 규모의 입양 수수료와 후원금을

---

받았습니다. 1988년 기준 해외입양 수수료는 건당 5,000달러로, 당시 1인당 GDP인 4,571달러를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입양기관이 벌어들인 수익은 88년 기준 연간 32,315,000달러로, 당시 환율 기준 약 22억 원에 달합니다.

해외입양이 기관의 경제적 수익으로 직결되면서 입양을 위해 병원·조산소에 돈을 주고 해외로 입양 보낼 아이를 찾거나, 미아를 입양하는 등의 인권침해가 자행된 것은 공연한 사실입니다. 가짜 서류, 부실한 입양정보, 고아 호적 등으로 인해 본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정보를 잃어버린 입양인의 아픔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저는 지난 2년간 입양기관의 입양아동 상품화 문제, 해외입양 인권침해 문제, 입양 후 사후관리 체계 부재 등 입양과 관련된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해왔습니다. 그 해결방안의 하나로 입양의 모든 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두어 아동의 보호와 권익을 강화하는 입양 3법(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국제입양법안·아동복지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정부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과거 해외입양 절차에서 인권침해가 이뤄졌는지 행정조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는 더 옳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토론회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작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으로 진행된 ‘해외입양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인권 보장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해외입양인 인권침해 실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해외 입양인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해외입양인 문제가 널리 알려지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2. 22.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주



# 인사말

김도현 뿌리의집

‘해외입양인 인권실태 및 인권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의 개최를 크게 기뻐하며

오늘 ‘해외입양인 인권실태 및 인권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되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며 오늘 대면과 비대면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도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성사되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큰 수고와 공헌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 수 있도록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해외입양 인권실태와 인권보장 방안 모색이라는 연구사업을 발주해주신 국가인권위원회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년 동안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이 연구 작업을 이끌어 주신 연구책임자 노혜련 교수님께와 다섯 명의 공동연구원과 두 명의 보조연구원들께 큰 고마움과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모든 감사에 더하여, 가장 중요하게는, 증언자들로 나서 주신 해외입양인들과 한국의 친생모들, 그리고 해외입양 실무에 참여하셨던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입양인들과 친생모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삶의 내용들을 기꺼이 공적 공간으로 드러내어주심으로 이 연구 자체가 성립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공헌을 해주셨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하고 토론하는 이 연구는 국가의 기획이라는 층위에서 최초로 수행된 해외입양에 관한 연구라는 점과 한국해외입양 70년 역사에 있어서 국가의 실패가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내고 있

---

는 연구라는 점에서, 해외입양 관련 분야 연구 역사의 분수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발표와 토론이 한국 해외입양 70년 역사를 관통해온 민간 중심의 해외입양 제도를 국가의 공공적 시스템으로 혁신해내는 일에 충분하고 재론의 여지가 없는 시사점을 제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연구 발표회가 과거 민간 입양 기관들의 산업적 이익과 욕망의 추구에 대한 적극적 협력과 소극적 방치를 거듭해온 국가의 실패로 말미암아 훼손된 해외입양인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의 인정과 사과와 배·보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재구축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오늘의 발표와 토론이 이미 훼손된 해외입양인 인권의 회복을 위한 국가기구의 설립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뿐 아니라, 해외입양에 나타나는 결정적인 인권 훼손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고아호적’을 통한 아동의 신분 세탁 사태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우리 사회의 아동의 근원에 대한 권리(rights to origin)가 보편적 권리로 자리 잡도록 하는 일로 이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양육시설에서의 신분 멸실 사태와 국내 입양 과정에서 원래의 신분 은폐에 대한 성찰과 조명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나아가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법제화를 위한 초석 마련을 위한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 내는 일에 기여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연구발표와 토론회가 소중한 결실을 거둘 뿐 아니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시간되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도현 목사

뿌리의집

Greetings on the opening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Verifying and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Overseas Korean Adoptees'

I am very pleased th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Verifying and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Overseas Korean Adoptees' is held today at the National Assembly. I welcome and thank everyone who has been with us today,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sincere thanks to the presenters and panelists.

I would like to say that many people made great efforts and contributions until today's conference came to fruition.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Rep. Kim Seong-ju(Democratic Party) for allowing today's debate to be held at the National Assembly. At the same time,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for ordering a research project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overseas adoption and seeking ways to guarantee human rights. Above all,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and applause to the principal researcher, Prof. Helen Noh, five co-researchers, and two assistant researchers, who have devoted a great deal of time and effort to this research over the past year. In addition to all these thanks, most importantly, I would like to thank the Korean overseas adoptees, Korean birth mothers, and those who have worked as practitioners in the field of overseas adoption as witnesses. We should not forget that overseas adoptees and their biological mothers made a decisive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this study by willingly revealing the contents of their personal and private lives in a public space.

This study, which is being presented and discussed today, is the first study on overseas adoption conducted at the level of national planning, and it is a study that reveals what the failure of the state was in the 70-year history of overseas adoption in Korea. I think it could be called a watershed in the history of adoption research.

---

It is hoped that today's presentation and discussion will provide sufficient and indisputable implications for innovating the private-centered international adoption system, which has been going through Korea's 70-year history, into a national public system. In addition, this research presentation is aimed at acknowledging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overseas Korean adoptees, which were damaged due to the failure of the state to cooperate and neglect the pursuit of industrial interests and desires of private adoption agencies in the past, and apology, compensation, and restructuring of the system to prevent recurrence. I hope it will work. Furthermore, I sincerely hope that today's presentation and discussion will serve as a stepping stone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restoration of the damaged human rights of Korean overseas adoptees. In addition, I hope that there will be true reflection on the identity laundering of children through 'orphan family registers', which can be said to be a decisive indicator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overseas adoption of Korea. I hope that such reflection will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s to origin of children in our society as a universal right. It is hoped that this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and shed light on the loss of identity in childcare facilities and the concealment of original identity in the domestic adoption process, and furthermore, to contribute to eliciting social consent to lay the groundwork for the legalization of th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I sincerely hope that today's research presentation and discussion will not only produce valuable results, but also have a good time for everyone involved. Thank you.

Kim Do-Hyun

Representative of KoRoot

## 인사말



윤세리 사단법인 온울 이사장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온울 이사장 윤세리입니다.

우선 이번 ‘해외입양인 인권실태 및 인권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김성주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저희 사단법인 온울과 함께 이번 토론회 준비에 힘써 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뿌리의집,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해외입양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한 인권보장 방안 연구’를 기반으로, 과거에 발생했던 한국 해외입양인의 인권침해 사례 유형과 실태를 알리고, 해외입양 관련 법·제도와 국내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해외입양과 관련한 우리 법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제도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 틈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신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해외입양인의 권리와 피해회복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해외입양 문제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와 땀과 눈물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지만 과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쳐 지금과 같이 성장하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지난 70년간 20만 명에 가까운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던 것은 그런 아픔의 하나의 단면일 것

---

입니다. 아무런 연고 없이 혈혈단신으로 만리타향에 던져진 이 분들은 거기서 알게 모르게 슬한 차별과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해외입양된 분들을 충분히 보호해 줄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다면 그 구제와 회복을 위해 국가와 우리 모두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그 회복의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으신 연구책임자 노혜련 교수님과 공동연구원 이태인 교수님, 소라미 교수님, 신필식 사무국장님을 비롯해 이번 토론회의 기반이 된 연구를 수행하신 여러 연구자 분들, 오늘 발제와 좌장, 토론자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하는 바입니다.

2023년 2월 22일

사단법인 온을 이사장 윤세리

발표 (Speech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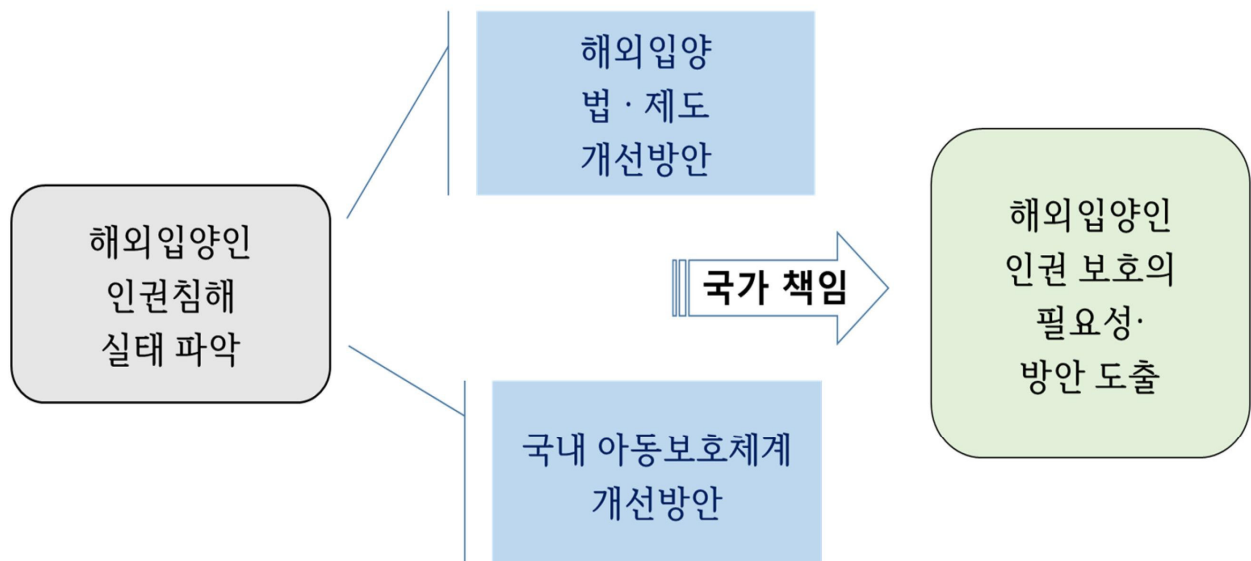
연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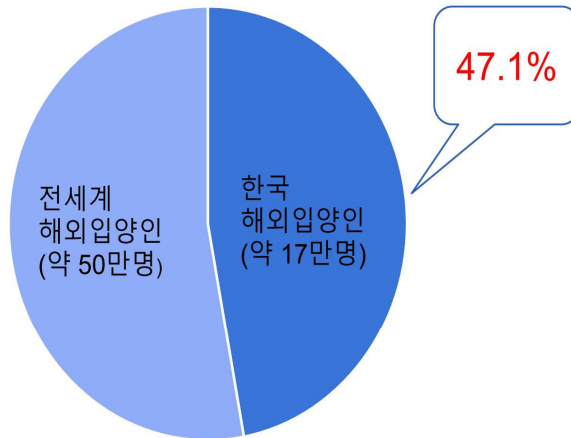
## 연구 개요

### 연구 목적



## 연구 배경

### (1) 한국의 해외입양: 세계 최장 기간, 최대 규모



## 연구 배경

### (2) 해외입양인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 실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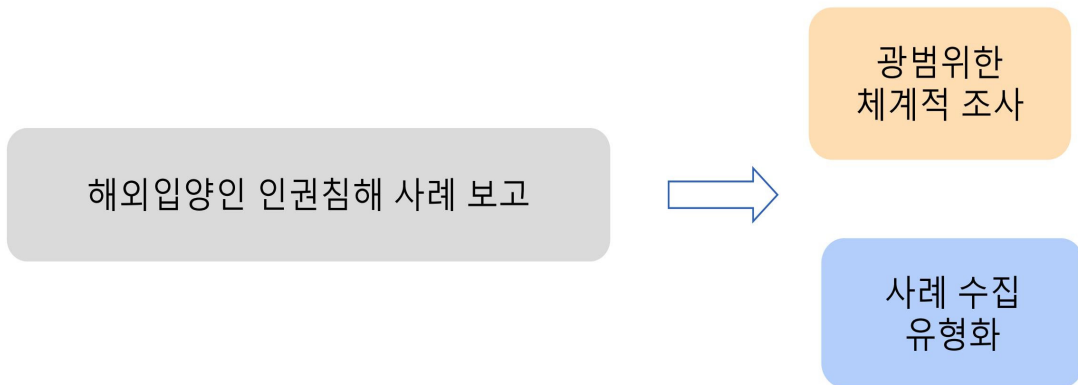
[해외입양인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를 실시한 국가]

수령국		송출국	
스위스	2019	칠레	2017, 2018
덴마크	2020, 2021	아일랜드	2020
벨기에	2021		
네덜란드	2021		
스웨덴	2021~현재		
프랑스	2022~현재		
노르웨이	2023 예정		

\*한국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12월 6일 해외입양인 34사례에 대한 조사를 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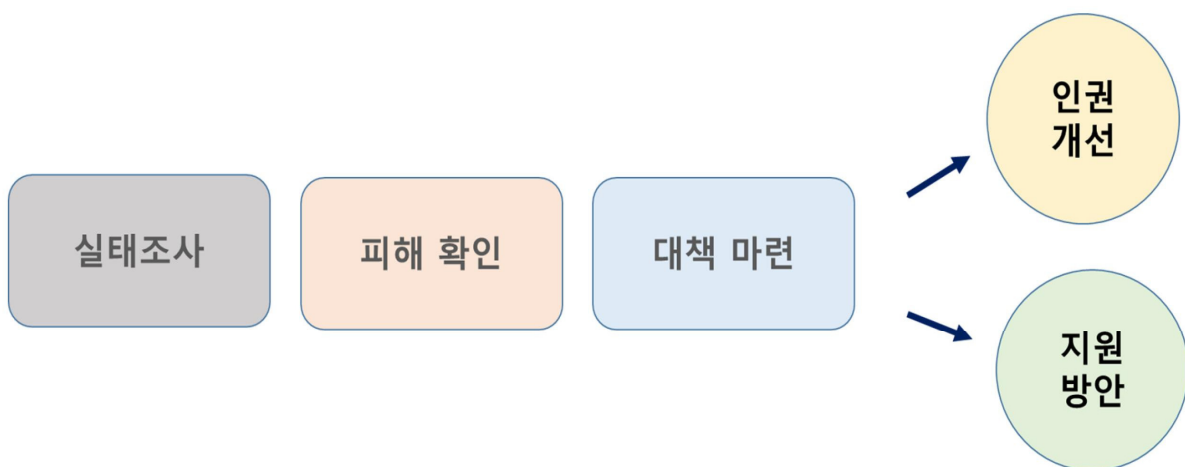
연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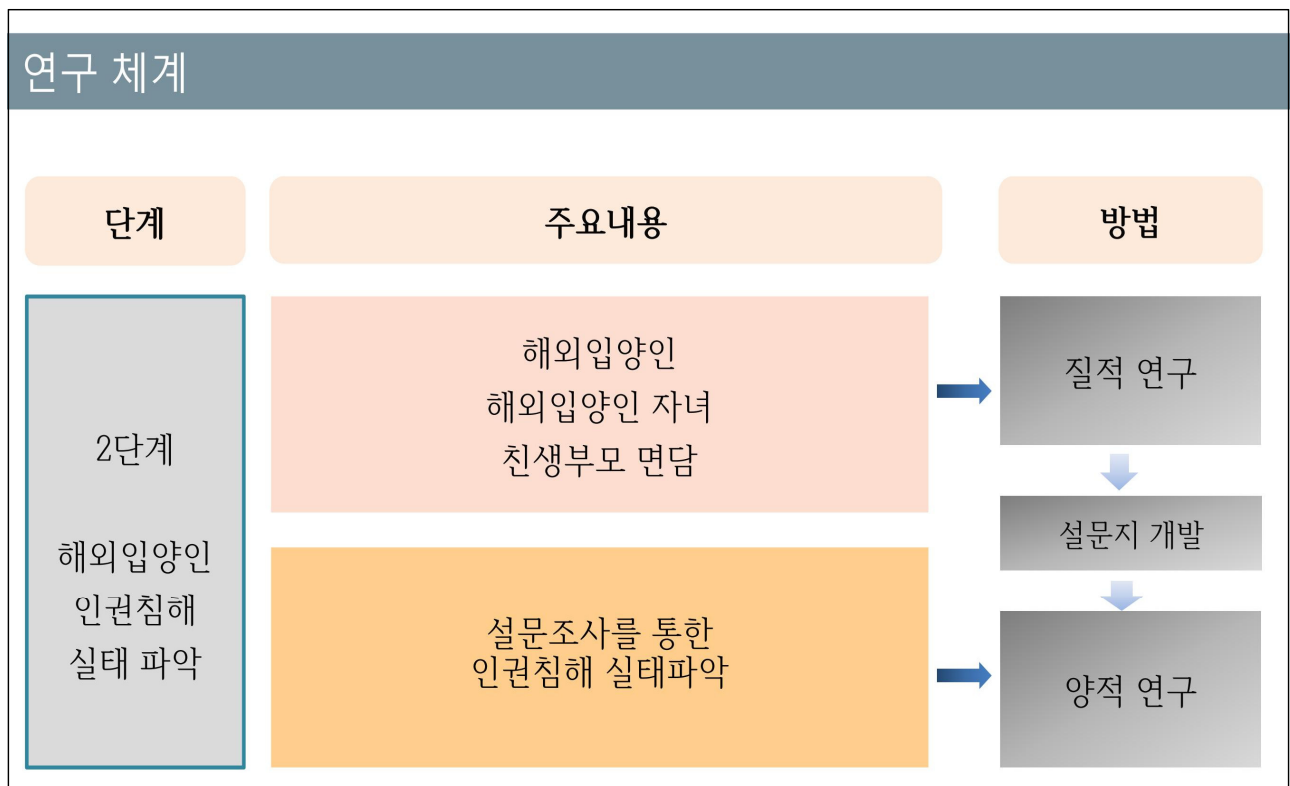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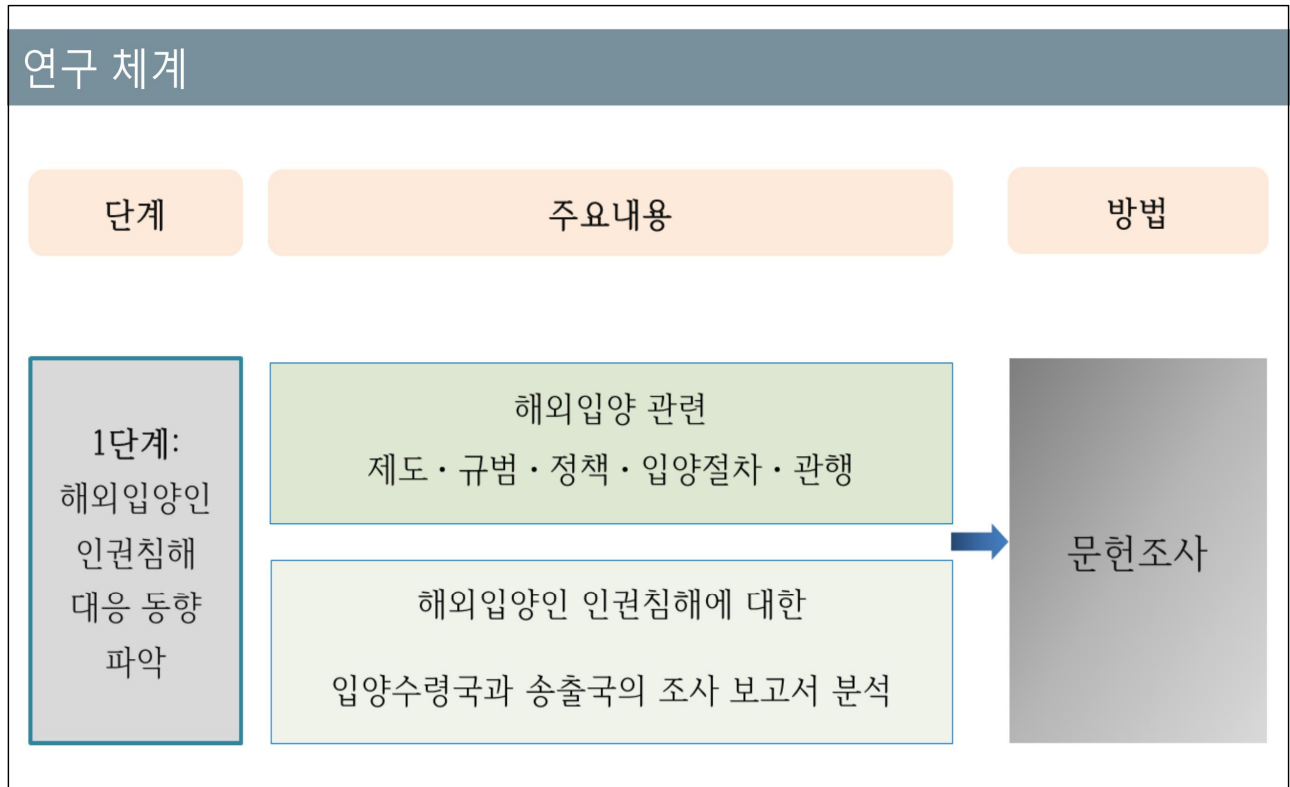
(3) 해외입양인 인권침해 사례수집과 유형화, 체계적 실태조사 필요



연구 배경

(4) 국가 차원의 해외입양인 인권개선과 피해 입양인 지원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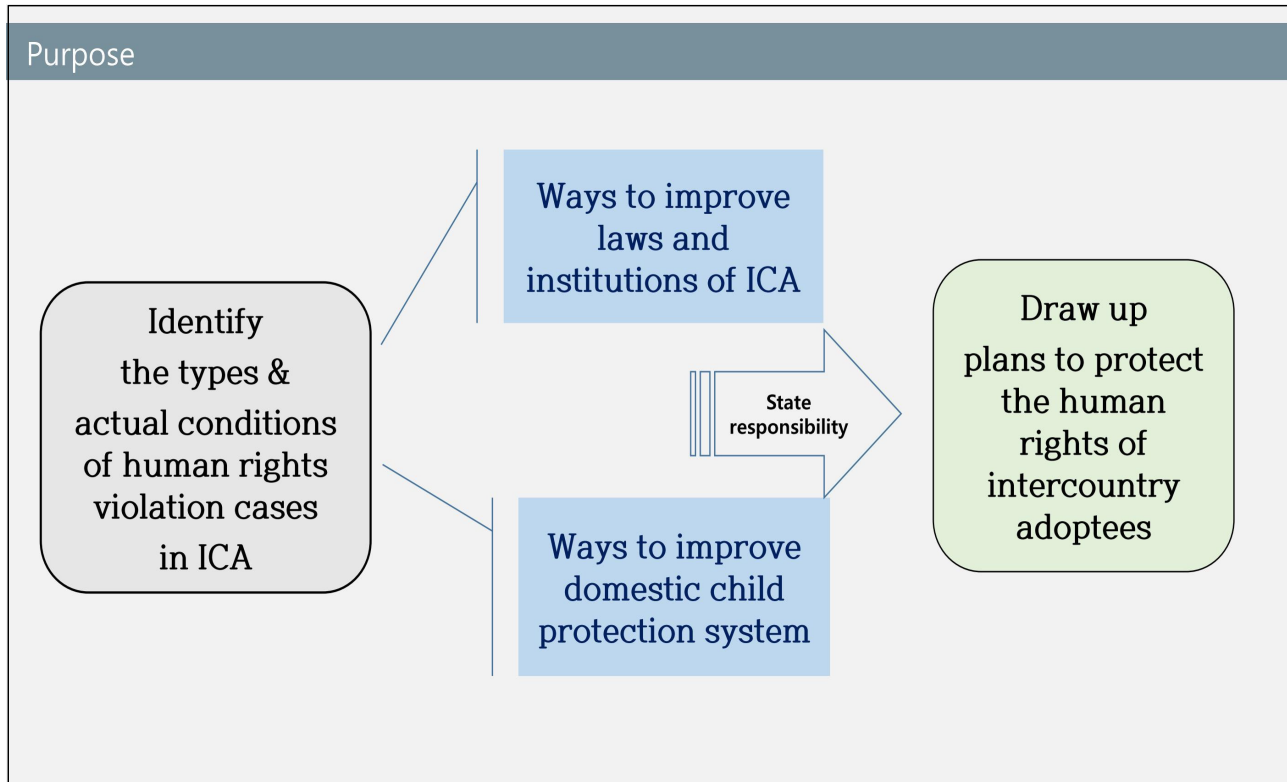
발표 (Speeches)



## Research Ov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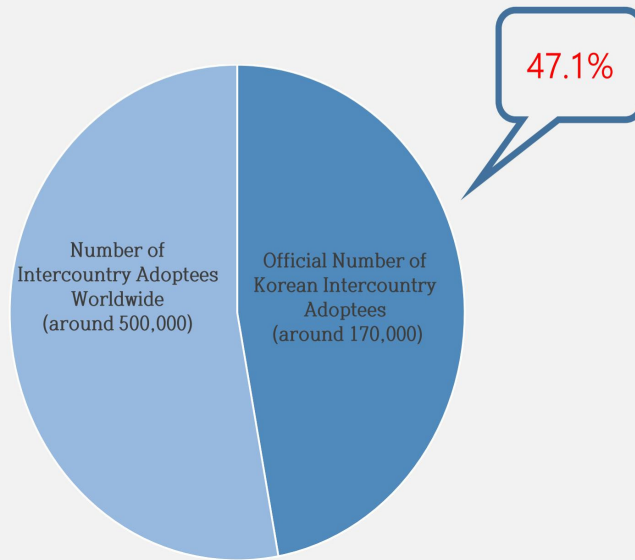


# Research Overview



Background

(1) Need for investigation: South Korea has sent the largest number of intercountry adoptees for the longest time.



Background

(2) Need to investigate the human rights violation of ICA at the state level.

[Countries with government-initiated investigations on intercountry ado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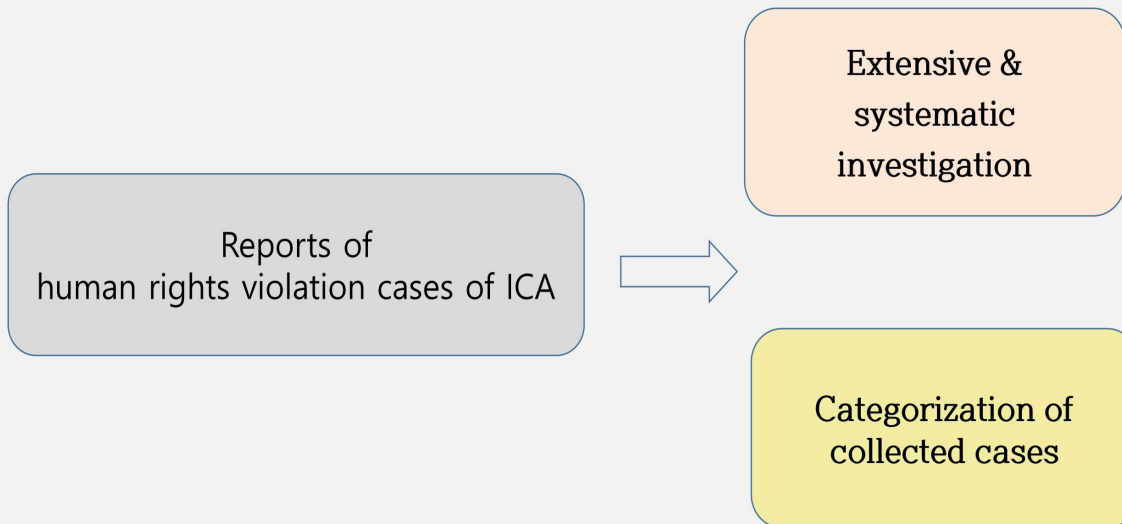
Receiving Countries		Sending Countries	
Switzerland	2019	Chile	2017, 2018
Denmark	2020, 2021	Ireland	2020
Belgium	2021		
Netherland	2021		
Sweden	2021 - in progress		
France	2022 – in progress		
Norway	2023 - scheduled to start		

\*Korea'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accepted 34 individual cases of ICA for investigation on Dec. 6,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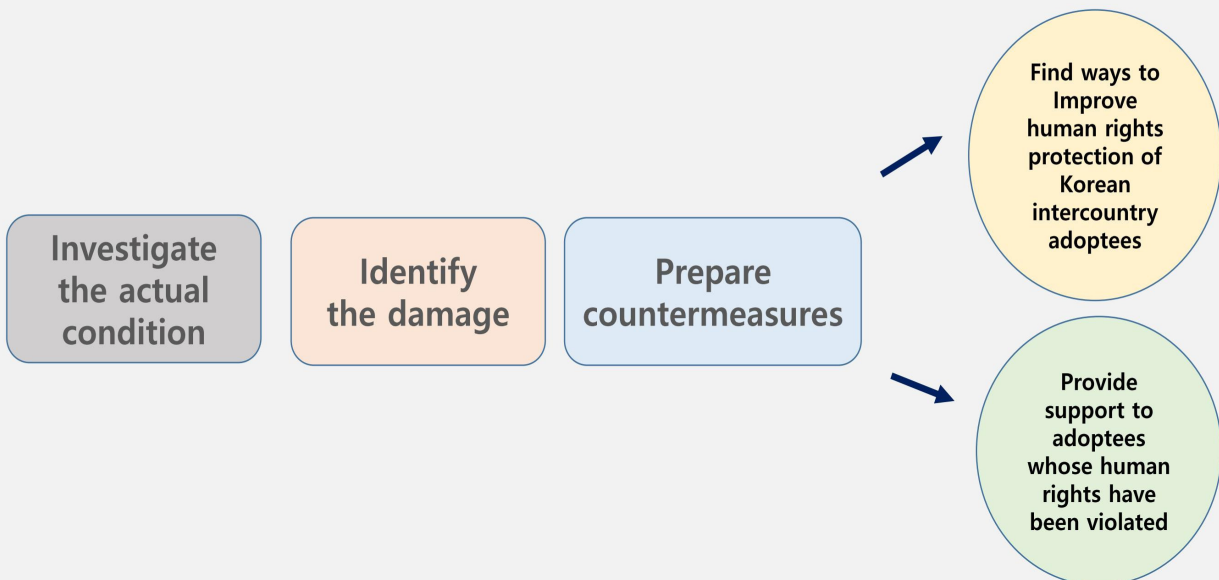
## Back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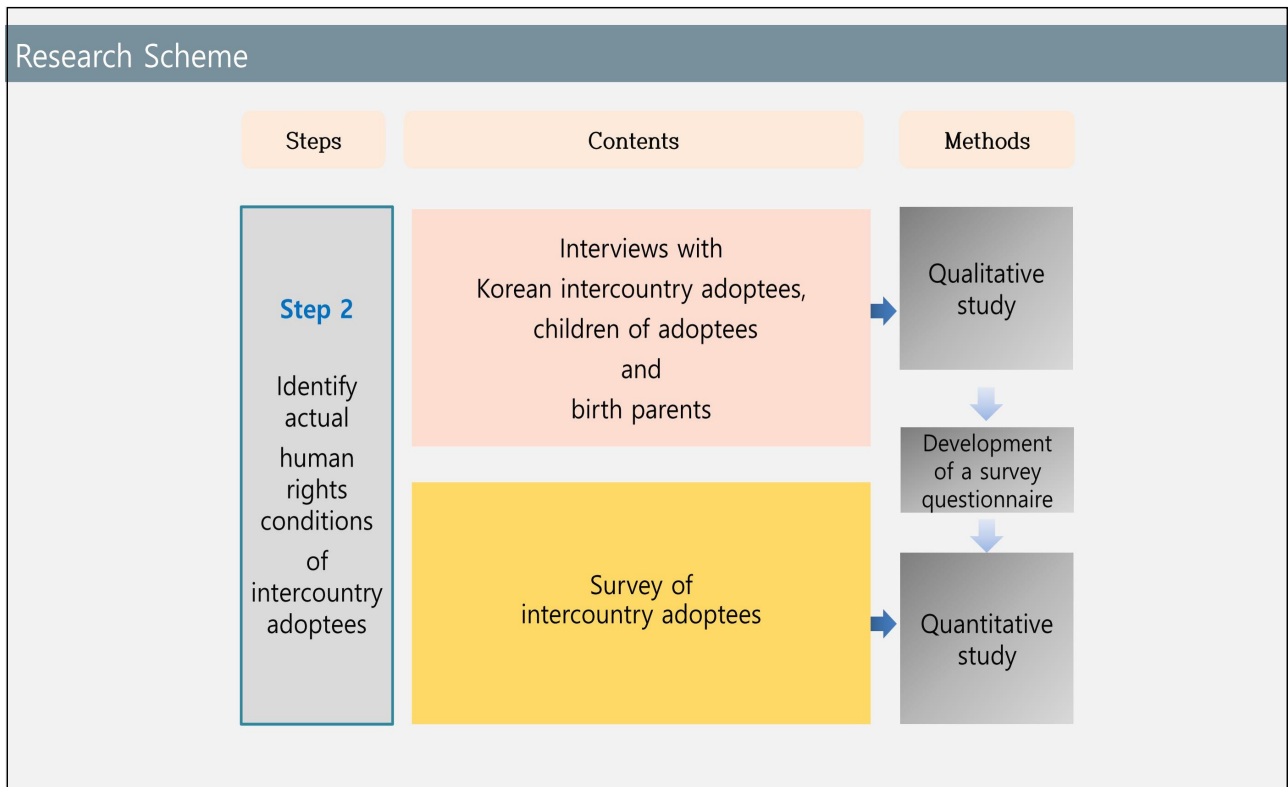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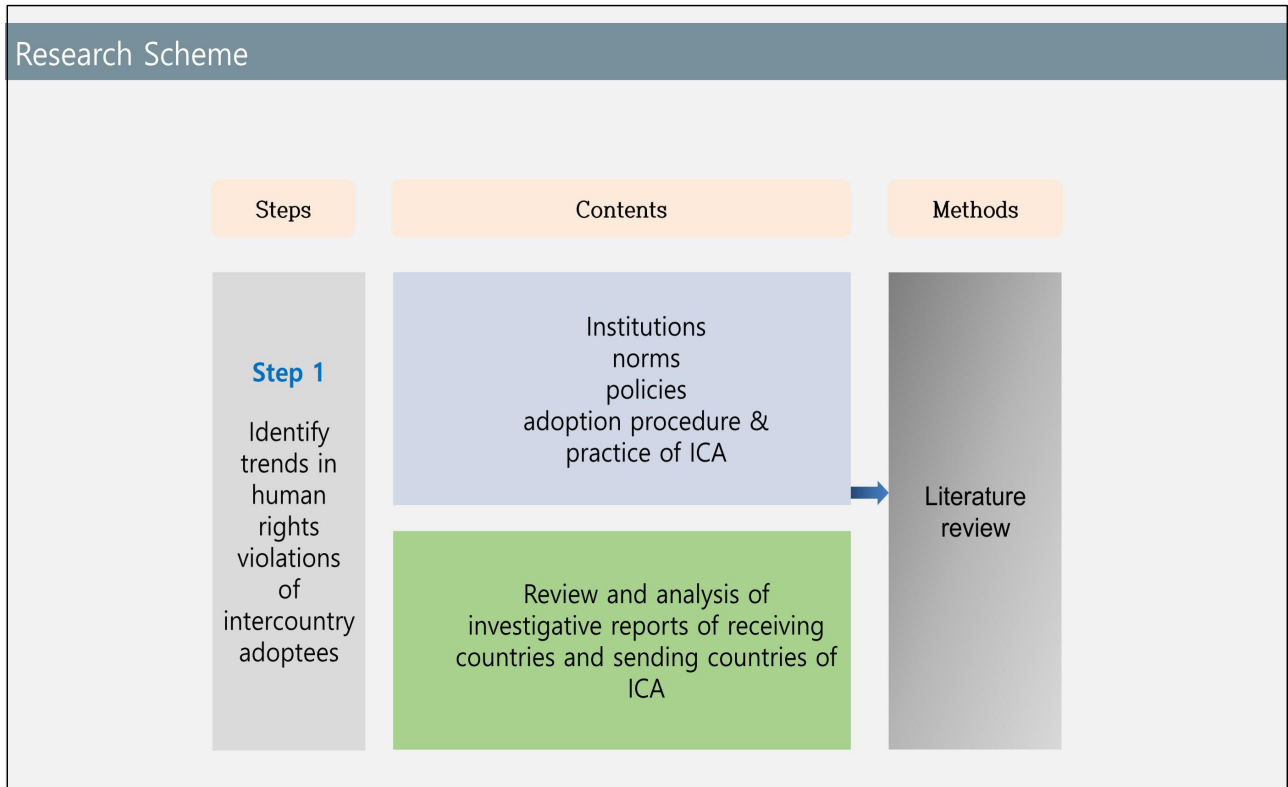
(3) Need for the collection & categoriza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of ICA.



## Background

(4) Need for measures to improve human rights protection of Korean intercountry adoptees and to support adoptees whose rights have been violated.





발표 (Speeches)



양적조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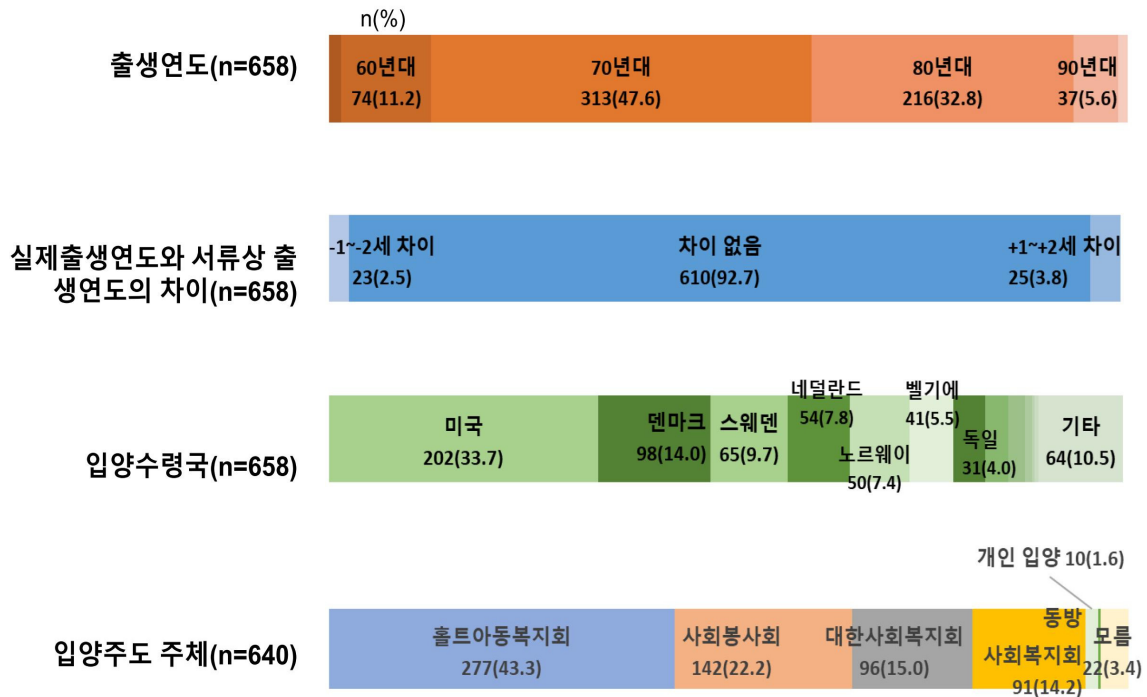


## 양적자료분석결과

### 양적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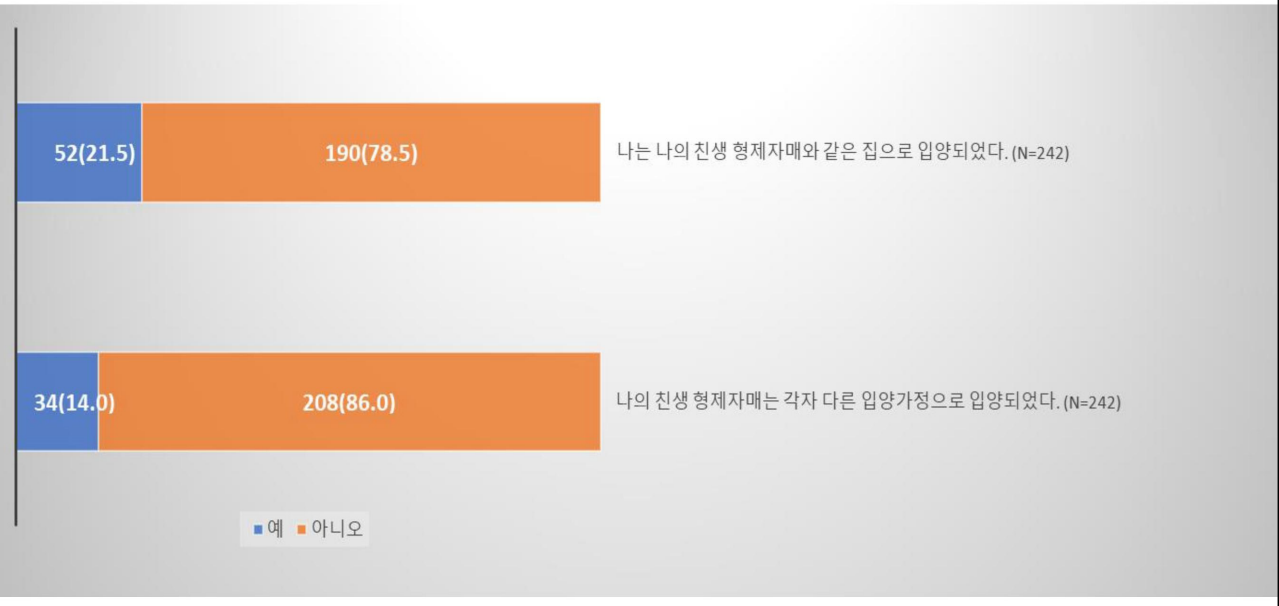
조사대상	해외입양인 658명
조사도구	자체 개발한 설문
조사방법	비대면 구글 서베이
조사기간	2022년 10월 20일 ~ 2022년 11월 30일
조사내용	인권침해 양상과 경험, 해외입양에 대한 전반적 의견 등
참여자 모집	해외입양인 단체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설문 조사 홍보와 권유 요청
참여자격	만 18세 이상 해외입양인

### 참여자 특성 (N=658)



### 친생 형제자매에 관한 정보

n(%)



### 한국 입양기관은...

n(%)



## 한국정부는...

n(%)



## 친권포기와 관련된 사실과 경험("모름" 응답 포함)

n(%)





### 친권포기와 관련된 사실과 경험(“모름” 응답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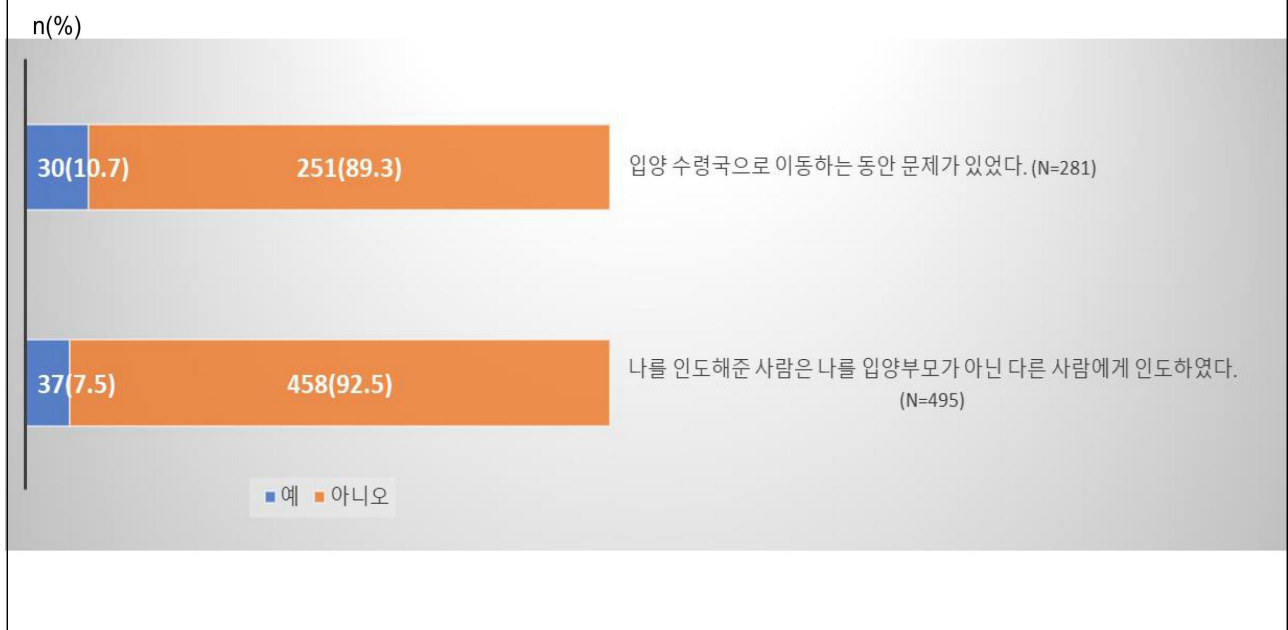
### 한국 시설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점(“모름” 응답포함)



### 한국 시설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점(“모름” 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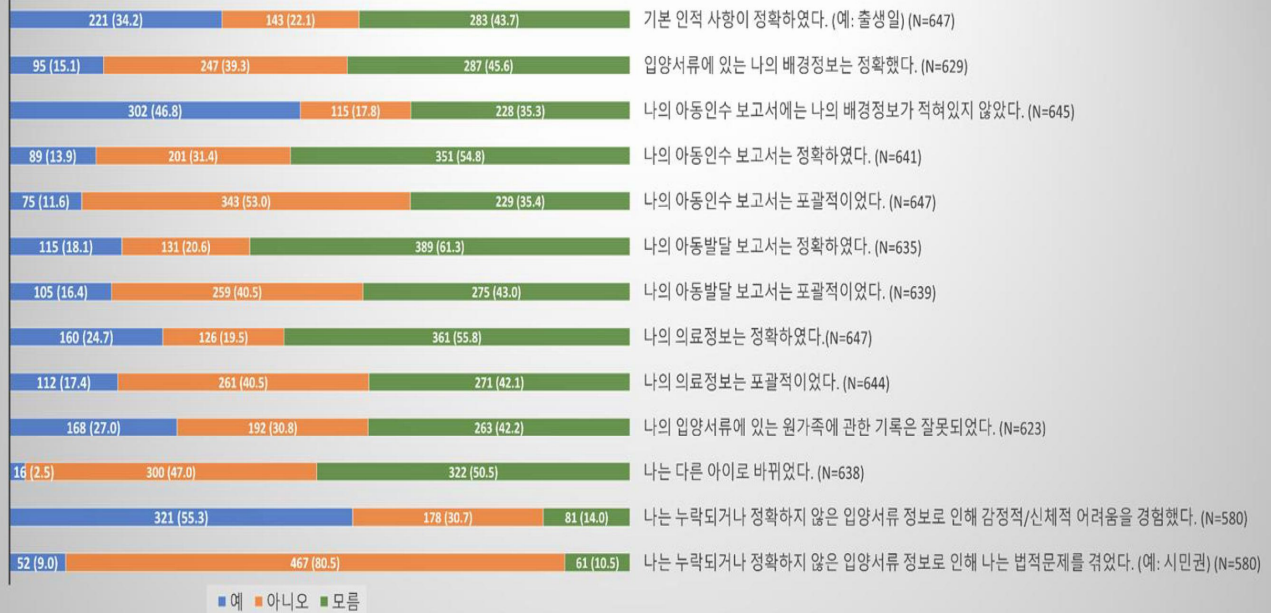


### 해외입양 수령국으로 이동하는 동안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점



## 입양서류 정보의 정확성과 포괄성 (“모름”응답 포함)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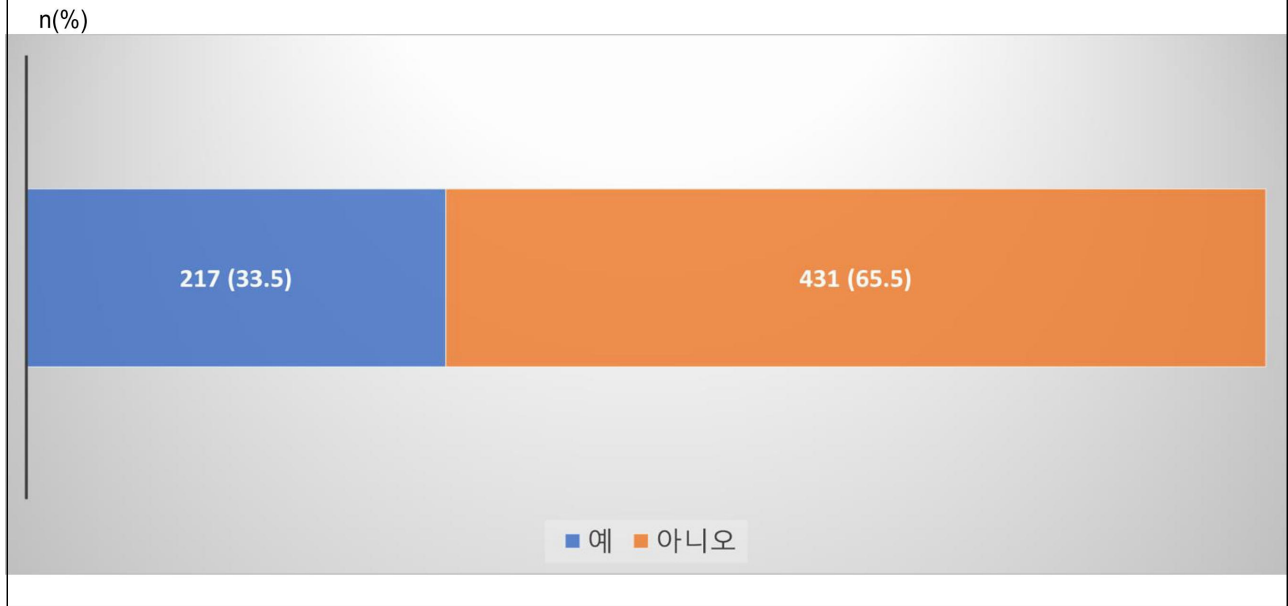


## 입양서류 정보의 정확성과 포괄성 (“모름”응답 제외)

n(%)



## 입양가정 내 아동학대 경험



## 신체학대 가해자

피해자수 총142(전체의 21.6%)



## 정서학대 가해자

피해자수 총190(전체의 28.9%)



## 성학대 가해자

피해자수 총89(전체의 13.5%)



## 방임 가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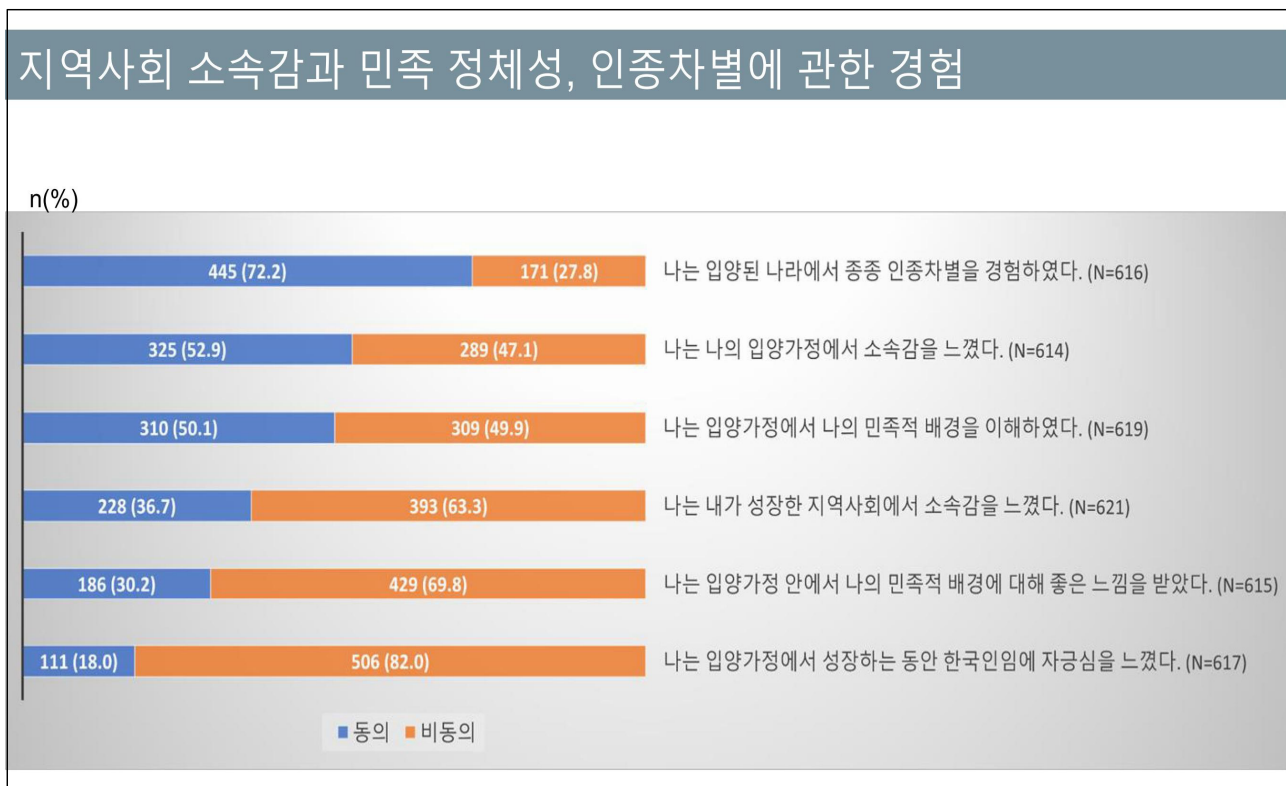
피해자수 총113(전체의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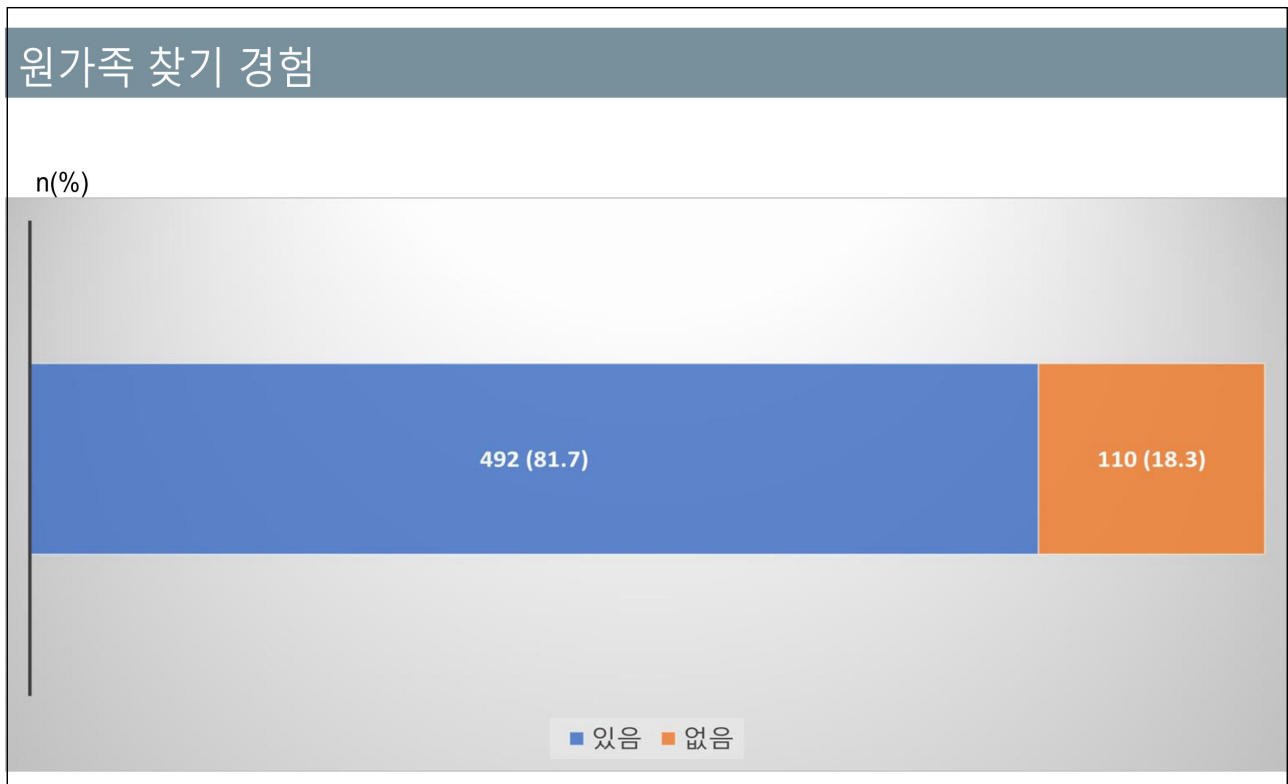


## 해외입양가정의 파양으로 경험한 어려움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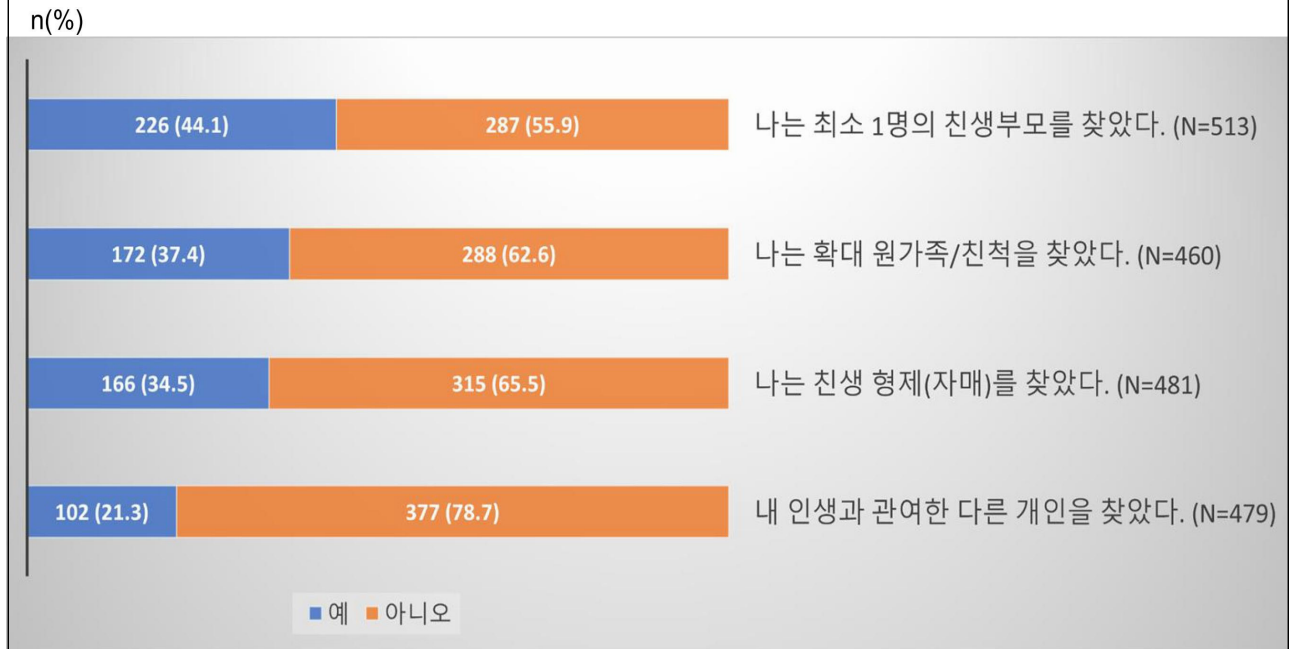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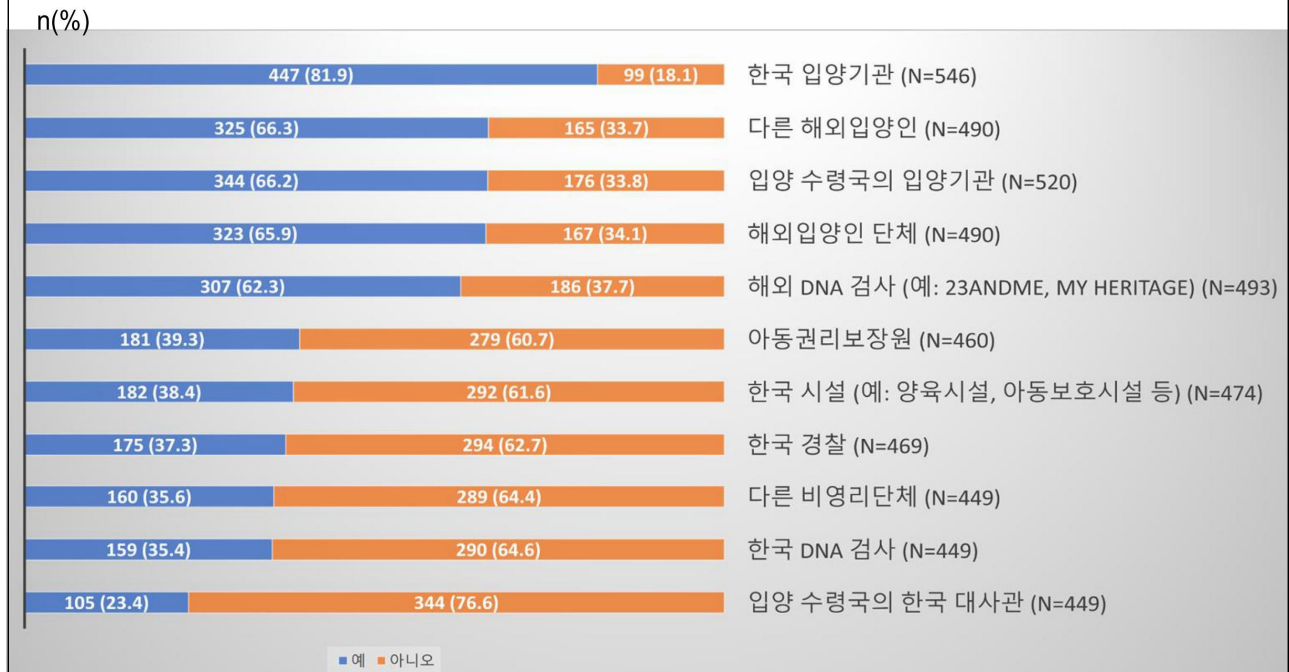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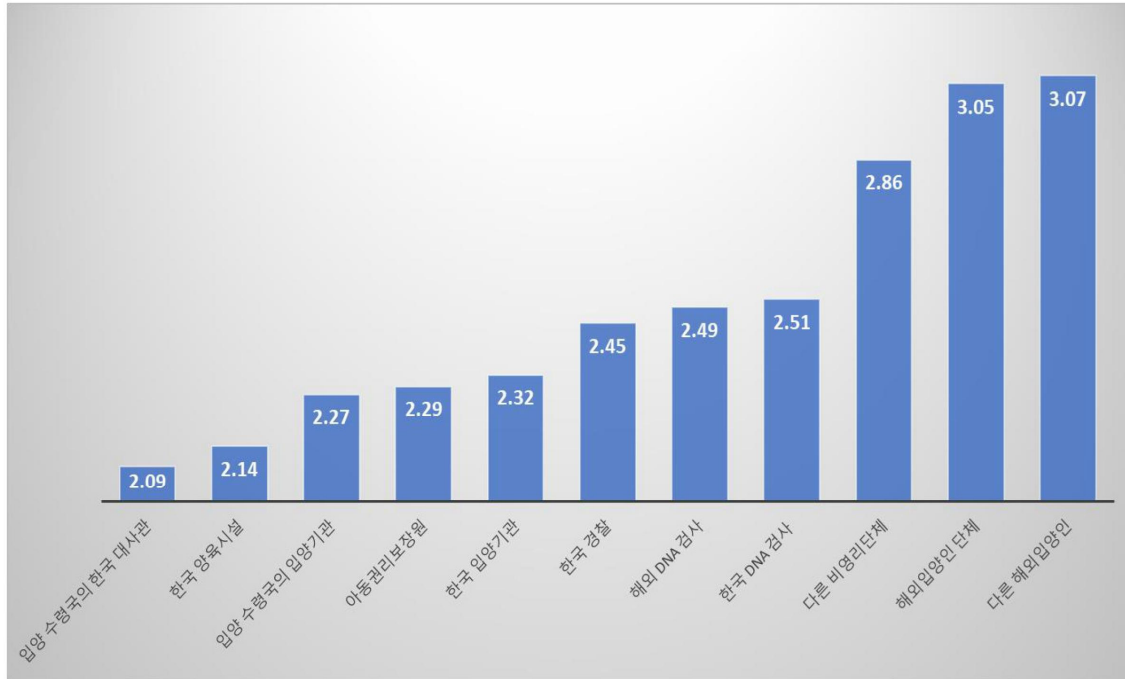
## 원가족과의 재회



## 원가족 찾기에 도움 준 기관/사람



## 원가족 찾기에 도움 준 기관/사람의 도움 된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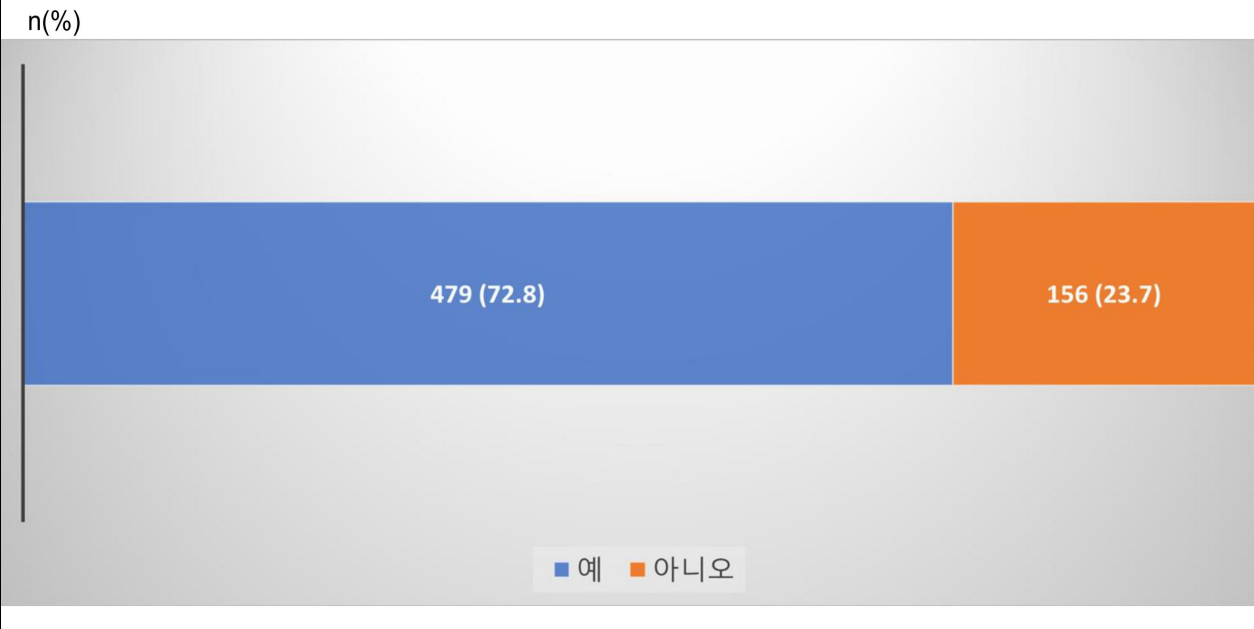


## 해외입양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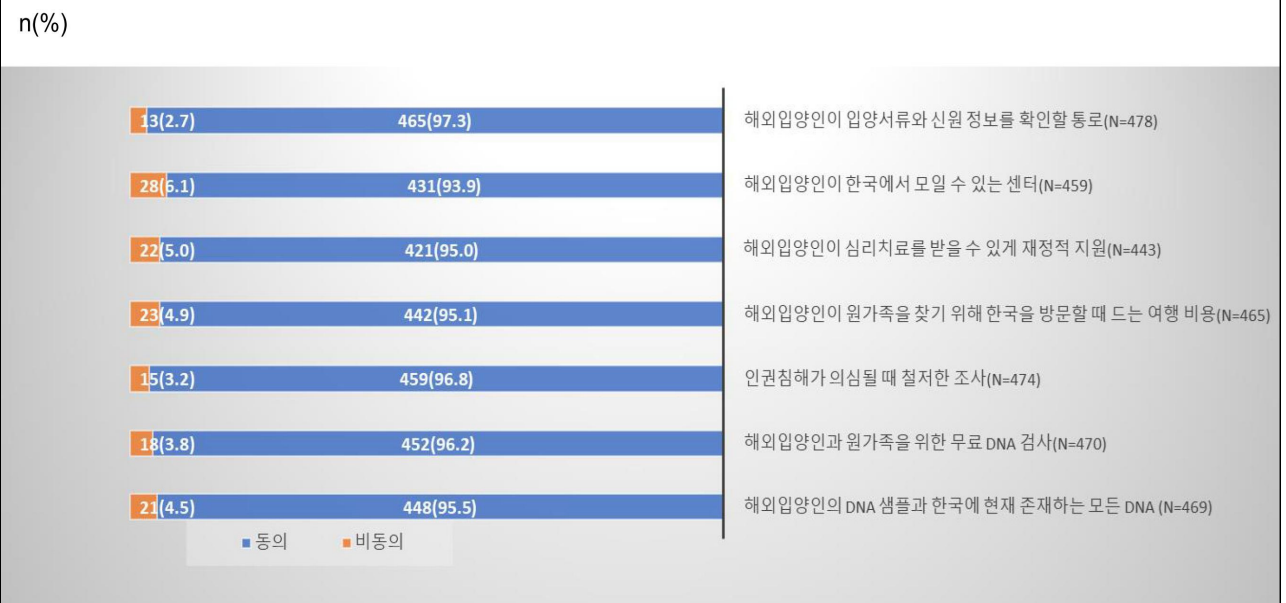
n(%)



### 해외입양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필요성



### 한국 정부에 바라는 배상





발표 (Speech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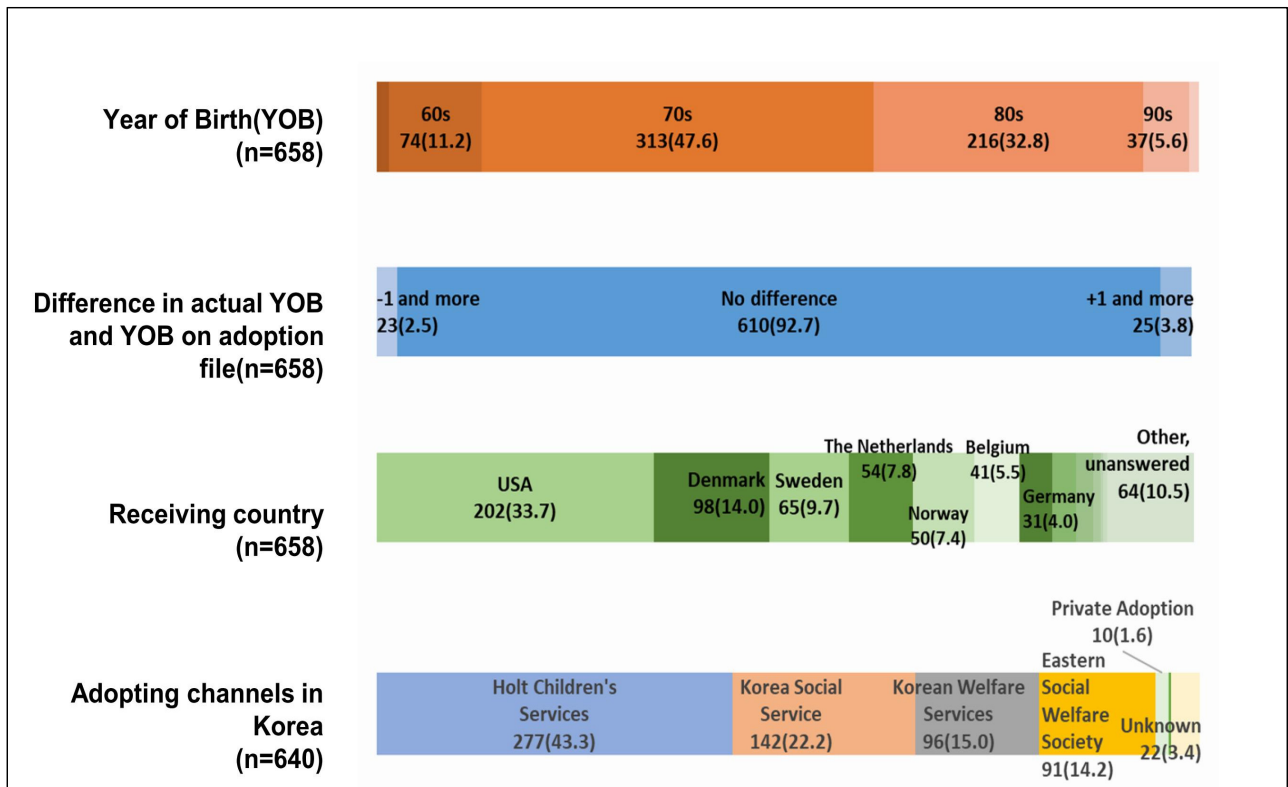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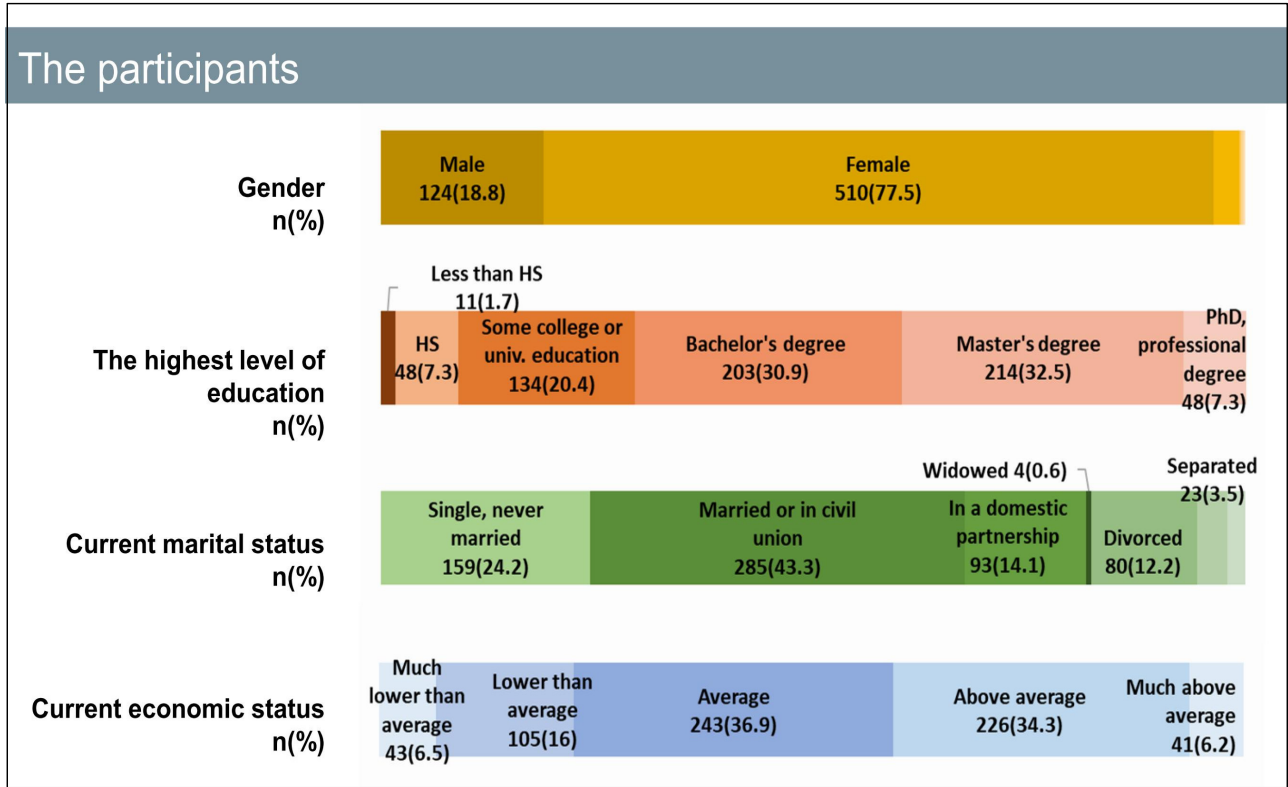
# Results from Quantitative Data Analy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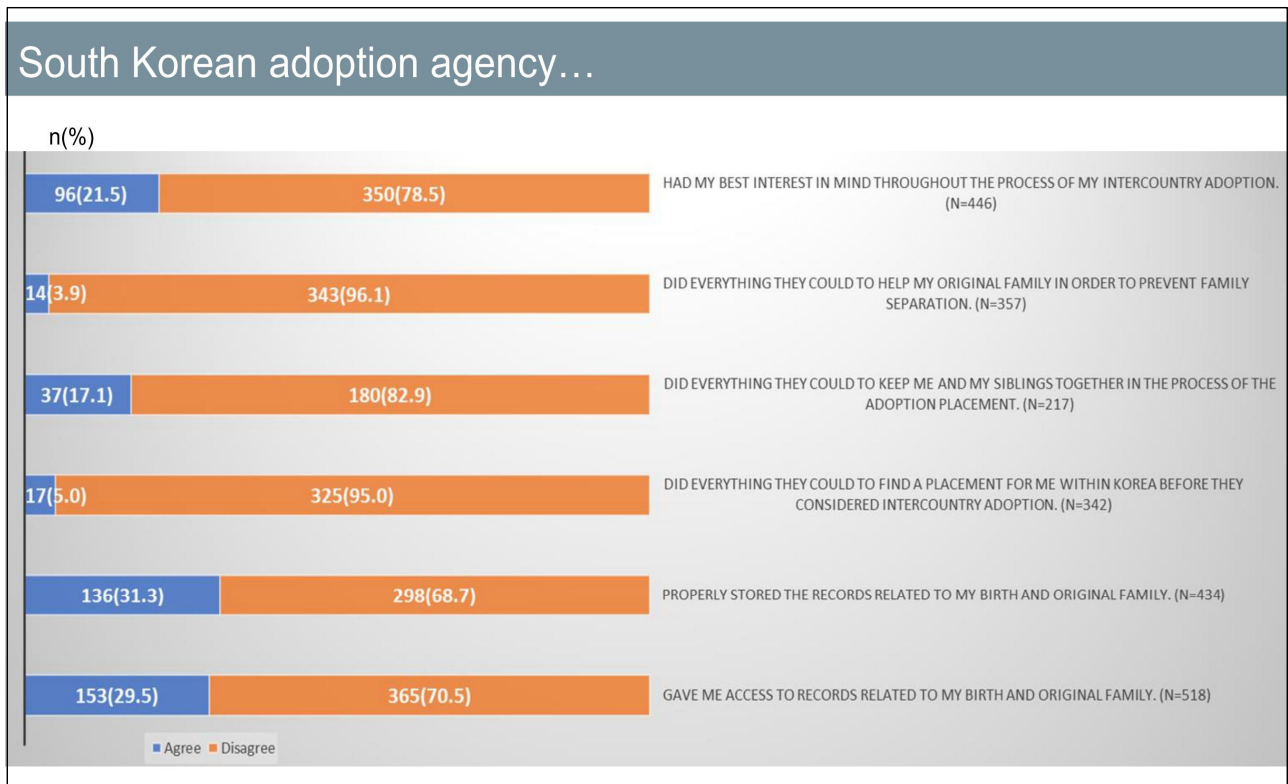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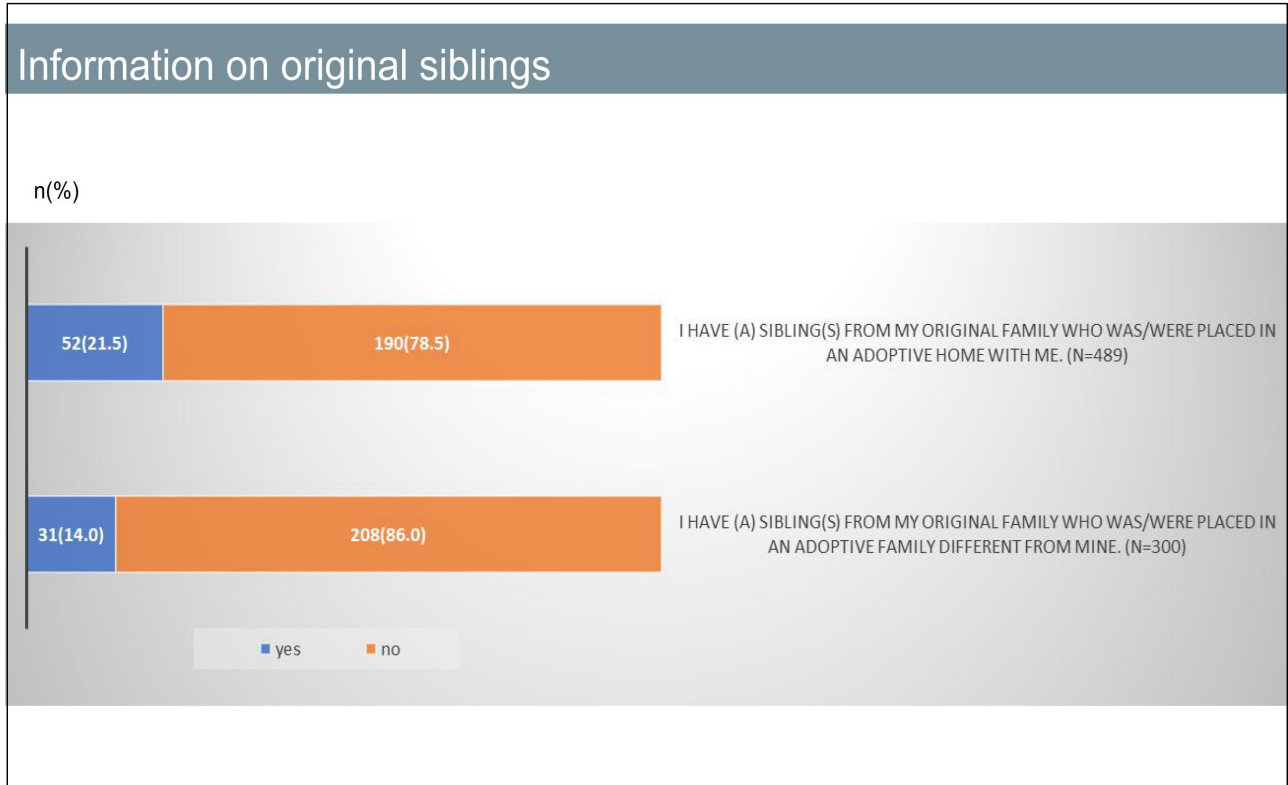
## Results from Quantitative Data Analyses

### Overview of the Quantitative Research

Participants	Korean intercountry adoptees (n=658)
Tools	Self-developed questionnaire
Methods	Google survey
Survey Period	October 20, 2022 ~ November 30, 2022
Survey Content	Types of human rights issues, attitude towards intercountry adoption
Participant Recruitment	Via various Korean intercountry adoptee groups and on-line communities
Participation Eligibility	Korean intercountry adoptees who are 18 or ol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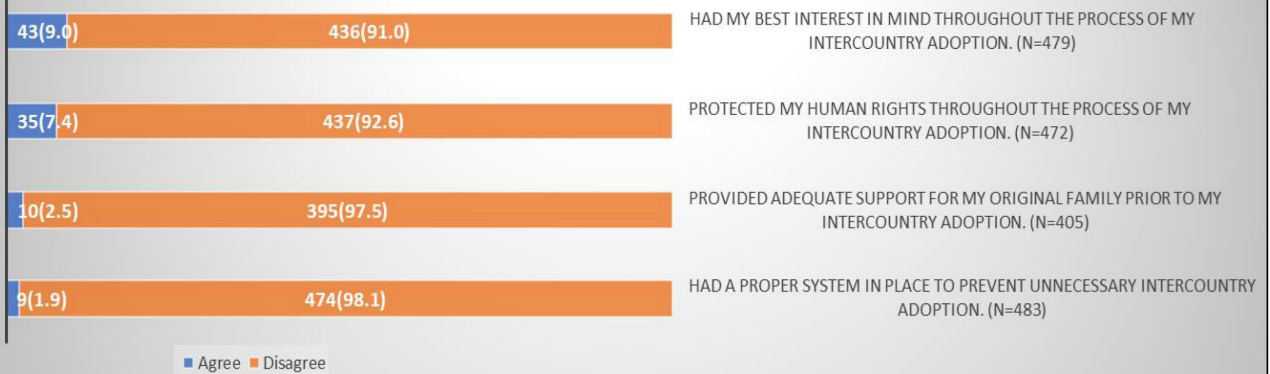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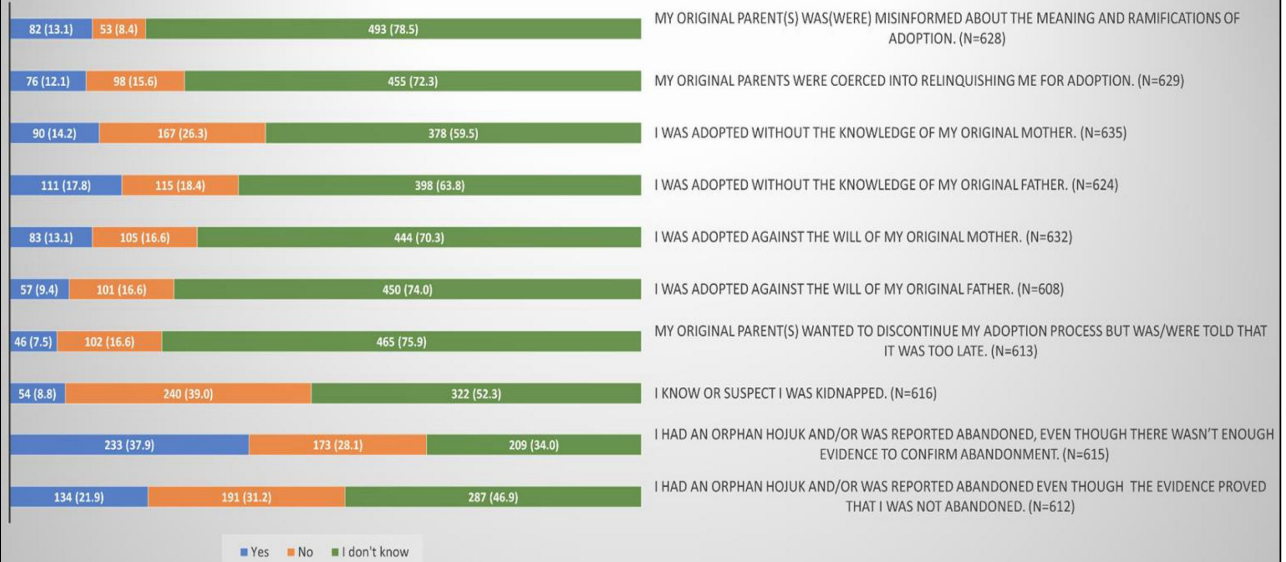
## The South Korean State...

n(%)



## Issues around relinquishment(including “don’t know” responses)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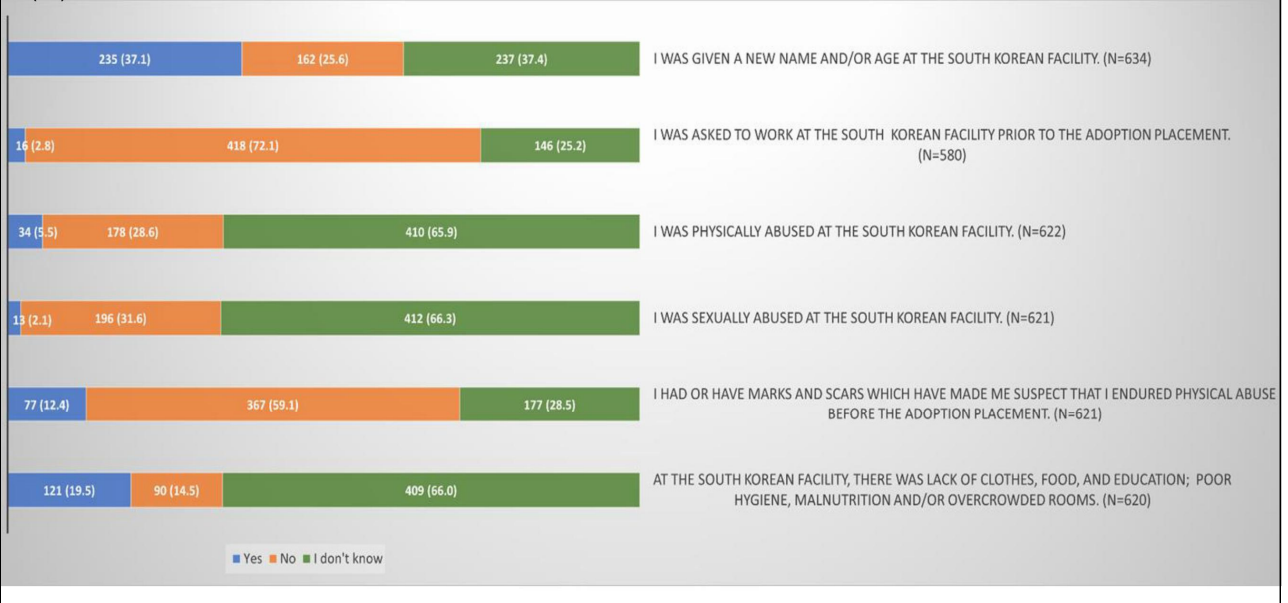
### Issues around relinquishment(excluding “don’t know” responses)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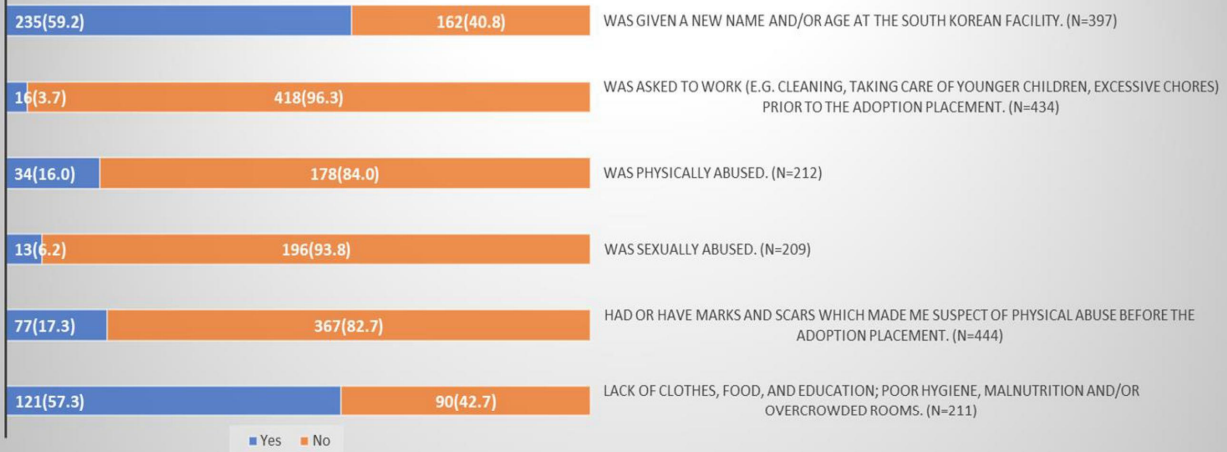
### Issues at the South Korean facility(including “don’t know” responses)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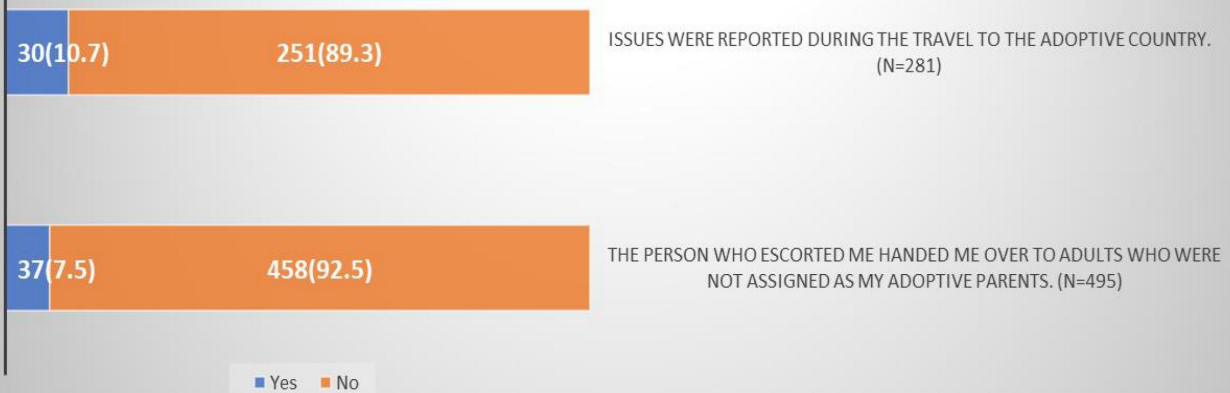
### Issues at the South Korean facility(excluding “don’t know” responses)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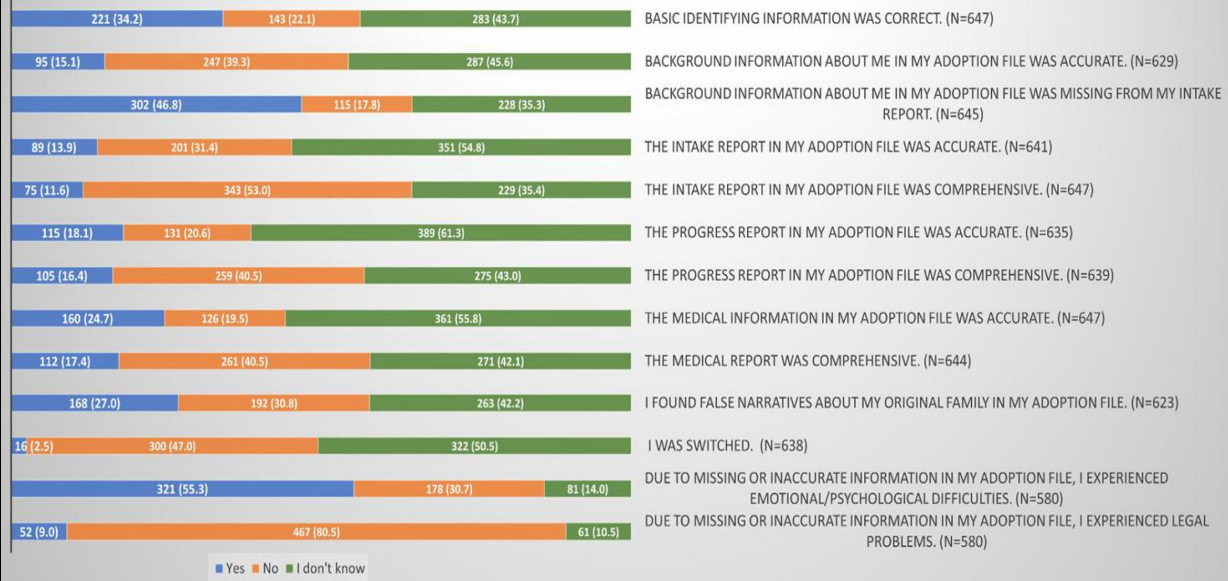
### Issues during travel to the adoptive country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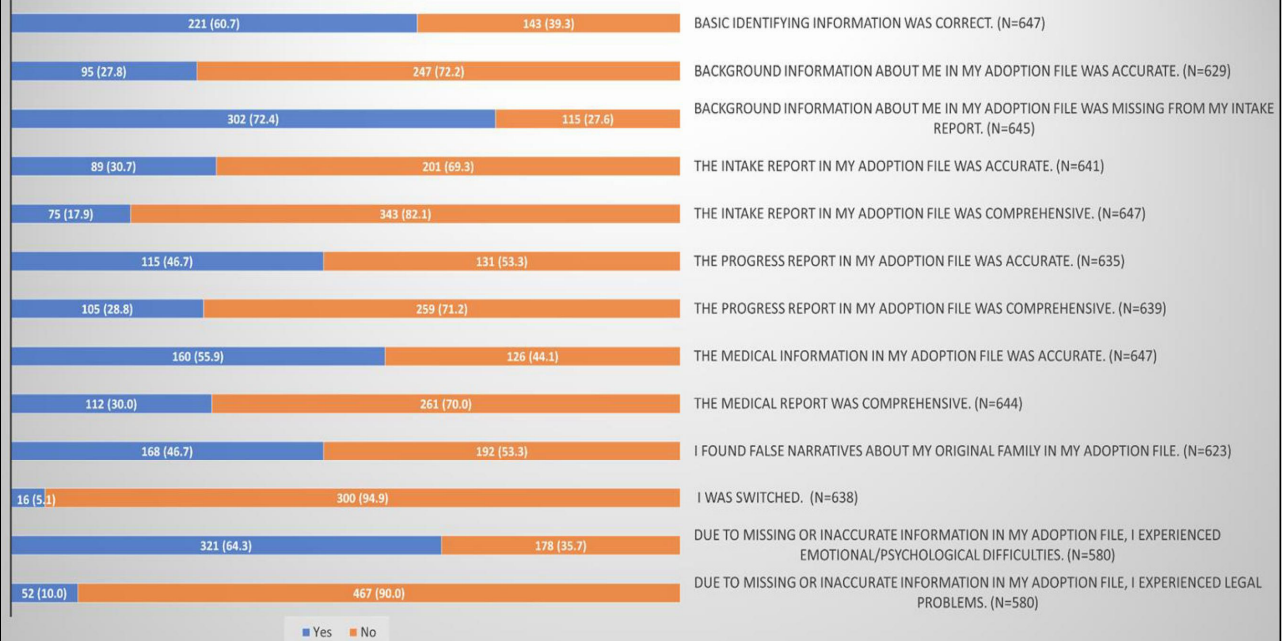
### Issues with the adoption files(including “don’t know” responses)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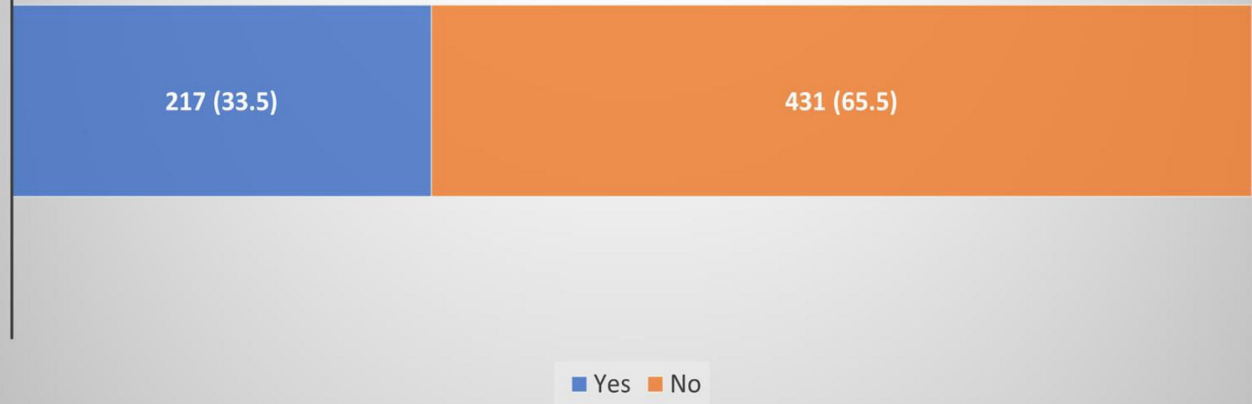
### Issues with the adoption files(excluding “don’t know” responses)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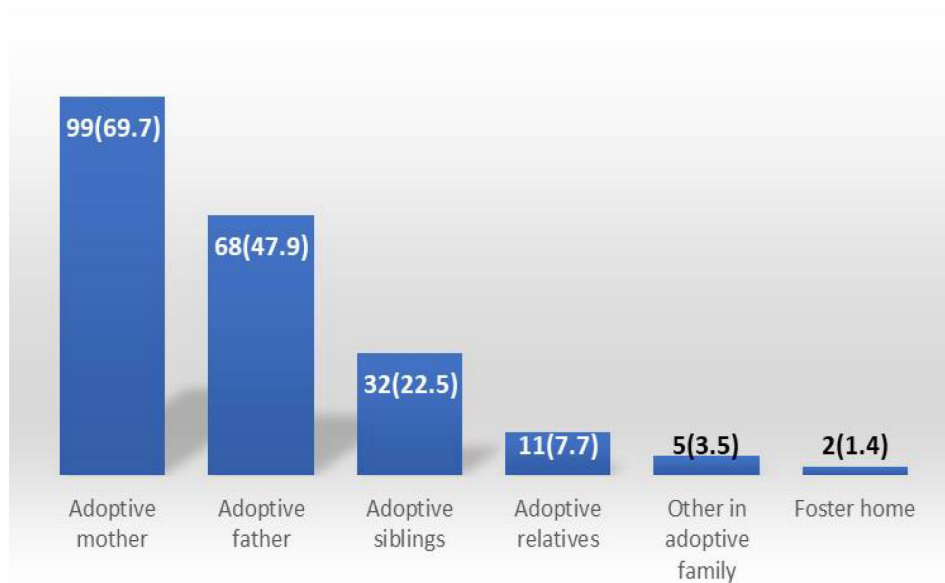
### Child abuse and neglect in the adoptive home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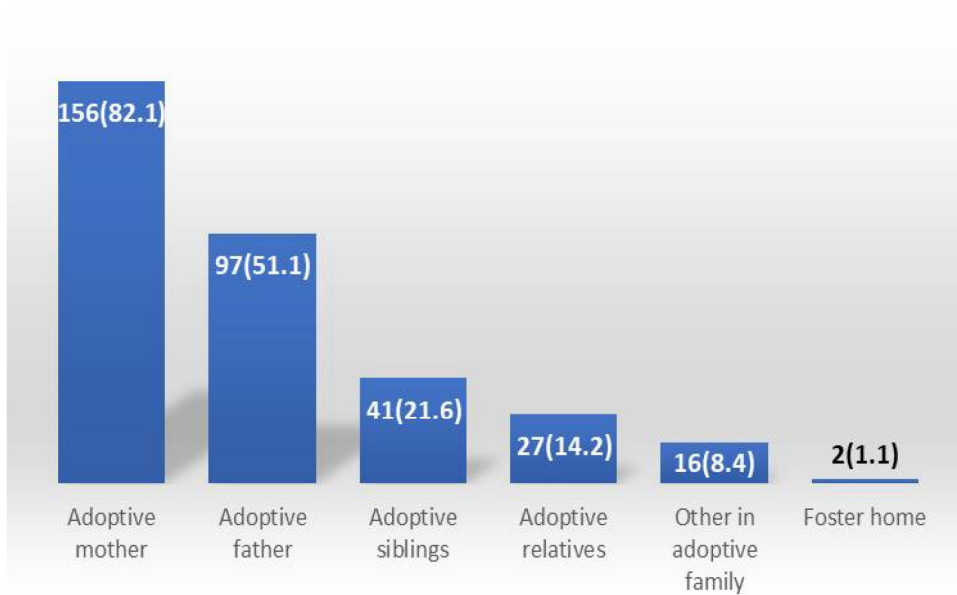
### Perpetrator (Physical Abuse)

Total number of victims 142(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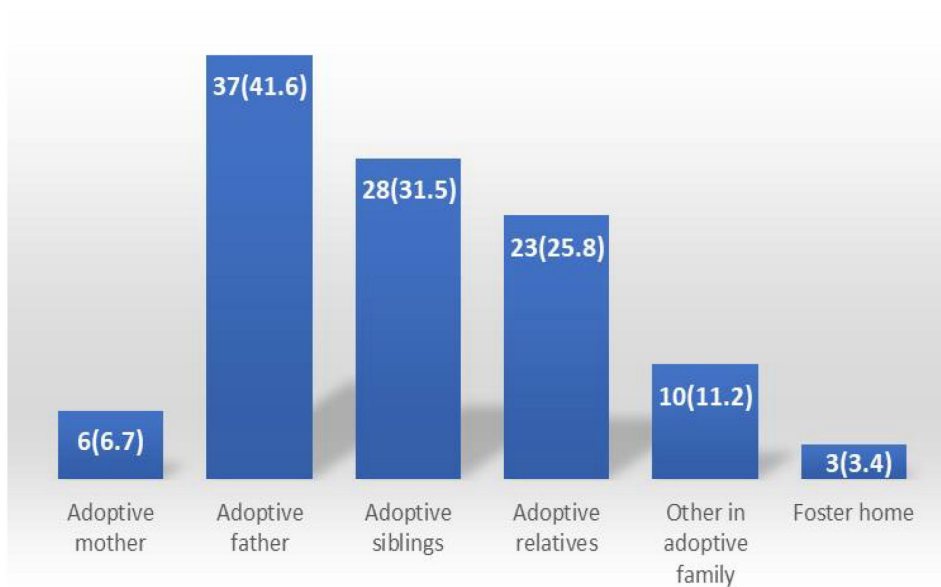
### Perpetrator (Emotional Abuse)

Total number of victims 190(28.9%)



### Perpetrator (Sexual Abuse)

Total number of victims 89(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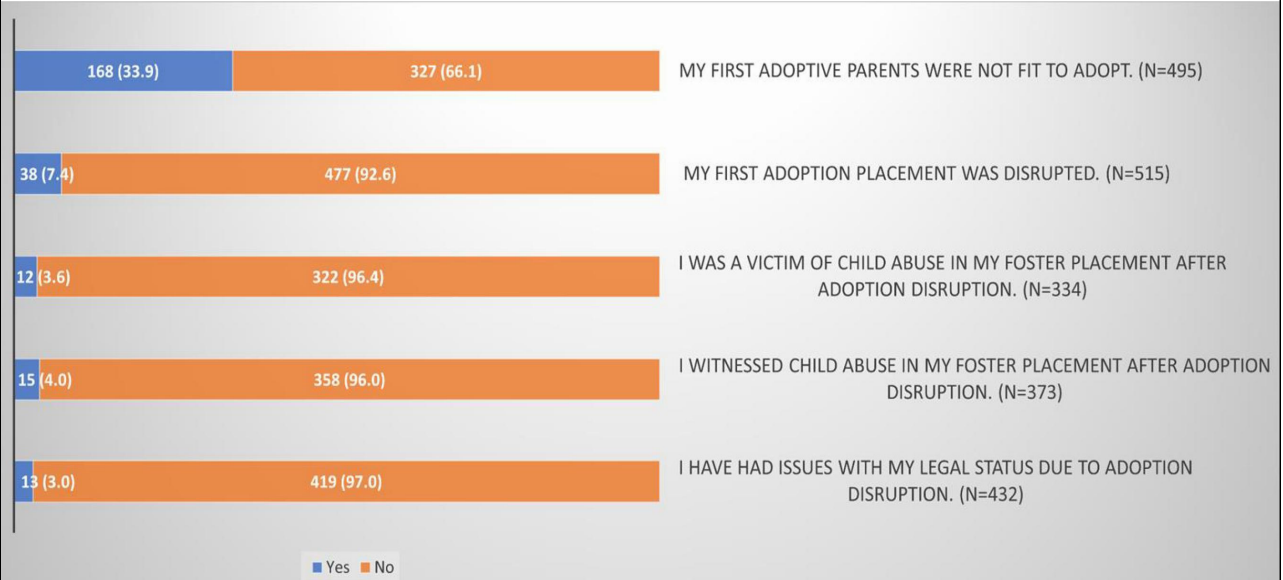
## Perpetrator (Neglect)

Total number of victims 113(17.2%)



## Issues around adoption disru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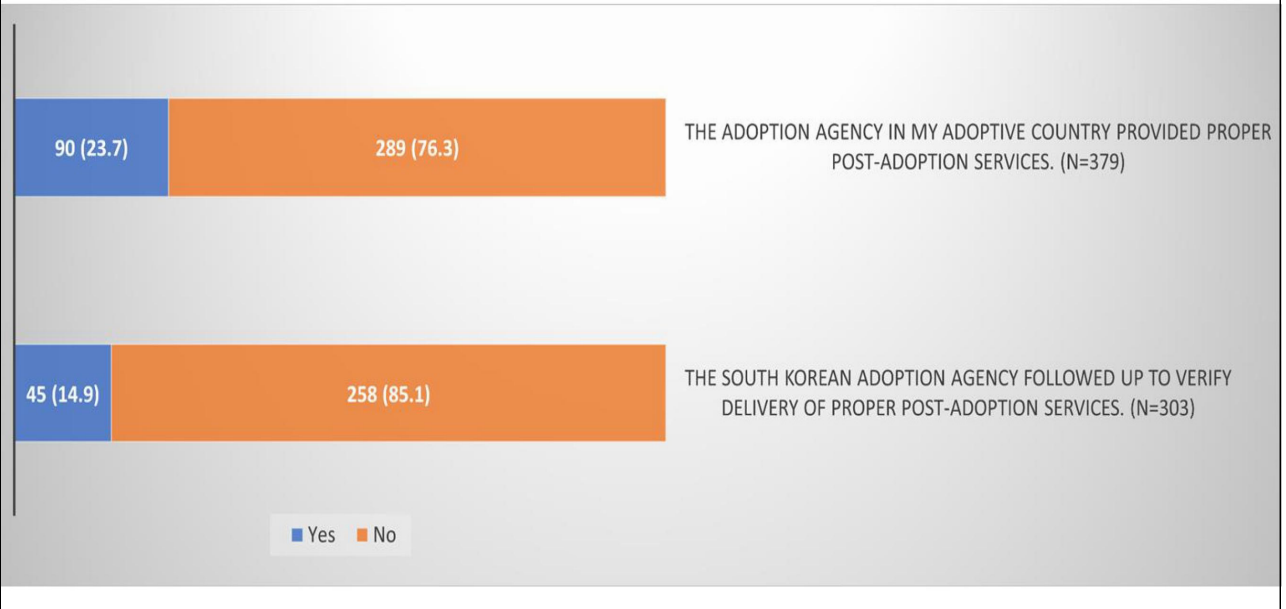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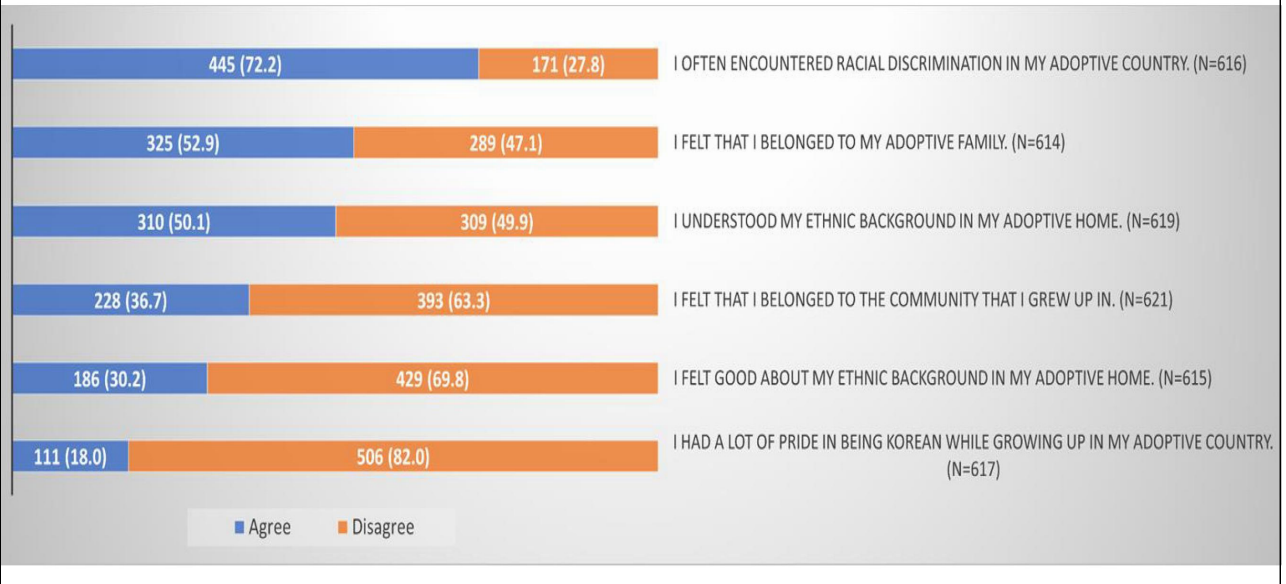
### Issues regarding post-adoption services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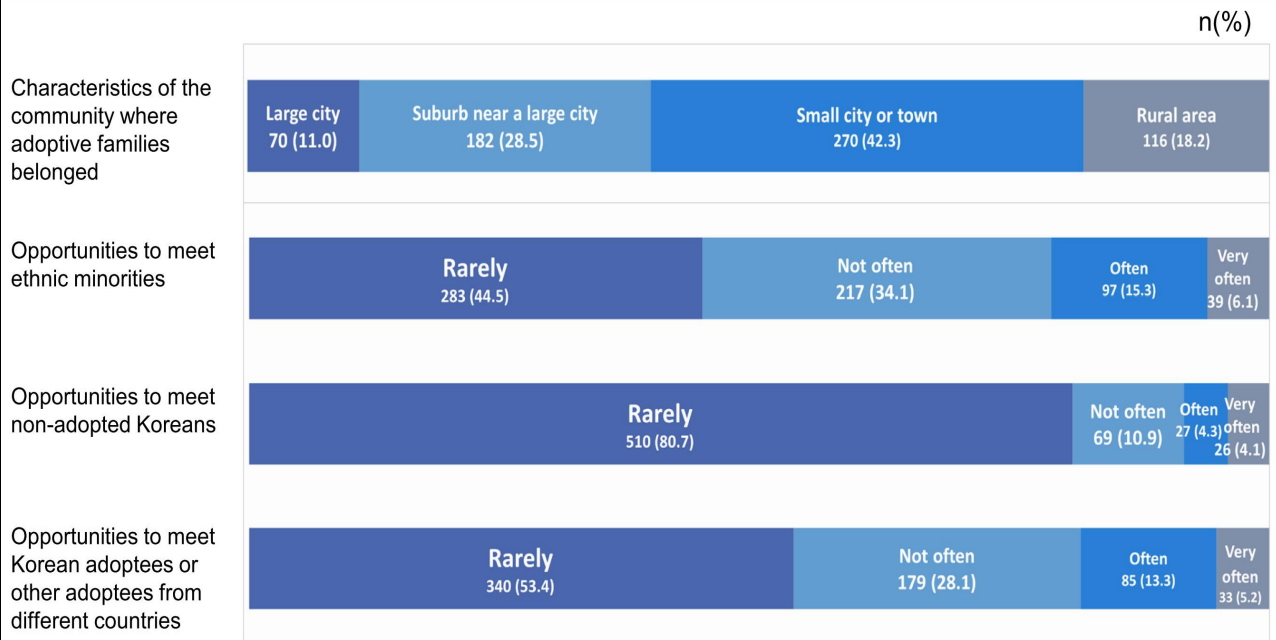


### Belonging to a Community, Ethnic Identity and Racial Discrimination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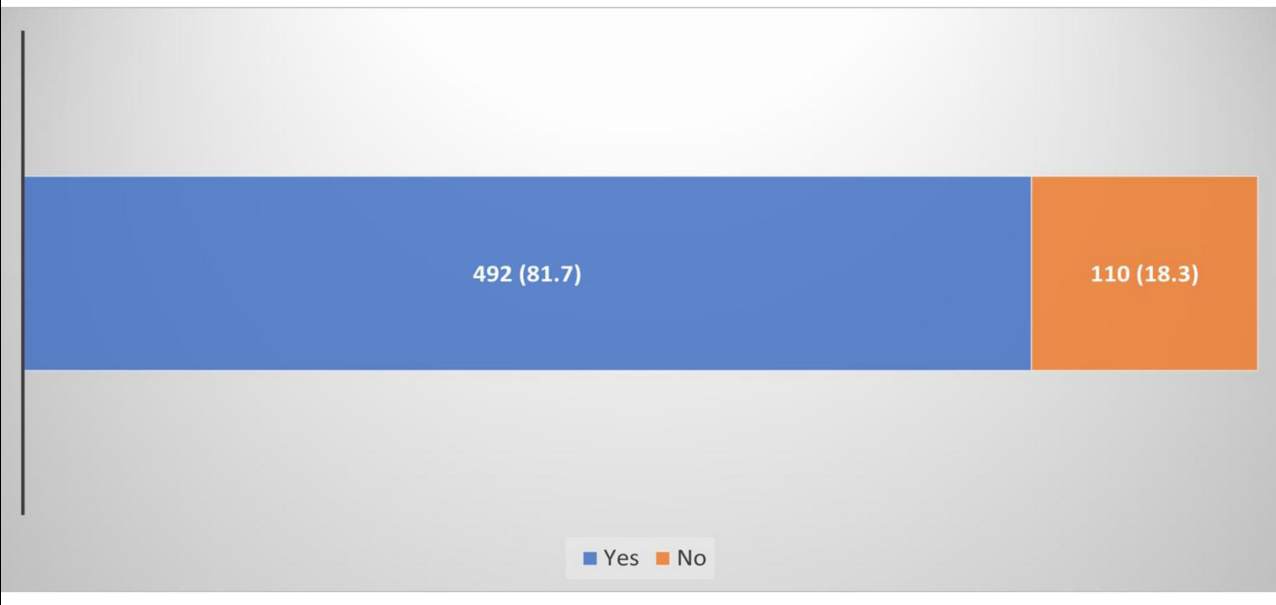


## Regional characteristics of adoptive fami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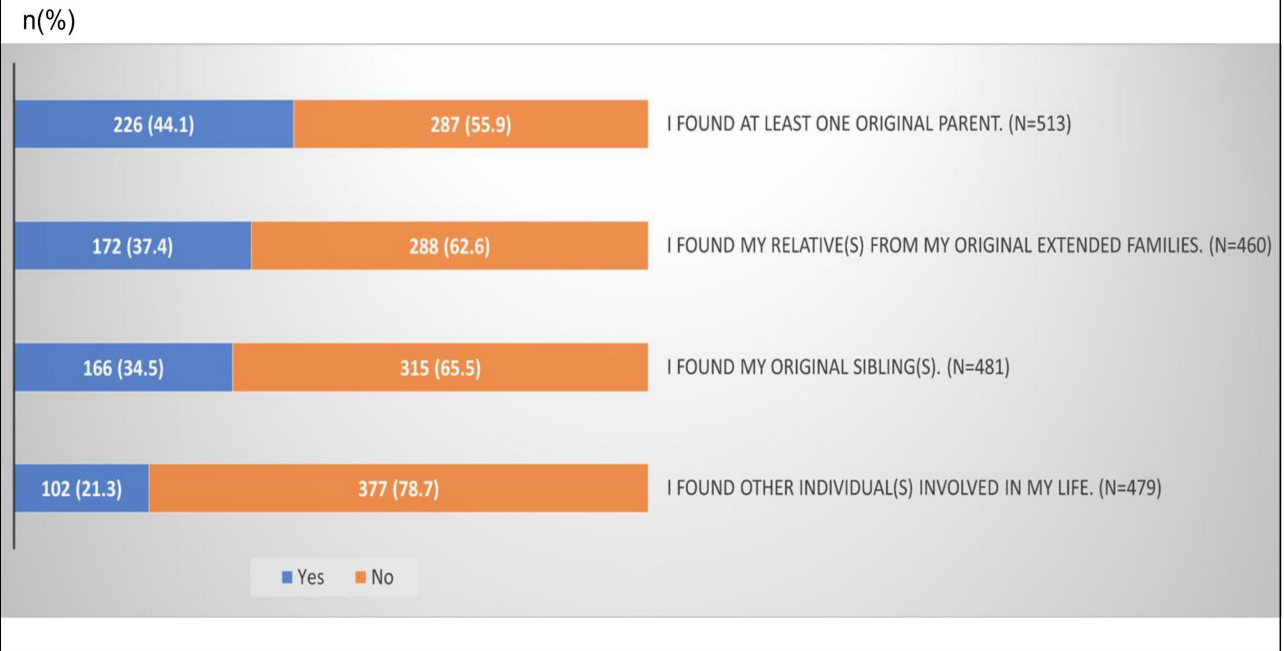


## Birth family search experience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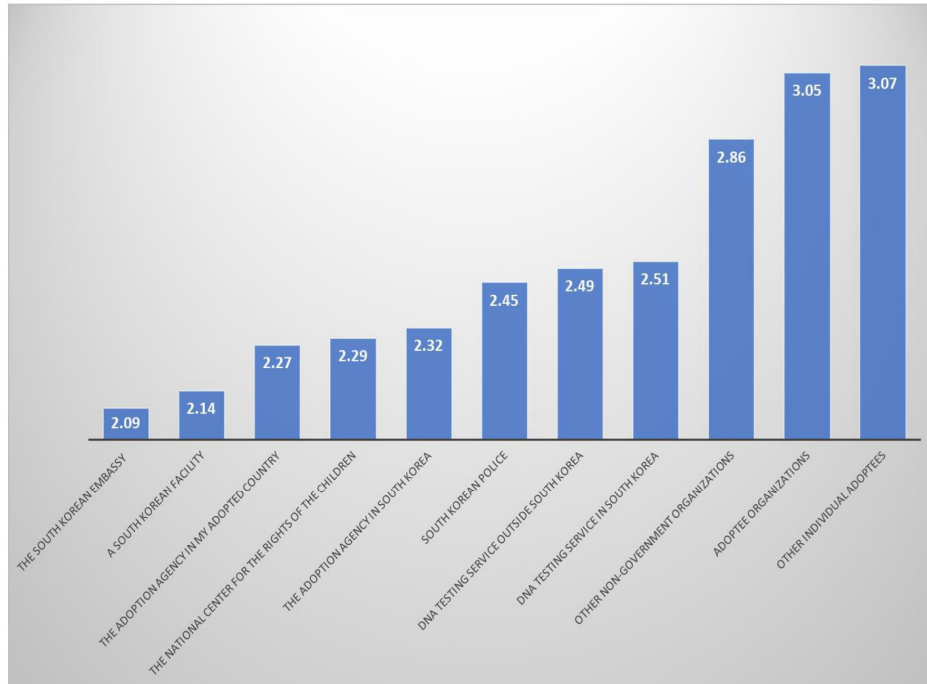
### The result of one's search



### Entities that helped birth family 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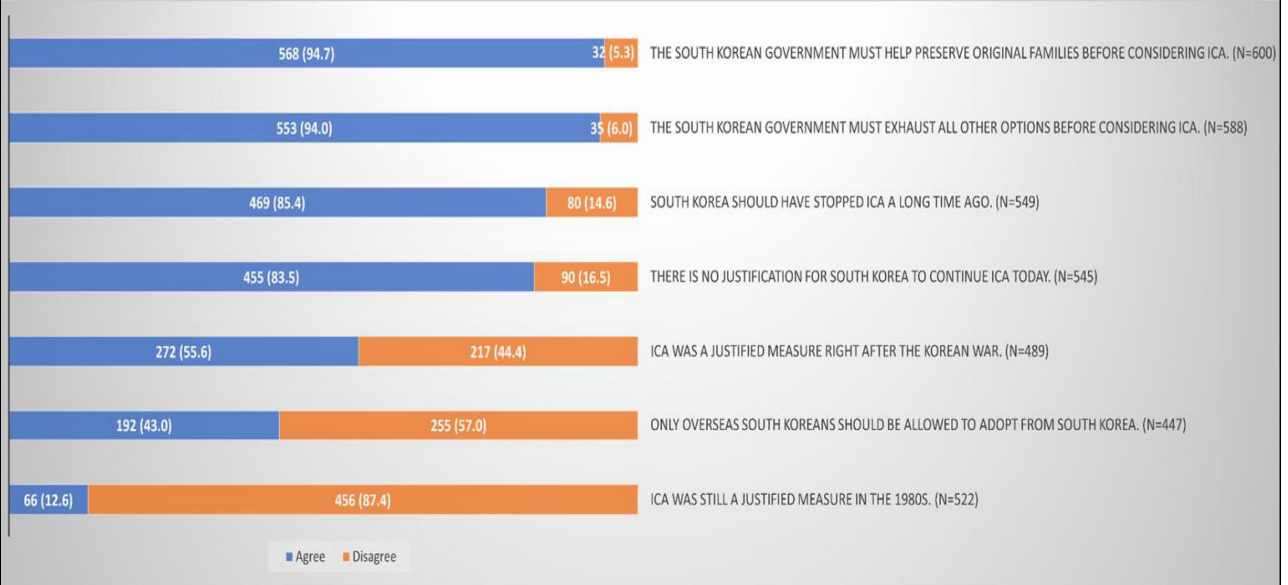


## Degree of hel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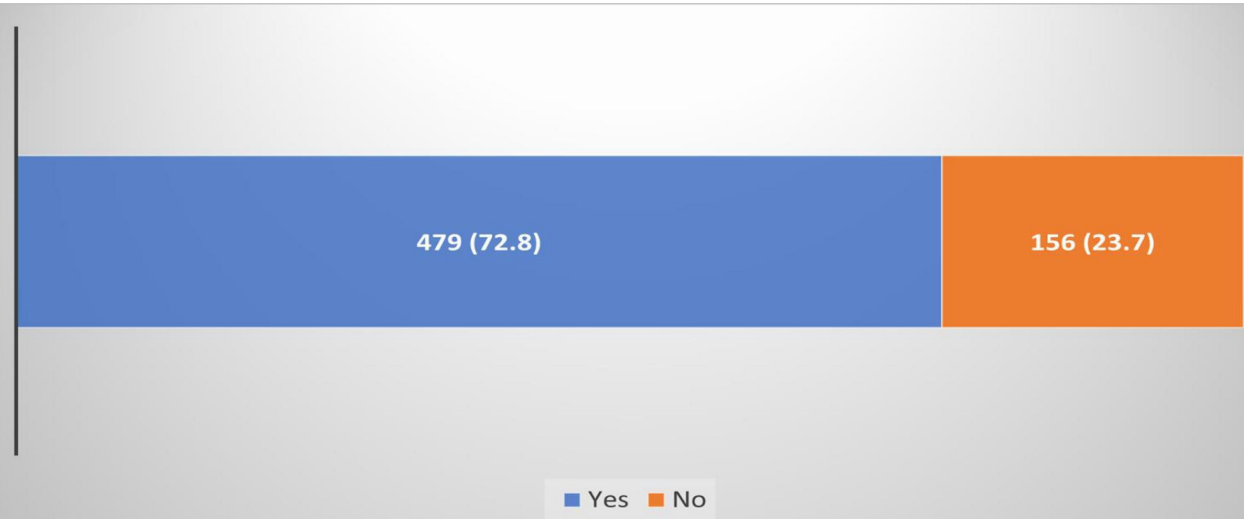
## Attitude toward/opinion about ICA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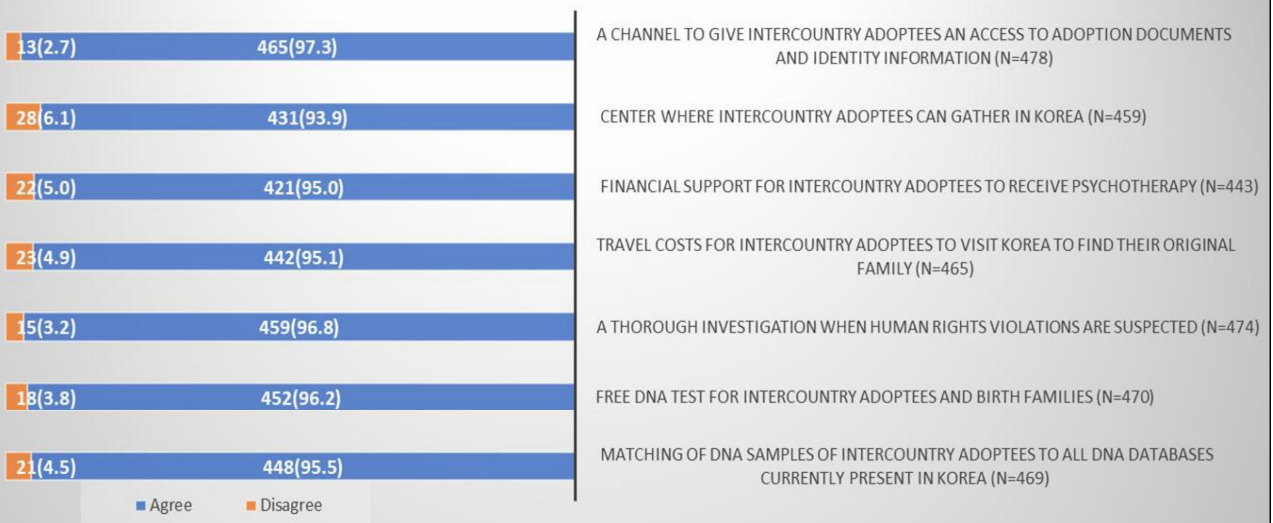
### Reparation(I feel I am owed reparation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s a result of my adoption.)

n(%)



### I'd like the Korean government to offer...

n(%)





발표 (Speeches)



질적조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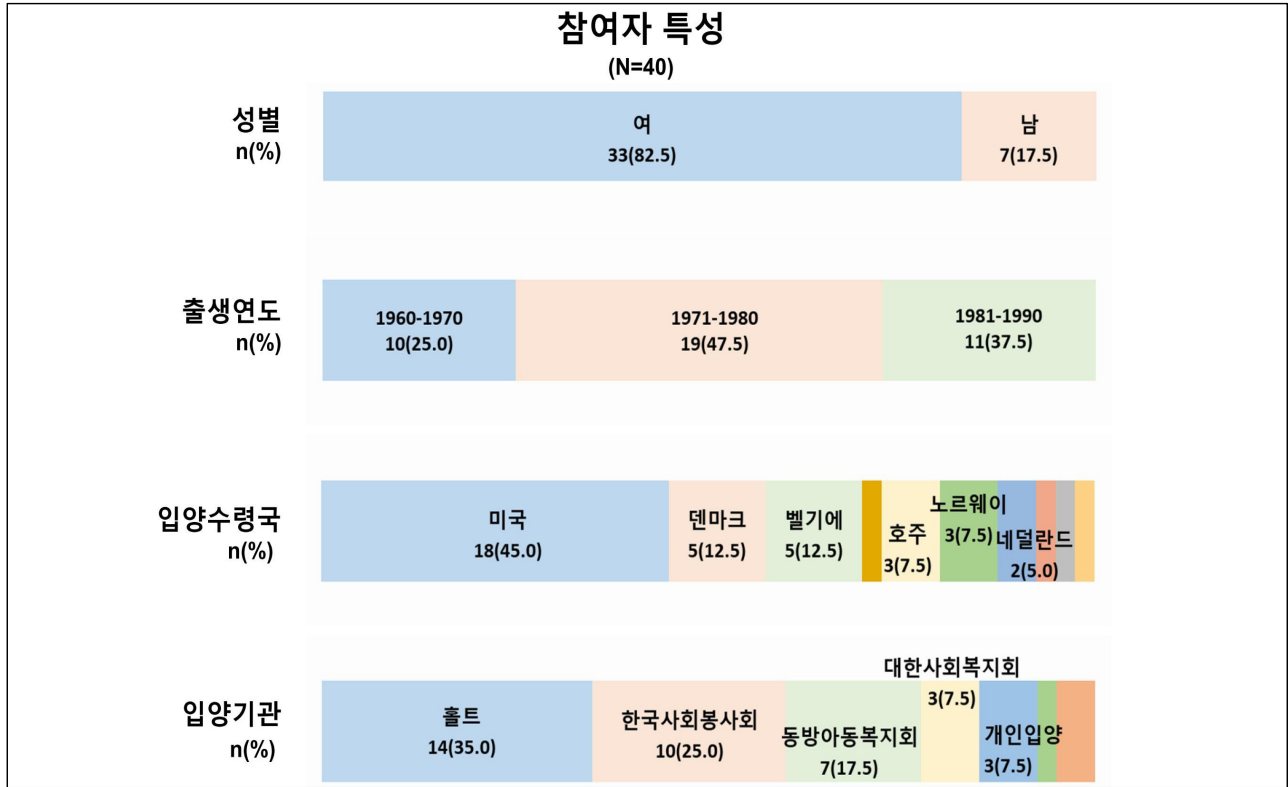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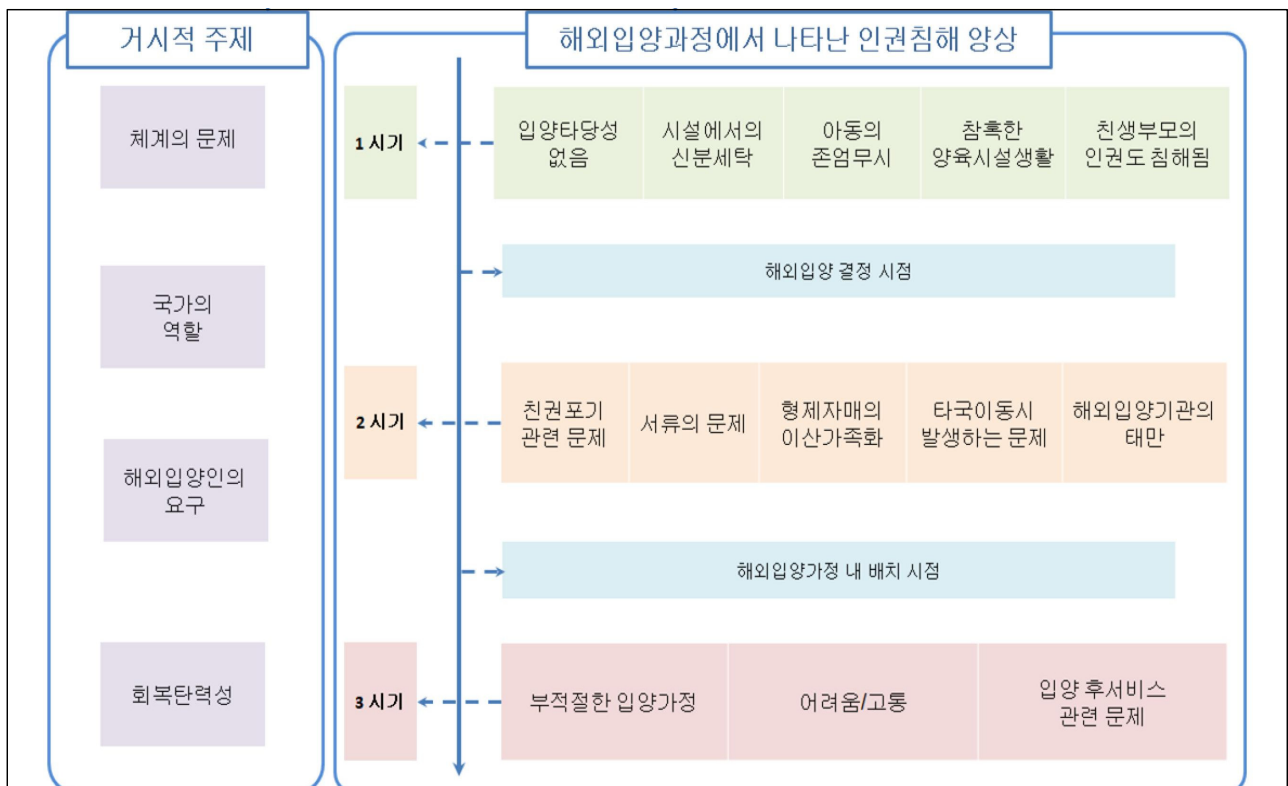
## 질적자료분석결과

### 질적조사 개요

조사대상	해외입양인 39명, 해외입양인 자녀 1명
조사도구	자체 개발한 질문
조사방법	개인 또는 집단면접 (대면 또는 ZOOM을 활용한 화상 면접)
조사기간	2022년 6월 27일 ~ 2022년 10월 16일
조사내용	인권침해 양상과 경험, 해외입양에 대한 전반적 의견 등
참여자 모집	해외입양인 단체에 요청해 모집
참여자격	만 18세 이상 해외입양인이나 그 자녀



입양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양상이 어떠했는지



해외입양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양상

1시기



**‘입양 타당성 없음’**

고아도 기아도 아니었던 자신의 해외입양이 원론적으로 타당하지 않음

“친생모는 난산이라 의식이 왔다 갔다 했고, 친생부는 병원에 오지 못했어요. (중략) 병원에서 친생가족에게 내가 출생 당시 사망했고 시신을 처리했다고 통보했어요. 허위가 만들어진 거죠. (중략) 마침내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서 내 부모님을 찾았는데 (중략) 내 친생부는 어리둥절했어요, 애가 죽었는데 무슨 소리냐...(중략) 우리 가족에게는 내가 죽은 사람으로 삼십 년 이상 전해져 내려왔는데.”

**‘시설에서 신분세탁’**

신분세탁 과정을 통해 친생가족과 연결지점이 끊김

“새로운 이름이랑 생년월일이 주어져요, 처음 시설A에 들어가면. (중략) 네다섯, 여섯 살 또래 애들 볼 때마다 내가 누구고 어디 살았는지 알았겠구나... 그런데 어른들이 네 살짜리 애한테 새 이름, 새 생년월일도 주면 결국 그걸 믿겠구나... 현실이 뭔지 그때는 잘 모르고 권력자가 와서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뭘 알겠어요? (중략) (A시설장)이 완전히 바꿔버리길 원하는 거고, 내 정체성을 없애 버린 거고, 다른 삶을 시작하게 한 거죠.”

### ‘친생부모의 인권도 침해됨’

해외입양인 자신뿐 아니라 그 친생가족의 인권침해이기도 하다는 관점

“엄마가 내가 태어난 날 나를 입양 보내려고 포기한 걸 알고 아버지가 그날로 찾아갔는데, 너무 늦었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벌써 입양이 결정돼서 어디론가 가고 있다고,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서류를 보면 내가 A시에 6일 있었고 거기 위탁가정에서 4개월 반을 지냈거든요.”

## 2시기



### ‘친권포기 관련 문제’

친생부모에게 입양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그 의미를 축소해 입양 동의를 조장, 친생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친인척 등 대리인의 동의를 채택함

“A 입양기관에서 친생부모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유학 보내는 거랑 같다고. 입양 보내면 유학생 생기는 거라고. 친생부모는 입양 보내는 게 친권 포기라는 걸 몰라요. 그들은 자주 ‘그런데 18세 되면 다시 와서 다시 같이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외국에서 돈도 많이 벌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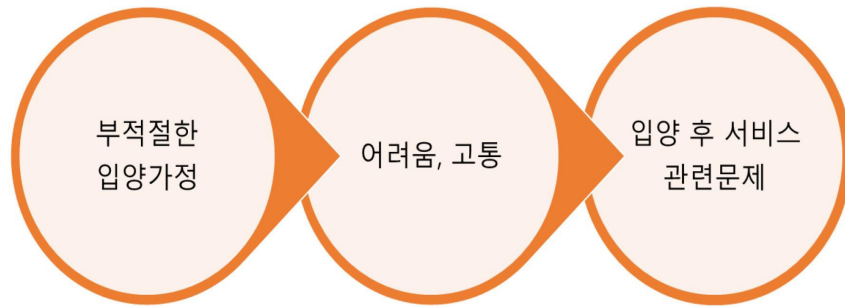
### ‘서류의 문제’

부정확하거나 위조된 정보, 접근 불가능한 정보

“나랑 내 쌍둥이 자매가, 우리가 그때 두 살이었는데 이름도 얘기하고 우리 둘이 쌍둥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A 시설에 가서 알아보니 그날 여자아이 둘이 입소한 것은 맞는데 쌍둥이가 아니고 한 살 터울이었던대요. 내 입양부모님도 쌍둥이를 원한다고 기관에 얘기했는데, 내 아버지는 솔직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았나 놀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DNA 검사를 해보니 우리는 자매는 맞지만, 쌍둥이는 아니래요. 내 서류의 모든 정보가 다 부정확한 것이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추적할 것이 없었어요.”

“문제는 내가 실제로는 세 살이나 어린애였다는 걸 보고하지 않은 것이지요. 나는 이것이 내 권리의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해요. 내 입양부모는 더 나이가 많은 아이를 원했는데 나이 많은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 3시기



#### ‘부적절한 입양가정’

입양가정의 금전 문제, 학대와 방임, 정신적으로 아픈 입양부모, 관계의 어려움과 갈등

“여섯 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입양모가 심리적 문제가 많았는데, 나를 가둬놓고 감옥의 죄수처럼 다뤘어요. 지하의 화장실에 나를 가두곤 했어요. 나는 칠흙 같이 깜깜한 곳에 앉아서 이틀 정도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면서 기다려야 했고 이후엔 나를 내 방에 가둬요. 빈 통을 화장실로 쓰게 만들었고요. 여섯 살부터 한, 글썸, 아홉 살, 열 살 정도까지, 그랬다가 안 그랬다가. 내가 9세쯤 되었을 때 자살 성향이 있었던 것이 생각나요. 팔 들고 벌서게 만들다가 내가 팔을 내리면 얼굴을 있는 힘껏 주먹으로 쳤어요. 뽀족한 것으로 때리기도 하고, 머리도. 머리카락으로 가려지니까. 이런 건 일부고. 심리적인 게 많았어요. 이상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서 내 형제자매들한테 이야기하게 만든다든가. 가장 (듣기) 싫었던 것은, ‘너는 정말 행운아다, 우리가 너를 받아줘서. 네 부모는 마약중독자였다, 여기 있다는 것이 행운이다(라는 아무 근거없는 이야기)’”



## ‘어려움·고통’

‘법적 지위 없음·집 없음·방황’, ‘인종차별과 편견’, ‘심리적 문제,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고통’, ‘뿌리찾기에서 겪는 어려움’, ‘평생 계속되는 영향’, ‘정체성 찾기의 어려움’ 등의 하위주제

### 법적 지위 없음·집 없음·방황

“대학 갈 때 내가 시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주민번호도 못 받았고요. 내 입양부모가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내가 자동으로 시민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지 몰라요. 수년간 머리 아파가면서, 시민권 받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특정 수령국)이든 한국 정부든 양부모가 이해하도록 해야 했던 것 중 하나잖아요.”

### 인종차별과 편견

“내가 동양인이라고 많이 놀렸어요. ‘눈이 그렇게 작는데 어떻게 볼 수 있어?’처럼 바보 같은 질문들. 욕도 많이 듣고, 고등학교에서 데이트해본 일이 없어요, 동양 여자애랑 데이트하려는 아이가 없으니까요. 내 입양부모는 다른 문화에 관해 알지도 못하고 다른 문화를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심리적 문제,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고통

“내 목숨을 끊으려고 두 번 시도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약 두 통을 먹었어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위를 펌프로 세척해내고...”

“입양모에게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은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자신을 침묵 속에 가둬요. 그러다가 분노로 폭발하죠. 몸을 어디엔가 가두고 스트레스를 많이 느껴요. 긴장하고요. 감정과 같이 사는 법을 안 배운 것처럼. 압박받술 같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년쯤 전에 자살을 가끔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해외입양인 자녀)

뿌리찾기에서 겪는 어려움

“내가 얼마나 정보를 찾느라 허탕을 쳤는지 모를 거예요. 우리 기본적인 권리를 부인당한 거로 생각해요. 나는 혈통이랑 자신의 과거 삶과 연결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이 우리가 우리 역사를 찾으려고 하는 걸 이해 못 한다는 것은 깊은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 평생 계속되는 영향

“끔찍해요. 상처를 지니고 사는데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소리내어 울음). 다른 입양부모를 만났다면 어땠을까, 다른 지원을 받았다면, 다르게 키워졌다면, 친절한 부모를 만났다면 어땠을까, 친절한 엄마를 만났다면...“~~였다면”이라는 질문이 많아요. 한국 정부에서 동양 아이를 백인 가정에 보내면 서 어디에 애들을 보낸다고 생각한 건지 모르겠고, 백인 세상에서 그 아이가 영향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말인가요?”

“나에 관한 의학적 정보, 가족병력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중략) (아기의 임신을 계획할 때 산부인과 의사)에게 내 입양서류에 내가 30주에 태어났고 친생모에게 (특정 약)을 투입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게 생각나서 이야기했어요. 의사는 친생모에게 그 약을 투여한 이유를 추정하고, 매우 걱정스러워하면서 내가 고위험군인지...(중략)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죠. 내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정보를 모르는 거냐. 사적 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입양서류에는 내가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다고만 되어있는데, 기록이 더 있어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거고.”

### 정체성 찾기의 어려움

“우린 다 어딘가에서부터 오잖아요. 정말 버려진 사람은 영원히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스토리예요. 그게 진정한 자신의 출발점이에요. 불행히도 그 지점 이전의 것은 알 수 없지만, 거기부터는 다 내 것이예요. 문제는 우리 중 어떤 사람은 거기가 출발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버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 가족력, 파일 어딘가에 형제자매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사람들은 다 어딘가에서부터 오고 어딘가에 속해 있어요. 하지만, 이 정보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극복하기 힘들어요. 다 털고 내 인생을 세워나가 보려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그 질문이 남아있고 그 서류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도움 없이는 영원히 답할 수 없어요.”

### ‘입양 후 서비스 관련 문제’

입양가정에서 벌어진 학대와 방임을 관련 기관이 감지하지 못한 채 방치했고 아동이 학대를 보고했어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으며, 이는 입양인의 입장에서 버려짐의 연속

“나는 기억하는데, 이 부분이 내가 (사회복지사)를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 여자가 비행기타고 와서 나를 봤어요, (입양모의 신체학대로 인해) 이 멍들고 굵히고 상처난 (몸통)을. 그런데도 나를 거기 계속 살라고 납득시키려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지금 장난하냐고, 당신 뭐가 문제냐고.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나를 여기서 꺼내주지 않으면 내가 폭발하든지, 수마일 떨어진 고속도로, 길위에서 동사한 나를 발견하든지 할 거다. 이렇게 계속 있을 수는 없다고 했더니 그 여자는 차분하게 떠났어요. 뭐가 결정된 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알 수 없었죠.”

거시적 주제

## 체계의 문제

‘체계 자체가 문제’

‘어른이익 최우선을 위한 체계’

‘기관은 아동구원자, 아동은 구원이 필요한 무력아로 그려짐’

‘해외입양인의 상품화’

‘제국주의의 작동’



<https://pixabay.com/photos/gear-gear-wheels-steampunk-rusty-1127518/>

“우리 대부분이 보육원이나 시설 같은 사회복지 기관에 일반호적을 가지고 입소하고 그다음에 입양돼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무 가족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고아호적을 갖게 되고요. 그게 우리가 원가족과의 연결을 상실하게 하는 정부의 프로세스예요. 이 지점이 국가로서, 통치 주체로서 한국 정부가 이 메커니즘을 제도화한 지점이고, 그 제도 안에서 내가 알기로 고아호적은 거의 모든 입양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신분이 세탁되는 구조적인 메커니즘이 있었던 거죠. 양육시설에 들어올 때는 가족이 있었는데, 떠날 때는 없고 갑자기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바로잡고 싶으면 정부의 역할을 살펴봐야 해요. A의 사례 하나만이 아니고 B만의 사례가 아니고 누구든 특정 1인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전체 체계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네, 우리 권리가 거부당한 그 메커니즘이요.”

“시장에 물건 내다 팔듯이 입양시장에 아이를 내놓고 다 잘되기를 바라는...내 눈에는 입양이 이런 걸로 보여요.”

“공항에서 돌봐주던 사람에게서 버려지고, 비행기 타고 사회복지사한테 버려지고, 버려지고, 버려지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무슨 경험을 하는지는 신경도 쓰지 않아요. 아이를 살만한 돈이 있는 백인에게 판매하는 비즈니스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가족해체에 의존하는, 가족과 문화 분리에 의존하는 영리사업을 마치 아이들을 돌보는 것인양...20세기 노예 매매예요. 아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는 묻지 않았어요. 아이를 사려는 수요를 먼저 고려한 거고 이게 아이에게 좋을지를 생각 안 했어요. 그들의 생각은,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할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이었어요. 우리 집에 입양기관에서 오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걸 걸어두고 ‘너희가 여기서 왔어’라고 상기시켰어요. 학용품, 연필 사는 것도 잡지 보고 주문하는데, ‘너희들은 잡지에 나오는 상품이야.’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상품화된 정체성을 내려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다른 집단에 기꺼이 팔려는 나라에서 버려진 부산물이 된 것 같은 느낌에 저항해서 싸워야 했어요.”

“내야 하는 비용이, 아이들을 살 때 입양부모가, 오랜 기간에 걸쳐 정말 많이 지불해요. 이런 게 사업으로 보여요. 이게 비즈니스, 매매이지 인도적인 게 아니에요. 인도적 서비스의 반대예요.”

“해외입양인은 대부분 백인 가정에 입양됐는데, 인종이 다른 가정에 입양되면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나는 다양한 형태의 학대를 당하고 안전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입양인을 많이 만났는데, 학대를 떠나서요, 나는 이게 체계적인 문제가 아닌가 해요. 모르긴 해도, 내가 자란 환경을 생각하면 내가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식민지의 피정복자(colonized subjects) 같은 느낌이거든요. 우리가요. 음. 미국과 한국, 주로 다른 서구 국가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보면, 그리고 아이들을 대단위로 주로 미국과 서구 국가로 떼어낸 걸 보면, 나는 식민지의 피정복자라는 느낌이 강해요. 식민지 피지배 아동으로 미국 백인의 교육기관, 미국대학이든 뭐든 교육받고 백인 가족, 지역사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받아들이면서 자라고, 그 과정에서 어렵고...내 얘기를 하면 ‘동화하라’는 압력이요, 그 압력의 여파랑 동화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동양인인데 백인 가족 안에서 내 몸과 얼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파트너로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지, 그런 모든 것에서 식민지 피지배자로 자란다는 상황의 여파가 있어요. 직접적인 학대는 아닐지 몰라도 전체 체계가 학대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 몸과 마음을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뒤틀어야 했고 그것도 학대의 일종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내 부모가 직접 학대하지는 않았어도 입양이라는 체계가 그 학대를 행사한 거죠.”

“식민정신이 아니면 애들을 보낼 수 없어요. 미국으로 많이 보내졌잖아요. 제국의 심장으로 보내는 거죠.”

## 국가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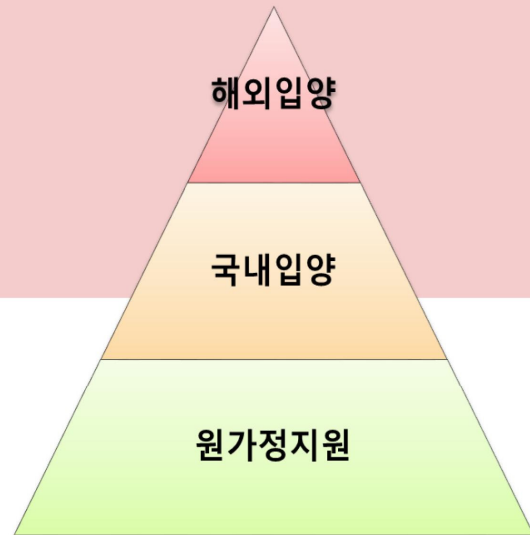
‘국가의 역할방기’

‘손쉬운 선택이었던 해외입양’

‘원가정을 지원해야 함’

‘국내입양 우선원칙을 준수해야 함’

‘인식개선을 주도해야 함’



## 해외입양인의 요구

- 해외입양인에 대한 지원
- 손상치유
- 입양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독
- 입양 관련 서류관리 강화
- 친생부모에게 입양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고 동의받을 것
- 입양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허락할 것
- 입양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할 것
- 입양인이 수령국에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도록 지원할 것
- 입양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지 감독할 것
- 서류의 날조를 방지할 것
- 문서를 제대로 보관할 것
- DNA검사를 보편화할 것 등

*“It's a human right to be a Korean if you're born in Korea.”*

## 회복탄력성

- 각종 트라우마와 어려움속에서 보인 강인함과 회복탄력적인 기질
- 학대의 한복판에서 맞서고 탈출해서 자신을 구하는 모습
- 입양관련 분야에서 실천가로 활동하거나 연구자가 된 경우
- 어린 동생을 돌보는 부모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입양인
- 입양은 자기 잘못이 아닌 외부요인으로 인한 트라우마이지만,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기를 거부하면서 스스로 서기 위해 애쓰는 모습

“(한국의 A도시)에서 태어난 것 같고, 그리고 나서 B도시로 옮겨지고 다시 C도시로 옮겨진 다음 같은 해에 (입양수령국)으로 입양되어 왔는데, 갓난 아이에게 매우 가혹하다고 생각해요..... 입양되어 이 나라에 도착했을 때 매우 아팠고 피부에도 뭐가 막 나 있었고 영양상태도 좋지 않았어요. 많이 못 먹어서 그랬는지 치아도 정말 좋지 않았고..... 나는 복잡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그렇지만 나는 희생자(victim)로 보이기를 원하지 않고 다시 두 발로 설 수 있으려면 그건 내 몫이라고요. 어려워요. 정말, 정말, 정말 어려워요.”



발표 (Speeches)



# Results from Qualitative Data Analy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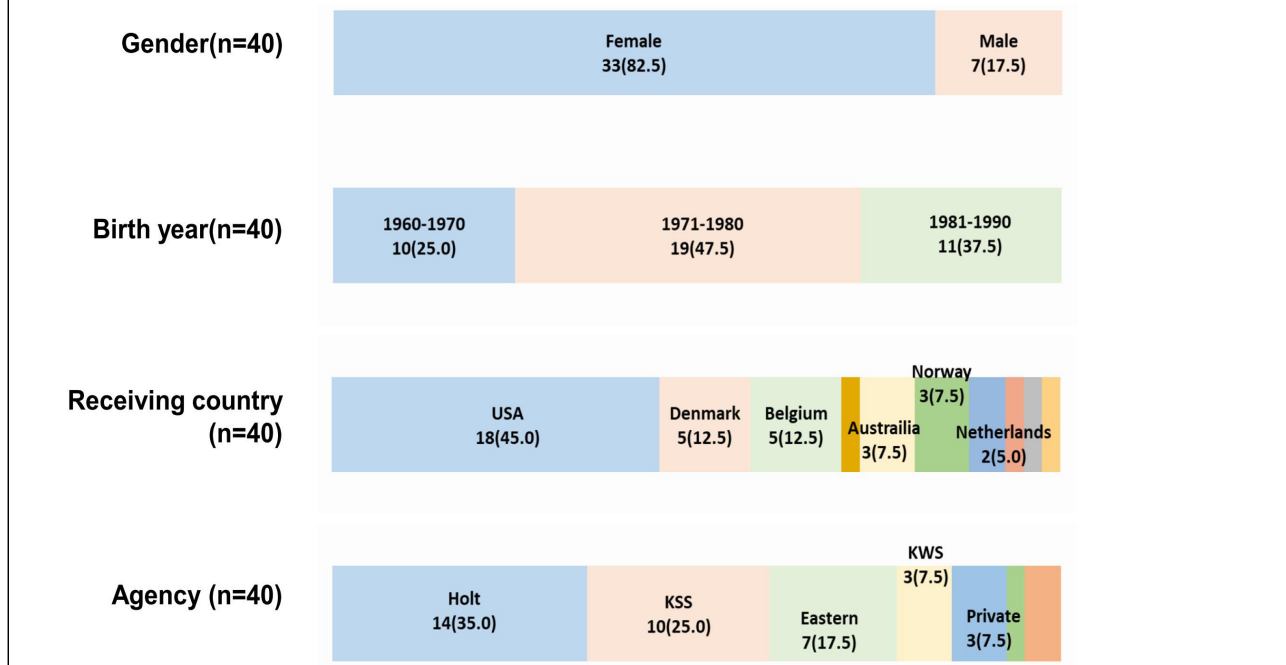


## Results from Qualitative Data Analy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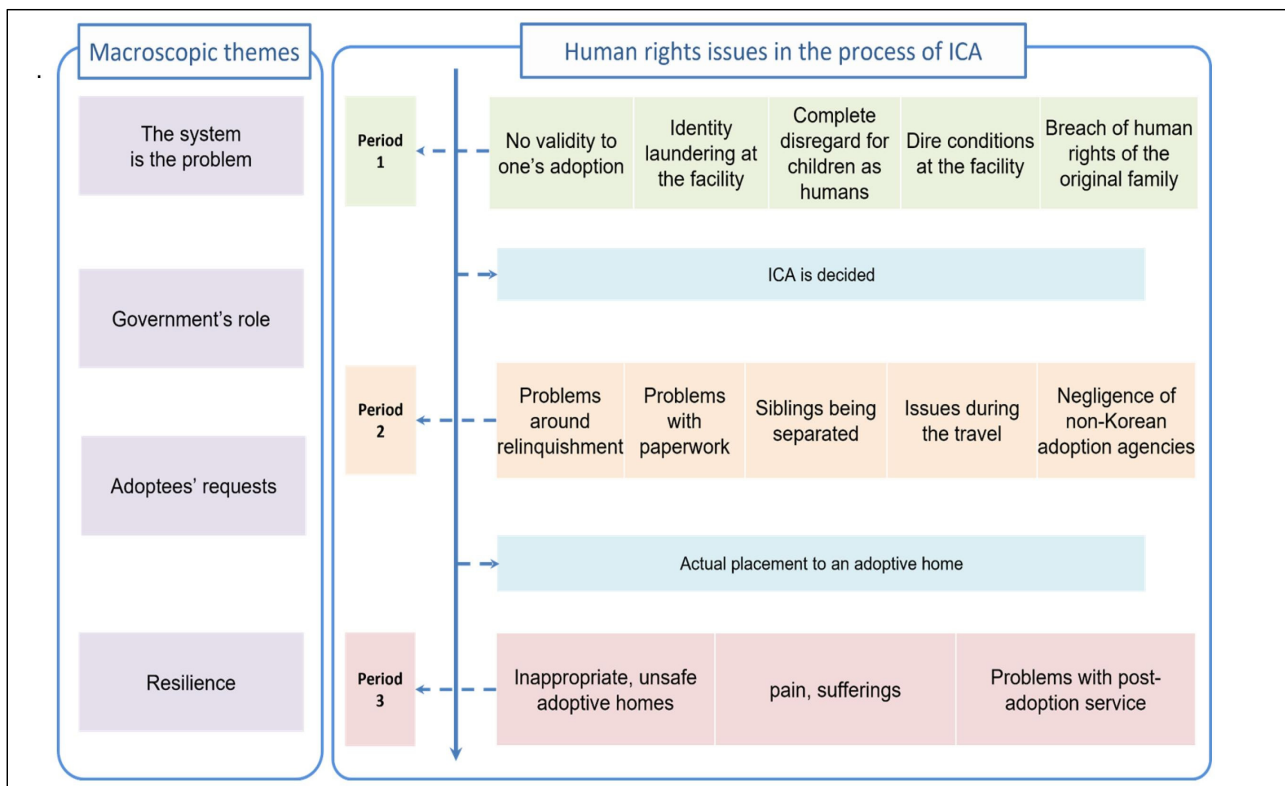
### Overview of the Qualitative Research

Participants	39 intercountry adoptees, 1 adult child of an intercountry adoptee
Tools	Self-developed questions
Methods	Individual or focus group interview (in-person or virtual)
Interview period	June 27th, 2022 ~ October 16th, 2022
Contents	Types of human rights issues, attitude towards intercountry adoption
Recruitment	Via various adoptee groups
Participation eligibility	intercountry adoptee or a child of an adoptee who are 18 or older

## The participants



## Types of Human Rights Issues in the Process of ICA Involving South Korean Children



## Human Rights Issues in the Process of ICA

### Period 1



**'No validity to one's adoption'**

My ICA has no validity because I was not an orphan. It is uncertain that I was abandoned.

*My mother was the only one there at the time, my father wasn't able to be there and she had a lot of blood loss and so she was in and out of consciousness. (...) My family was told that I was dead at birth and my body was disposed of and so a fake story was created. (...) When NCRC looked into my file, they immediately found their address, reached out and my father responded but was bewildered because he was like, we had a child at this time and he died. (...) so for the past 33 years, my family thought that their first son had been born, you know, had died at birth.*

**'Identity laundering at the facility'**

Identity laundering severs connection to the original family.

*You were given a new name and a birth date when you first went to A facility. (...) And every time I see a four year old, a five year old, a six year old, I think back to myself at that age and how it would have been really obvious at that age to know who I am and where I live. But when the adults tell you this is what happened when you're at four years old and you get a new name and you get a new birthday and everything that adults tell you, you can't help but eventually believe that this is what happened. You have no perception of reality at that age. So the authorities...the authoritative figures in my life tell me this is how it goes. How else would you know? (...) But it's clear that A facility' directors wanted to change it all completely, rid me of my real identity and start another life.*

### 'Breach of human rights of the original family'

Human rights of the original family were violated as well.

*And my father actually went back on the day that I was born when he found out my mother had given me up for adoption. He went to go get me back and they said it was too late. I was already on my way somewhere for adoption, which wasn't the case because from my paperwork at least, it looks like I was in A city for six days before being sent on to B city where I remained for about four and a half months with the foster family and then four and a half months, I was then sent to C country to complete my adoption.*

## Period 2





### **'Problems around relinquishment'**

The ramifications of adoption was not fully explained to original parents or minimized. Adoption happened without parental consent or with non-parent's consent (e.g., grand parents, extended family members, guardian).

*An agency has a speech saying that, 'oh, you can give your kids away like sending a student to study in a foreign country' for birth family (...) but then the birth family doesn't know that it loses its birth, the family rights. So often they say, 'oh, but when he turns 18, he will come back and you can be happy again. He will have a lot of money because he will come back from the States. It will, you know, it will help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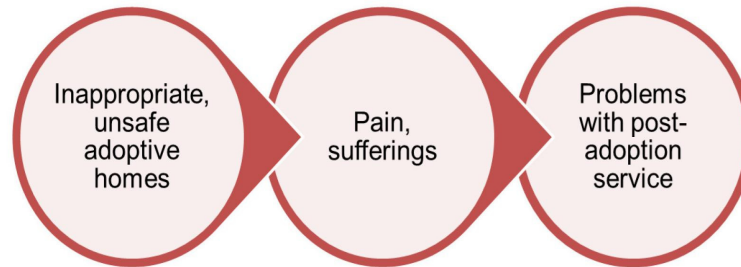
### **'Problems with paperwork'**

Information in adoption paper is inaccurate, forged, inaccessible.

*Then two years of age, we have self-reported our names and our names are A and B because we're twins. (...) The (facility) said, but we don't have any girls with those names that came into our facility, but we do have two girls, not twins, one year apart that came into our facility on that exact date. (...) My (adoptive) parents said, oh yeah, we actually requested twins and my adoptive dad said even at the time I thought it was...I was surprised that they turned around and came back with twins so quickly. (...) But the DNA did come back that my sister and I were sisters. However, we're not identical twins. At this point, all the information on my record, was obviously inaccurate and there was no more breadcrumbs for me to follow.*

*The fact that they didn't report that I was younger, that I was three years younger. I think it's a big violation of my rights. Because in A adoption agency, you have many doctors, you know Dr. B, she is...so she didn't do anything and didn't record because it was easier for them because...my adoptive parents were asking for older (child). They didn't have other older kids so they took that.*

## Period 3



### ‘Inappropriate, unsafe adoptive homes’

Money issues, abuse and neglect, adoptive parents with mental health issues, relationship problems and conflicts in adoptive homes

*I was like probably six years old when I kind of remember it. (...) My adoptive mother had psychological issues and so she has, she was just kind of crazy, you know, she would lock me up and kind of just treat me like I was a prisoner, you know. She'd lock me into like the basement bathroom of the house and I'd have to sit in there pitch black for a couple of days at a time. So I didn't know if it was light or dark, you know, and then or she would lock me in my bedroom and make me use a bucket as a toilet. And this is kind of on and off from like, I don't know, like age six to nine or ten because when and you know, there was just torture. (...) And then but when I reached about nine years old, I remember thinking, well I remember being suicidal like at nine. (...) She would do things like make me hold weights out. And then if I'd draw my arms, she'd just punch me in my face a lot, you know, yeah with fists, just hit me as hard as she could. She would like take stuff, take like somethings sharp and just beat my head with it. (...) I think she did that on my head, so it's that my hair would hide like any sort of markings and stuff. But that was kind of one of her things that she would kind of do. And there was just a lot of psychological stuff. She would make me like, she'd make up these like crazy stories and then make me tell, call my siblings and tell them that I did all this insane stuff, you know. So there was like a psychological thing that was just really. Probably the worst part was just, you know, psychologically, you know, you know, she'd tell me stuff, like you know, your parents were like drug addicts and you're so lucky to be here, you know, we took you from a a really bad situation and so you're so lucky that we brought you here.*

### **'pain-sufferings'**

Sub-themes include 'No legal status·homelessness·wandering', 'racial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psychological, mental health consequences', 'difficulties in searching', 'lifelong impact', and 'struggles in search for identity.'

#### No legal status·homelessness·wandering

*I found out once I started going to college, I found out that I wasn't a US citizen, so I wasn't able to get a social security number. So you know, that's one of the things that my parents really didn't know anything about. They assumed that, you know, I became a citizen automatically. So that created a lot of headache for me and everybody. You know, it took me a long time to become a U.S citizen finally, just a few years ago through years of headache. But I guess that's one of the things that I guess the Korean government or the U.S. government whichever side needs to make sure that the parents understand the situation.*

#### Racial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So of course, because I'm Asian you know I was made fun of. Many really stupid questions like 'your eyes are so small how can you see?' you know, the name calling. I never dated in high school because nobody wanted to date an Asian girl. It was. And my parents were, my adopted parents were not culturally knowledgeable or culturally acceptable.*

Psychological, mental health consequences

*I tried to take my own life twice. The first time I didn't know what to do and so I took like two bottles of buffer and I don't know if they make those anymore and had to have my stomach pumped...*

*So, it's, it's like ...a...part of her emotion cannot a ...cannot exists. So, she encloses herself in a lot of silence, Bursting out sometimes in a lot of anger. (...) And she frequently locks her body somewhere, and she is very stressed. She is very nervous...it seems like she did not learn to live with her emotion. So, she is like a..you know like a pressure cooker and she ...she is always on the verge of exploding and that she told me like...it's been a few years that she sometimes thinking of the ...of a .....suicide.” (An adult child of an adoptee)*

Difficulties in searching

*You know at this point, it stretched me out so much to find little clues. I mean, I had to, you would not believe the amount of research I've done... (...) I think we're denied our fundamental rights. I think it's deeply ironic that Korea which cares so much about lineage and connection to your past life doesn't seem to understand why we would possibly want to know about our history.*

Lifelong impact

*Terrible. (...) Like I carry scars and wounds. They would never go away...(crying) I think about how different my life would be if I had a different kind of family or different kind of support, a different kind of upraise, upraising. What if I had a kind parent? What if I had a kind mother? What if I had this, lot of, there's a lot of 'what if's that could have been changed. And it wasn't. And I don't know the Korean government, I don't know what they think that if they place an Asian child in a white family and then a white world that that child is not going to be affected?*

*I have very little medical information and no family medical history. (When I was planning to have a baby) my doctor was going through the list asking if I have any conditions. And then I remembered that there was a notation in my adoption file (about a specific drug used for my original mother). And my doctor was very concerned about why they would have noted that they used (the drug) on a woman who was only 30 weeks (pregnant) and why it would have been born so early and was it a risk for me having children. (...) You start thinking about that and just how we don't have any of that information. (...) There have to be more records. My records say I was born at a clinic in B and there have to be more medical records. There have to be but I can't ever access that.*

Struggles in search for identity

*We all come from somewhere but some of us can't know where we came from. (...) Some people may never know because they were truly abandoned. And but that is then your story. That is then the true beginning of who you are (...) you can go from there. And everything from that point forward is your own story. And unfortunately you can't know anything before that point because that is truly where it started. (...) But for some of us, we don't think it really started there. We think there's more back-story to our lives that we weren't truly abandoned. With no parent information, with no history, we may know they're may be written in the file that we have siblings that we don't know. We all come from somewhere. We all belong somewhere. But to purposefully have this information withheld, that's really very hard to overcome. You can try to build your life and move from there but you still have that question and you're never going to be able to answer it yourself without the help of people who have that records or who have that information.*

### **‘Problems with post-adoption services’**

Abuse and neglect in adoptive homes were unnoticed or ignored, which is another abandonment from the adoptee’s standpoint

*I remember, this is where I will never forgive (name of a social worker). She flies out and sees me, this completely... bruises and scratches and cuts and she's trying to convince me to stay there. And I said, 'are you f\*ing kidding me?' I said, 'what is wrong with you?' And so I said, 'no I can't do that. I can't do that.' I said, 'if you don't get me out and I'm either going to go off and you're going to find me frozen in the middle of a street miles away on the freeway or something'. I said, 'I can't go on like this' and she was calm and so she left. It wasn't conclusive. I had no idea what was going to happen.*

**Macroscopic Themes**

## The system is the problem

**'Problems in the system'**

**'For the best interest of adults'**

**'Adoption agencies portrayed as saviors while adoptees portrayed as helpless victims waiting to be rescued'**

**'Commodification of adoptees'**

**'Colonialism in play'**



<https://pixabay.com/photos/gear-gear-wheels-steampunk-rusty-1127518/>

*Because each of the adopted individual children in order to qualify for adoption, almost all of us, you know, would enter a social welfare like an orphanage or an institution perhaps with a family on a family registry. And then we would be adopted. And in that process, we would receive an orphan registry indicating that we had no family. And that's the governmental process through which we lost our connection to our original families. And I think that's the point at which the state, as the state, the Republic of Korea as a state and a governing body instituted this mechanism. I assume this is a standard paperwork that we used with almost every adopted person. So there was this structural mechanism by which children were essentially laundered. You come into the orphanage with family and then you leave the orphanage with no family and then you suddenly get this new family. So I think that's a mechanism that needs to have close scrutiny by the human rights commission. Because if there's to be any kind of repair done, you know, I think you have to look at like what was the role of the state in it. It's not just one case not just A's case or my case or B's case or anybody, a particular one person. It's the whole system. So how did that happen? So I think also that's the mechanism by which I think our rights were denied.*

*...or maybe people just want to think that all your problems will be solved once you go to (A country) shift off children. (...) sending your kid up for adoption is no different than just letting them go in the marketplace and hoping for the best.*

*I mean it's abandonment when you go from a caretaker...takes you to the airport, you get out to the plane, you're abandoned by this person, somebody takes care of you on the plane and then you're given to some social worker. You're abandoned and abandoned and abandoned, right? But again you're not looking at what the child is experiencing. What you're looking at is the business process of selling a kid to these white people who have enough money to buy it."*

*...pretending to care for children in a profit driven industry that relies on family separation (...) It's 20th century slave trade. So you know it just tells me that the very basic looking into what is a child and what does it need was not asked. The demand for purchase (was there but) there wasn't any thought that this would be better for the child. The thought was that there's a demand and they're willing to pay a premium for this. There were magazines in my household that we would still get from the adoption agency and you do pin it up and you'd be told, 'this is where you came from.' And I'd also get magazines of school supplies right along with that, 'pencils, eight dollars, Korean children, you know' and you're just in a magazine to be bought. And it's devaluing and just, you know, you're essentially inherently being given this, a commodified identity from the get-go. So I think I've always had to try to fight against the sense that I, you know, kind of a rejected, you know byproduct of this country that was willing to be bought by this other group.*

*...you have all of these different fees. (...) the fees to buy the children, you know, my parents...there are so many different checks that they had to write over time. I mean it, just really shows the business. I think it really makes clear that this was a business transaction and it wasn't a humanit(arian)..it's the opposite of a humanitarian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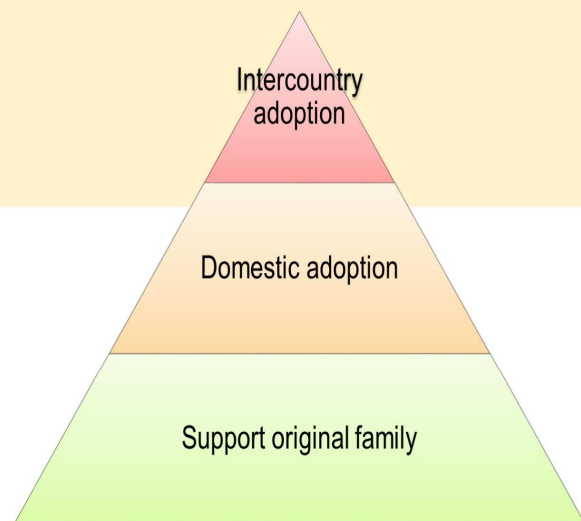
*I think the majority of us were adopted into white families. I think those create conditions that are difficult. I mean aside from people, I mean, many people that I know have experienced various forms of abuses from their adoptive families and lack of safety in their homes. So I guess I'm thinking more kind of systematic. I don't know what socially I feel like the conditions that we are under are basically, you know, we're sort of like colonized subjects. We are umm, if you look at the United States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and the past relationship and ongoing relationship and the mass removal of children to the United States and other western nations primarily. I do feel like that as sort of colonized subjects, as people, as children who were raised in white American families with white American values and worldview in primarily white educational institutions educated in an American colleges or universities (...) we come to adopt that world view and those values of our families in our communities and that's part of what we struggle with or what I struggle with. I'll speak for myself I think it has to do with the forces of assimilation and what the impact of that is and the struggle with the challenges. For example of carving out an identity as an Asian person in a white family and how you come to appreciate your own body and your own face and the kinds of people you're attracted to as partners and those kinds of things are all impacted by this condition of being in a transracial family as a colonized subject. So, it's not direct abuse but I think the whole system is abusive. So in that sense, I do feel that the contortions that I had to enact on my own body and on my own mind in order to survive in the US is a form of abuse I guess. And it wasn't enacted specifically by my parents but it was enacted by the system of adoption.*

*Yeah. Because nobody can send their child to...It's completely colonized mentality, right? Most of us went to the United States. This is the metropolis or whatever, sending your child to the heart of the empire.*



## Government's role

- 'Government's inaction'
- 'Adoption as an easy solution'
- 'Sufficient support for birth family'
- 'Domestic adoption first'
- 'Change public mindset'



## Adoptees' requests

- Help adoptees
- Repair damage
- Supervise agencies
- Tighter management of adoption-related documents
- Full and accurate explanations on adoption and its ramifications be given to the birth parents during the adoption consent stage
- Adoptees' right to full access to their information
- Ban on profit generation from adoption
- Support in obtaining legal status in the receiving country
- Supervise and monitor adoption process to ensure best interest of the child
- Prevent document forgery
- Proper document preservation
- Universalized DNA testing

*"It's a human right to be a Korean if you're born in Korea."*

## Resilience

- **Rebounding in the aftermath of trauma and difficulties with strength**
- **Saving oneself by confronting the abuser and escaping**
- **Becoming an activist or researcher in the field of adoption**
- **Being a surrogate parent for younger siblings**
- **Defying to be defined as a helpless victim, empowering self to stand tall**

*So, I was probably born in A city and then I was brought to B city to (a facility) and from B I went to (an adoption agency) in C city. (...) That same year I was adopted to (the receiving country). And I find it quite harsh (...) it's not healthy for a baby to travel so much, I think baby should be in one crib in one home with a set of parents, that's it (...) When I came to this country, I was really ill. There was, yeah uhm, I had things on my skin...Uhm, it... it was bad. Uhm, I did not have enough food. Up until this day, my teeth are really bad (...) I'm pretty sure that I have complex trauma. And all that I went through, I always tell people what I went through is the fault of other people. Although I don't want to be considered a victim, but it's my responsibility to get on my feet again. And that's hard. It's really, really, really hard."*

발표 (Speeches)



**질적조사결과 : 친생부모 파트**



## 질적자료분석결과 -친생부모-

### 질적조사 개요

조사대상	해외입양 친생부 3명, 해외입양 친생모 2명
조사도구	자체 개발한 질문
조사방법	개인 또는 집단면접 (대면 또는 ZOOM을 활용한 화상 면접)
조사기간	2022년 7월 21일 ~ 2022년 9월 16일
조사내용	해외입양 친생부모 경험, 입양절차와 재회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양상해외입양에 대한 전반적 의견
참여자 모집	해외입양 친생부모 단체, 친생가족 재회 해외입양인에게 요청해 모집
참여자격	만 18세 이상 해외입양인을 둔 친생부모

해외입양 친생부모			해외입양 자녀			
친생 부모 번호	성 별	출생 년도 (연령대)	해외입양 연도 (출생연도)	성별 (당시 나이)	수령국	해외입양 자녀 자녀찾기와 재회 여부
1	여	1961 (60대)	1986(1982) 1987(1983)	딸(5세) 아들(5세)	미국 프랑스	찾음/재회 못 찾음/재회 못함
2	여	1960 (60대)	1987(1979) 1987(1982)	아들(9세) 아들(6세)	프랑스 프랑스	찾음/재회 찾음/재회
3	남	1979 (40대)	2001(2001)	딸(출생 직후)	캐나다	찾음/재회 못함
4	남	1943 (70대)	1984(1972) 1984(1974)	딸(13세) 아들(11세)	프랑스 프랑스	찾음/재회 찾음/재회 못함
5	남	1940 (80대)	1973(1973)	딸 쌍둥이 (출생 직후)	미국	찾음/재회

### 해외입양 이전 양육 위기와 해외입양을 고려하기까지

#### ‘친생모의 양육 위기’

일시적 또는 장기적 양육 위기를 겪은 친생모들

경제적 상황 악화, 주거 불안정, 돌봄과 일 병행의 어려움, 배우자와의 신뢰 손상, 원가족의 지원 부재 등으로 혼자 힘으로 자녀 양육이 사실상 불가능해짐.

“생활이 나아지지도 않았고 아이 아빠라는 사람 자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 앞날을 내다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정적으로 가장 역할을 못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중략) 물론 뭐 무슨 짓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살면 아이를 안 보내고 데리고 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때 상황으로서는 모든 게 그냥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친생부의 양육 위기’**

배우자 관계 변화나 경제적 사정으로 양육 위기

동거하는 여성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아이 양육이 어려워짐. 배우자와의 이혼 이후 자녀를 직접 돌보려 했지만 어려워 아내에게 보냄. 분만수술 비용이 없어 퇴원을 하지 못함.

“산모고 뭐고 다 죽게 생겼다.” 이겁니다. 왜 그랬나? 자궁 안에 태물이 다 마른 지가 너무 오래됐다고. 병원 측에서 나보고 하는 말이. “아기하고 산모까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수술을 해가지고 어느 쪽이라도 한쪽이라도 살려야 안 되나?” 하는 겁니다. 다 살릴 수 있으면 다 살리고 그래서 하여튼 살릴 수 있는 데까지 살려달라고 했지요. (중략) 병원 측에서 보니까, 키울 사내애 세 놈이 있지, 살기 어렵지, 병원비도 못 내고 있지. 이래가지고 (병원에 산모와 아이가) 갇혀 있게 된 겁니다.”

**‘해외입양을 고려하게 된 과정’**

자녀양육 위기 속에 주변 사람이나 병원의 권유로 해외입양을 알게 됨

위기 상황에서 아이를 보호해줄 대안이고, 일시적으로 헤어지지만, 좋은 교육 받고 잘 자라서 돌아온다고 말하며 해외입양을 권유함.

“아이를 외국으로 입양을 보내면 거기서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아이들이 잘 클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면 찾아오고 엄마를 만나러 올 수 있다. 내가 연락해 만날 수 있냐 했더니 저는 연락을 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쪽에서 연락을 하면 저는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해외입양을 고려하게 된 과정’

해외입양을 조건으로 의료비나 출산비 지원을 권유

“인터넷으로 이렇게 알아보다가 병원비를 지원해준다. 그리고 입양이라고 얘기는 했어요. 얘기는 했는데 막상 가서 설명을 전혀 듣지는 못했어요. 저는 거의 못 들었어요. (중략) 저는 그때 당시에 해외입양이라는 걸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사이트가 있는지도 몰랐었구요. 제가 알기로 제가 기억하는 건 그 친구(친생모)가 다 검색을 해서 제한을 했고 병원비도 지원해준다니까.”

“내가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연락했길래 차가 와서 애를 데려갔느냐?’하고. 그걸 바로 못 물어보는 것은 병원비가 밀려 있기 때문이지요. 병원비를 한 푼도 못 줬어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500만 원인가 뭐 그 정도인데. 결국, 돈 한 푼도 자기들도 받을 생각지도 안 하고. 도저히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싶었던지. 그대로 “퇴원해라” 하더라고. 그래 돈도 못 주고 퇴원을 한 거예요.”

## 해외입양 설명과 동의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양상

### ‘해외입양 설명’

해외입양 설명이 없어 국내 입양이나 아동보육시설에서 생활로 이해

*자녀를 인수하려 온 입양기관 실무자가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 소속인지, 자녀는 이후에 어디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아이 데려감. 아이가 국내입양이나 보육시설에서 자란다 생각함.*

“병원 측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차가 여기 온다. 그래가지고 실어주면 된다.” 이래가지고 나는 각본이 제대로 짜인 줄 알았어요 (중략) “병원에서 다 해놓고 애들 데리고 가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는 했어요. 해외입양이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입양이라는 글자는 그때서야 입양이라는 소리만 있었지. 이게 “그냥 부근의 고아원에 안 갔겠나?” 나는 고아원만 생각하고 있었을 따름이지요.”



**‘해외입양 설명’**

해외입양 설명이 없어 국내 입양이나 아동보육시설에서 생활로 이해

“해외입양을 간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입양이라면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TV에서 흔히 말하는 부잣집에 들어가서 “부모인 내가 능력이 없으니 너라도 잘 살아라.”하고 보내는 그런 건 줄 알았지요. 만약에 해외입양이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그걸 알았다? 그럼 전 반대했을 걸요. 왜 반대했냐? “왜 내 자식을 해외로 보내요?” 전 그거예요. 저는 지금도 변함없지만, 그때 제가 무지해서 당한 거예요. 무지해서 당한 거지.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해외입양이다.” 그러면 저는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데리고 왔죠. 무조건.”

**‘해외입양 동의’**

제3자인 보육시설장이 친생부모와 입양자녀를 속이고 불법 입양동의

“아이들 엄마가 모르는 상태에서 애들한테는 “부모님이 친권 포기했다.” 이렇게 하고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시설에서도 보낼 생각이 없었다가 이제 프랑스에 ‘나이 많은 아이를 원한다’라는 가정이 생기고 나서 갑자기 결정된 것으로. 그러고 나서 한 삼 개월 정도 후에 애들 엄마가 연락했는데 “내 애들이 어떻게 입양이 된 거냐?” 했더니 “애들이 원해서 보냈다.” 또 애들 엄마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대네요.”

## ‘해외입양 입양기록 작성 과정’

해외입양에 대한 설명이 없이 이루어진 입양동의와 부실한 입양기록

“저도 아마 아이를 입양 보내겠다고 데리고 들어가서 창피했는지 어쨌는지, 무슨 설명을 들었던 그런 기억은 전혀 없어요. 그냥 뭔가 서류를 주긴 줬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서 10분도 안 돼서 뭔지는 모르고, 그냥 서류를 “여기다 그냥 서명하고 가시라.”고 해서 가서 10분도 안 된 사이에 그냥 서명하고, 아이 두고 나온 게 그게 끝이에요.”

“제가 입양동의서를 봤는데 제가 첫마디가 그랬을 거예요. “어, 이거 내 글씨체 아닌데?” 제 글씨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또 한 번 놀라서 그때 OO 가서 엄청 싸웠어요. 이게 내 글씨 아니다. 그런데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정확했어요. (중략) 한 중학생 정도 수준의 글씨였어요.”

## 해외입양 자녀와 헤어진 이후의 고통

### ‘해외입양 자녀와 헤어짐’

헤어짐의 슬픔과 고통, 우울에서 오는 중독과 자살 시도

*자녀와 헤어진 이후 심리적 충격으로 공허함, 알코올 중독, 자살 충동, 자살 시도 등을 겪음.  
심리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친생부모는 자신이 자녀를 입양 보냈다는 사실을 주위에 알리지 못한 채 혼자 슬픔과 고통을 감당함.*

“갑자기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부산 있는데. 김포에서 11시 비행기로 프랑스로 간다고 하니까. 11시니까 10시경에 연락 받아가지고 거기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그냥 그길로 이제 술이 폭주가 되는 거예요 그냥. (중략) 내가 해외입양 가는 걸 알았으면 죽어도 못 보내지요. 같이 빌어먹었더라도. (중략) 내가 그냥 술로 한 3년 그냥 살았다니까요. (중략) 말도 못 하죠. 그냥 술로 살았어요 그냥. 날 새면 술을 또 막 먹는 거예요. 그냥 괴로우니까. 어따 그냥 하소연할 때도 없고. (중략) 그냥 술로 살았죠.”

### ‘해외입양 자녀와 헤어진 이후의 고통’

자녀가 없는 삶의 공허함, 외로움 그리고 자살 시도

“저는 애들 보내놓고 너무 힘들었어요. 정신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그리고 제가 가슴이 뚫렸다는 거? 가슴에 바람이 지나간다는 걸 느꼈어요. (가슴에 주먹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이만큼 떨어져 가지고, 여기 바람이 가슴을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가슴이 추운 거예요. 그렇게 많이 외로웠던 거죠. 그러니까 낮이 나갔어요. (중략) 그때 그러고 나서 그냥 “나도 이제 인생은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러자.” 그래서 수면제를 먹었지만 죽지는 않더라고요. 2, 3일을 자고 나서 깬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일을 잤대요. 그러니까 옆집 새댁이 집주인하고 막 난리였고, 깨고 나서 미안하다고. 살아있는 게 미안한 건지, 뭘지 모르지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랬죠.”

### 해외입양 자녀찾기와의 재회, 그 이후의 관계 (다시)맺기

### ‘해외입양 자녀와 재회 이후의 관계’

재회는 끝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와 트라우마를 알아가는 ‘새로운 시작’

재회는 서로 아픔과 어려움을 말하고,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임. 서로를 이해하고 차이를 인정해가는 과정임. 실제로 친생부모는 재회 이후 트라우마를 재경험하지만 이를 나눌 사람이나 상담사가 없음.

“나는 재회를 했을 때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됐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했어요. 만나고 나니까 언어가 안 통해요. 아이의 질문에 답을 했는데 지금도 같은 질문을 해요. 나는 답을 했는데 아이들도 이해는 되지만 머리로는 되지만 가슴으로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이들은 머리로는 이해해요. 그래도 가슴으로는 이해를 못 해요.”

## ‘해외입양 자녀와 재회 이후의 관계’

### 친생부모의 입양 후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 치료가 필요함

“입양보낸 엄마들도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요. 마음의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어요. 치유를 못 하고 살아요. 지금까지. 치유를 어떻게 해요?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어요? 아이들도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치료할 수 없어요.”

"친생부모들도 상담을 받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친생부모에게도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입양보내고 아픔을 간직하고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잖아요. 그 고통을 아무도 이해를 못 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내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과 싸움이 시작돼요. 그리고, 미안하고, 후회하고. 이런 복합적 감정을 자기가 다스려야 해요. 이것은 누구도 대신 다스려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거기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자식을 버렸는데.."하고 술 먹고 그냥 되는 대로 살기도 쉬워요. 제가 이렇게 몇몇 친생부모를 보았을 때, 우리 친생부모도 그런 상담을 받아야 하겠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입양은 입양인들에게만큼 우리 친생부모에게도 굉장히 트라우마예요. 자식을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를 갖고 사는 거죠."

## 해외입양 친생부모 시각에서의 해외입양 개선 과제

### ‘해외입양 친생부모 시각에서의 해외입양’

####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결코 입양보내지 않을 것

만약 다시 입양을 보낸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질문했다. 그 질문에 모두 입양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음.

이제는 한국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통해 아이들이 원가족과 헤어지지 않고 한국에서 자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해외로 입양 보내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였음.

친생부모는 해외입양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안다. 또 해외입양을 간 자녀의 삶이 한국에서 살았을 삶보다 더 못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님.

다만 친생부모로서 겪은 고통은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고, 입양자녀가 훌륭히 자라줘서 고맙지만 성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겨 냈을지 알기 때문임.

### ‘해외입양 친생부모 시각에서의 개선 과제’

#### 투명하게 분명하게 해외입양을 설명하기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한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중략) 입양기관 스스로가 정말로 투명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준다면 과연 입양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100이면 한 90은 돌아오지 않을까요? 다시 그냥 내 자식을 내가 키운다고 돌아올 것 같아요. 제대로 설명도 없이 입양상담을 하면 100이면 100 다 보내겠지만, 자세한 설명이 있다면, 적어도 반 이상은 다시 내 자식을 키우는 쪽으로 돌리지 않을까요? (중략) 잘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딱값 밖에 안 되는 그 돈을 건네면서 애를 사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저에게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길렀겠지.”

### ‘해외입양 친생부모 시각에서의 개선 과제’

#### 친생부모는 죄인이 아니라 인권과 존엄을 가진 사람임

“최소한 아이들이 잘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는 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중략) 제가 (입양기관)OO에 방문했을 때 느끼는 거는 “정말 창피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OO직원들이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창피해서,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거기 들어가서, “저 친생가족인데요. 혹시 아이한테서 온 소식은 있나요?” 이거 물어보러 들어가기가 정말 쥐구멍에 들어가는 거보다 더 정말 싫어요. 그렇게 사람을 취급을 해요.”

“우리를 손님으로 우대를 해달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말고, 최소한 인간 대접은 해줘야죠. (중략) 저희는 이미 끝난 세대이지만, 지금이라도 어쩔 수 없이 해외 입양을 보내는 그 친생 가족들이 더 이상 손가락질 받지 않고,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게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 ‘해외입양 친생부모 시각에서의 개선 과제’

### 미혼모가 떳떳하게 아이를 기를 수 있게 지원하기

“예전에는 미혼모는 말도 못 하고 살았어요. 미혼모는 손가락질 당하고 살았어요. 지금은 “미혼모가 어떻게 혼자서 저렇게 힘들게 자식을 키우나.”라고 걱정하고, 미혼모를 대단한 경이로운 사람으로 여겨요. 그런데 저희 때는 아니었어요. 그 옛날에 나는 그 아이들을 키우려고, 미혼모라도 나는 키우려고 열심히 노력할 때, 그때는 미혼모는 손가락질을 받았어야 했어요. 나는 그 아이를 키우려고 노력했다가 실패를 했지만, 요즘 미혼모들은 떳떳하게 지원을 다 받아 가면서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 ‘해외입양 친생부모 시각에서의 개선 과제’

### 가족찾기 절차 개선과 DNA를 통한 가족찾기 확대

“우리 애들은 애들 나름대로 부모를 찾겠다고 (입양기관)OO에 갔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고 우리 부모가 한국에 있을 것 같은데 좀 찾아달라고 한 거죠. (중략) 나도 OO에 아이들 찾는다고 접수를 했고, 우리 애들도 OO에 가서 부모를 찾는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서로가 맞아야 되는데 접수가 빗나간 겁니다. 연결을 안 시켜준 거야. 그러다 보니 못 만났습니다. (중략)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딸들도 OO로 갔는데, 아버지인 나도 OO에 가서 딸 찾는다고 했는데, 그 “왜 연결을 못 시키나요?” 안 그래요?”

“유전자 채취하고 이걸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간 겁니다. (중략) 미국에 입양아들을 하고 유전자를 가지고 찾은 겁니다. 그래서 30일도 안 돼서 찾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유전자가 딱 맞대요.”

## 마치며: 해외입양 친생부모와 해외입양인 인권

인터뷰를 통해 해외입양 동의, 입양기록 관리, 가족찾기, 재회 과정에서 해외입양 친생부모가 경험한 인권침해 양상은 해외입양인의 인권침해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됨.

해외입양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은 입양과정에서 친생부모의 인권보장과 밀접하게 연결됨.

해외입양 친생부모의 인권 개선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릴 뿐 아니라, 아직 한국은 친생부모 당사자가 개인 또는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개선을 요구하기 어려움.

해외입양 제도와 실천의 개선을 위해 친생부모의 인권 보장에 특별히 더 관심을 기울여야함.





발표 (Speeches)



# Qualitative Data Analyses Results – Birth Parents



## Qualitative Data Analysis Results - Birth Parents -

### Overview of Qualitative Survey

Subject	3 birth fathers of overseas adoptees, 2 birth mothers of overseas adoptees
Data Collection Tools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research team
Investigation Method	Individual or group interviews (face-to-face or Zoom video conferencing)
Period	July 17, 2022 to September 16, 2022
Details	Birth parents' experiences of intercountry adoption,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process of intercountry adoption, overall opinion on intercountry adoption
Recruitment of Participants	Through organizations serving birth parents, and adoptees who have reunited with their birth parents
Eligibility Requirements	Birth parents of intercountry adoptees aged 18 or older

Birth Parents			Adoptees			
No.	Gender	Year of Birth (Age Group)	Year of Adoption Year (Year of Birth)	Gender (Age at adoption)	Recipient Country	Birth Search Status, Reunion Status
1	F	1961 (60's)	1986(1982) 1987(1983)	Daughter(5) Son (5)	USA France	Found/Reunited Not found
2	F	1960 (60's)	1987(1979) 1987(1982)	Son (9) Son (6)	France France	Found/Reunited Found/Reunited
3	M	1979 (40's)	2001(2001)	Daughter (newborn)	Canada	Found/Not reunited
4	M	1943 (70's)	1984(1972) 1984(1974)	Daughter (13) Son (11)	France France	Found/Reunited Found/Not reunited
5	M	1940 (80's)	1973(1973)	Twin Daughters (newborn)	USA	Found/Reunited

### Parenting Crisis before Considering Overseas Adoption

#### 'A Birth Mother's Parenting Crisis'

Birth mothers experienced temporary or long-term child-rearing crisis

*It was virtually impossible for birth mothers to raise their children alone due to worsening economic conditions, housing crisis, difficulty in managing both working and running a household, the breakdown of relationships and trust between spouses, and lack of support from immediate or extended family.*

"My life wasn't improving, and what can I say about the child's father? I couldn't see a future with him. I knew that he would not take responsibility or become a good father. (...) I lived with the thought that I must find a way to survive, no matter what, and if I could have lived together with my child without sending him away, I would have, but I made the choice at that time because everything in my life was hopeless."

### **‘A Birth Father’s Parenting Crisis’**

Birth fathers were in crisis due to the breakdown of relationships with their children’s birth mothers

*Parenting became difficult for birth fathers as their relationships with birth mothers deteriorated. After divorce, birth fathers tried to take care of the children alone but sent them back to the birth mothers after experiencing difficulty. Some birth fathers were unable to pay the hospitals for medical costs incurred during delivery.*

“They said, “The mother may die, or the baby and the mother both will die.” Why did they say this? They said that It’s been so long that the water in the womb has dried up. (...) This is what the hospital was telling me. “The baby and the mother are both about to die, so we need to do surgery now, which person would you save?” If I can save them both, then I would want to save them both. As much as I am possible, I want to save them both. Our family was so poor. I had three boys to take care of already, and I couldn’t pay the hospital bill. I was detained at the hospital because I couldn’t afford the bill.”

### **‘Considering Intercountry Adoption’**

Learned about intercountry adoption while in the middle of a parenting crisis

*Intentionally recommended intercountry adoption as a solution to parenting crisis. Birth parents were told that the separation would be temporary and that their children will return after receiving a good education.*

“The person who suggested adoption said to me that my child could be sent abroad to study and be raised well. She said ‘you can meet your children again when they become adults and return to South Korea.’ I asked her if I would be able to contact and meet my child. The adoption agency staff told me that I would not be able to contact her first, but if my child were to contact me first, only in that case would I be able to reunite with her.”

### **‘Considering Intercountry Adoption’**

Accepted intercountry adoption in return for medical bills

“A woman who was living with me at the time looked it up on the internet. I guess the website said that hospital expenses would be covered if the child would be relinquished for adoption. When I went with the child’s mother to the hospital for delivery, I did not get any explanation about what adoption meant. I didn’t hear a single thing about it. (...) I didn’t even know such a website existed. I didn’t know any of this.

“I couldn’t ask any questions. I couldn’t ask the hospital ‘Where did you call? Why did the car come to take my children?’ because I couldn’t pay any of my hospital bills. It was about 5 million Korean Won in terms of money now. My wife was discharged from the hospital even when we did not pay even a penny.”

### **Human Rights Violations in Explanation of and Consent for Intercountry Adoption**

#### **‘Explanation of Intercountry Adoption’**

Lack of explanation about intercountry adoption led the birth parents to think that their children were placed in domestic adoptive homes or childcare facilities

*When adoption agency staff came to take the children, they were not required to explain who they were, what agency they worked for, or the future of the child. Parents were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ir children were being raised in domestic adoption or childcare facilities.*

“The hospital told me that a car would come and I should send off my child with them. So it seemed like there was a plan. (...) I trusted that the hospital had a plan in place, so I followed their instructions. There was no mention of overseas adoption. I had heard of adoption, but I did not understand it well. I thought it simply meant going to an orphanage nearby and growing up there.”

### **‘Explanation of Intercountry Adoption’**

Lack of explanation about intercountry adoption led the birth parents to think that their children were placed in domestic adoptive homes or childcare facilities

“I never imagined that my child would end up in a foreign country. I thought adoption meant sending your child to a rich family so that the child would at least have a good life since you as a parent did not have the means to raise the child. If I had known that my child was being sent overseas at that time, I would not have agreed to the adoption. Why would I send my child overseas for adoption? I haven’t changed my mind about this. At that time, I was taken advantage of because I was ignorant. If they had told me that my child was being sent overseas, I would have brought my child home with me even if I did not have the means to raise my child. Absolutely not.”

### **‘Consent for Overseas Adoption’**

A third party, a head of childcare facility, lied to the birth parents and their children and provided consent for overseas adoption on their behalf without notifying them

“A worker at the childcare facility lied and said to my children that their parents had given consent for overseas adoption. The facility had no intention to send my children overseas for adoption in the beginning but when they learned that a family in France wanted to adopt older children, suddenly it was decided that my children will be adopted overseas. My children’s birth mother contacted me about three months after the children left for France. When I asked her, ‘how did my children get adopted overseas?’, she answered that they were sent because they wanted to go. That was what she was told by the worker at the childcare facility.”

### **‘Overseas Adoption Recordkeeping’**

Adoption consent without explaining the meaning of intercountry adoption and poor record keeping

“When I entered the adoption agency to start the adoption process, I was extremely embarrassed. I don’t remember anything. The adoption agency staff gave me some documents and I filled them out in about 10 minutes. I didn’t even know what the documents were. I only signed the document because I was told to sign it. Afterwards, I was told to leave. The process only took 10 minutes and I left the child there. That was the end.”

“When I first saw the adoption consent form, my first thought was, ‘this is not my handwriting.’ It was definitely not my handwriting. I was alarmed and had a huge argument with the adoption agency staff because I told them I didn’t recognize it as my own handwriting. But my address and my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were correct. (...) It looked like the handwriting of a middle schooler.”

### **Trauma Caused by Separation from Their Children Adopted Overseas**

### **‘Trauma Caused by Separation from Their Birth Children’**

Addiction to drugs or alcohol and suicide attempts due to depression and separation anxiety

*Birth parents were traumatized after being separated from their birth children. Birth parents reported issues with alcoholism, suicidal thoughts, and suicide attempts. They suffere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pain, but they could not share the reasons for their distress with anyone and endured deep sadness and unbearable pain alone.*

“Suddenly, my sister called to tell me at about 10 AM that my children were flying to France at 11 AM. I found out too late. I was in Busan, so it was impossible to reach the airport in time. I was so heartbroken. Since then, I started to drink a lot. (...) If I had known in advance that my children were going to be sent abroad, I wouldn’t have let them go. Even if we had to starve and beg for food together. (...) I drank heavily for three years since that day.(...) I drank every night, and I drank the next morning every day. I kept drinking because I was in pain. I couldn’t talk to anyone about it, so I just lived on alcohol all the time.”



## 'Trauma Caused by Separation from Their Birth Children'

### Feeling empty and lonely, attempting suicide after child relinquishment

"I had a difficult time after sending my children away for adoption. I must have been out of my mind. When I came to my senses, I felt a hole in my heart, a hole through which the wind was able to pass. My heart was bitterly cold, and I was desperately lonely. (...) After sending my children away, I thought to myself, 'I have done what I needed to do, so I should die.' I thought that my life was over anyway. So I took sleeping pills. But I woke up after three days without dying. When I woke up, my landlord and neighbor were so shocked. I woke up and apologized. I don't know why I was sorry, but I just kept saying, 'I'm sorry, I'm sorry, I'm so sorry.'"

## Reunion with Birth Children, Establishing a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Birth Children after Years of Separation

## 'Post-Reunion Relationships with Birth Children'

A reunion is not the end but a new beginning of a journey where they revisit old traumas and learn about cultural differences

*Reunion is a process of talking about pain and difficulties throughout life, and getting to know each other slowly. It's a process of understanding each other and acknowledging cultural differences. Birth parents also experience trauma after the reunion, but they do not have access to mental health professionals.*

"When we were reunited, I thought, 'my misery ends here and happiness begins.' Everything felt like it would be simple. But I cannot communicate with my children since I met them. I answered their questions but they still ask the same questions. I answered them and they understand with their brain but not with their heart. They never can. They understand in their head but not in their heart."

## **'Post-Reunion Relationships with Birth Children'**

**Birth parents need mental health services to heal their lifelong trauma from adoption**

"Mothers who sent their children away for adoption also live with trauma. I can't heal my heartache. I can't heal myself. Up to now. How do people heal from this? Is there a medicine to cure this? Even birth children can't heal us."

"Birth parents also need counseling. In my opinion, birth parents end up with a lot of psychological problems. They send their children away, harbor the pain, and fight with their inner selves. No one understands the pain. The moment you send your children away, you become at war with yourself. You miss your children, you feel sorry for them, and you regret it. I have to control these mixed emotions, there is no one who could do it for me. I have to manage it myself. But there are many people who live in desperation saying to themselves, 'I abandoned my child...' It's easy to just give up and live on alcohol. When I see birth parents like this, I feel that birth parents should receive counseling too. Because adoption is as traumatic for birth parents as it is for the adoptees. I live with immense trauma when I think of abandoning my child."

## **Birth Parents' Perspective on Ways to Improve Intercountry Adoption**

### **'Intercountry Adoption from Birth Parents' Perspective**

**If birth parents were able to return to that time, they would never choose adoption.**

*All birth parents answered that they would not send their children for adoption if they were able to return to the past and change their decisio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plement various measures to help prevent the separation of children from families and make it possible for Korean children to grow up in Korea.*

*Birth parents know that intercountry adoption is not entirely bad and that the lives their children had abroad were worse than the lives they would have had in South Korea if they were not adopted overseas.*

*However, the pain that birth parents experience is so great that it cannot be known unless you experience it firsthand. Some of them are grateful that their children grew up well abroad, but they are haunted by how much difficulty and hardship that their children had to overcome while growing up in foreign countries.*

### **'Birth Parents' Perspective on Improvement of Intercountry Adoption'**

Explain the meaning of intercountry adoption clearly and in detail

"We should have been given a detailed explanation from beginning to end about what would happen during Overseas Adoption. If the adoption agency had given a transparent and detailed explanation, I wonder how many people could really give up their children for adoption? Probably 90 out of 100 people would have returned home saying that they would rather raise their children. Without proper explanation, 100 out of 100 people would decide on adoption but with detailed explanation, wouldn't at least half of them decide against it? There was no detailed explanation given to me. (...) It's like buying children from people who really do not know what is going on by handing out little money. If there had been detailed explanation, I would have found a way to raise my own child."

### **'Birth Parents' Perspective on Improvement of Intercountry Adoption'**

Birth parents are not "sinners" or criminals, they are people with the same human rights and dignity as others

"I wanted to know, at least, that my children were doing well and safe. (...) When I visited OO (adoption agency), I was so embarrassed that I couldn't even open the door and go in. The way the agency staff treated us...I felt so embarrassed and ashamed to say 'I'm a birth parent, do you by chance have any news from my child?' I hated going there. It was worse than being forced into a rat hole. We were treated like that."

"I'm not asking to be treated like a special guest but they shouldn't treat us as if we were sinners. We should at least be treated as human beings. (...) We are from a generation that is already gone but if there are still birth parents who have to resort to intercountry adoption for some reason, I hope they will no longer be held at contempt and be treated as human beings."

### **'Birth Parents' Perspective on Improvement of Intercountry Adoption'**

Support unwed mothers to raise their children with pride

"In the past, unwed mothers had to live in silence. Unwed mothers were shamed. These days people say, 'It must be so hard to raise children as an unwed mother...' and regard them as strong and brave people. But it wasn't the same during our time. Back then, when I tried to raise my children alone, as an unwed mother, and people pointed their fingers at me. I tried and failed to raise my children, but these days unwed mothers are able to raise their children with support from society."

### **'Birth Parents' Perspective on Improvement of Intercountry Adoption'**

Improve birth family search procedures and increase birth family search using DNA

"My children went to OO (adoption agency) to search for their birth parents. They asked the agency to help them find their birth parents since they were Korean and they believed that their birth parents were in Korea. (...) I had also applied to OO to find my children. Since I registered at the agency stating that I was looking for my children and my children also told the agency that they were searching for their parents, there should have been a match but somehow there was a miss. They didn't connect us so we could not meet. (...) There's only one thing I want to ask. When my daughters went to OO, and I, the birth father, also went to OO to find my daughter, I wonder why it was so difficult to connect us."

"I had a DNA test and the results were sent to the United States. (...) I was able to find my children through DNA. It took less than 30 days before I got a call that my children were found. They told me the DNA matched perfectly."

## Conclusion: Human Rights of Birth Parents and Intercountry Adoptees

*Through interviews, we found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experienced by birth parents during the adoption process with respect to ‘consent for intercountry adoption, management of adoption records, birth family search and reunion’ were closely linked to human rights violations experienced by intercountry adoptees.*

*Uphold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 intercountry adop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birth parents’ human rights.*

*There is a long way to go in terms of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birth parents and the improvement is slow to come by. In South Korea, it is still difficult for birth parents to speak out individually, or to organize to demand improvement.*

*More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birth parents in order to improve the intercountry adoption system and practice.*



발표 (Speeches)



정책제언





# 해외입양의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I. 아동이익 최우선 원칙이 실현되도록 입양관련 법제도의 정비

### 1. 입양절차의 공공성 강화

- 아동학대 경험: 질적 면접 참가자 중 60% 이상, 양적 조사 참가자 중 30% 이상
  -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해외입양이 진행되었거나, 친생부모에게 입양동의를 강요한 사례
  - 2011년 입양특례법의 개정으로 법원의 입양허가제 도입, 2021년 6월 친생부모의 상담의 지방자치단체 진행 but 그 밖의 입양절차(예비양부모의 상담과 교육, 입양부모와 아동의 결연, 사후관리 등)는 여전히 민간 입양 기관에 일임
  -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권한 있는 공적 당국이 입양을 관장하도록 규정
- ⇒ 예비양부모의 상담과 교육,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 아동과 입양부모의 결연, 사후관리 등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도록 입양특례법을 개정하고 국제입양법을 제정할 것

## I. 아동이익 최우선 원칙이 실현되도록 입양관련 법제도의 정비

### 2. 모든 아동에 대한 입양절차의 일원화

- 아동입양을 관장하는 법은 현재 민법과 입양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조사 대상자 중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해외입양된 경우: 질적 면접 참가자 9명, 양적 조사 참가자 중 5% 차지
  - 2012년 민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입양에 법원의 허가제가 도입되었지만,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 예비양부모에 대한 교육, 입양 후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 부존재(입양특례법에는 근거 규정 존재)
  - 입양기관 개입 여부에 따라 아동의 입양절차가 민법 아니면 입양특례법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실태는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반함
- ⇒ 모든 아동에 대한 입양절차가 통일적으로 아동이익 최우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법과 입양특례법의 개정 필요

## I. 아동이익 최우선 원칙이 실현되도록 입양관련 법제도의 정비

### 3. 입양절차에서 아동의 피청취권 보장

- 유엔아동권리협약(제12조), 헤이그협약(제4조), 국가간 불법입양에 관한 유엔공동성명서는 입양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할 것 명시
  - 현행 입양특례법(제13조 제4항)은 13세 이상의 아동을 입양할 때에만 아동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 입양절차 전반에 있어 아동의 피청취권 보장을 위한 원칙 규정 부존재
- ⇒ 입양절차에 있어서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의견이 청취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의 피청취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입양절차 관여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교육과 매뉴얼 제공

## I. 아동이익 최우선 원칙이 실현되도록 입양관련 법제도의 정비

### 4. 입양절차 관여자의 전문성 확보

- 조사결과 과거 해외입양 관여자들의 전문성 부족 문제 드러남
    - 친생부모에게 입양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원가정 지원을 위한 노력 부재, 형제자매를 분리하여 해외입양 보낸 사례, 신속하고 간이하게 해외입양보내기 위하여 입양 서류를 조작한 사례 등
  - 해외입양절차가 아동이익 최우선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입양절차에 관여하는 공무원과 모든 종사자가 입양의 원칙을 숙지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입양실무를 진행하여야 할 것
- => 입양절차에 관여하는 공무원, 입양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사가 입양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슈퍼비전 제공

## II. 해외입양인의 입양기록에 대한 접근권과 뿌리찾기 보장

### ● 배경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아동은 (중략)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갖는다 ”
-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권고 “입양아동이 그들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찾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그에 따른 적절한 접근권을 보장할 것”
- 현행 입양특례법상 입양정보공개청구권 조항 존재하나, 이를 통한 해외입양인의 친생부모 찾기와 상봉사례는 5.8%에 불과
- 양적 연구 참가자 중 80.7%가 가족찾기 과정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답변함
- 입양기록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하거나, 부실한 입양기록으로 가족찾기를 실패, 가족찾기에 대한 공적 지원의 부족 등

## Ⅱ. 해외입양인의 입양기록에 대한 접근권과 뿌리찾기 보장

### ● 개선방향

-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입양특별법 개정
  - 입양인 뿐만 아니라 친생부모와 그 가족도 입양인을 찾을 수 있도록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 확대
  - 입양기록의 훼손, 분실, 조작 등으로 해외입양인의 입양정보접근권이 침해된 경우, 국가는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입양인의 가족찾기와 정체성을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 양적 조사에 참가한 해외입양인 95% 이상의 요구사항
- 해외입양인과 친생가족 사이 단절되었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상담 지원, 전문통역 지원 등 지원서비스 필요

## Ⅲ. 원가정보보호의 원칙 실현

### ● 배경

- 입양의 원인에 대하여 친생부모를 인터뷰 한 결과
- 경제적 어려움, 주거 상황의 불안정, 배우자의 부재, 자녀 돌봄과 가족 부양 병행의 어려움, 원가족 지원의 부재 등이 문제됨
-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이나 친지로부터 해외입양을 권유받고 충분한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한 채 해외입양을 결정
- 1980년대 이후 해외입양아동 대다수가 미혼모 가정 출신이었고 2021년에는 99.5%를 차지
  -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은 모든 아동에게 출신가정과 출신국가에서 양육될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할 것을 선언

### Ⅲ. 원가정보보호의 원칙 실현

#### ● 개선방향

-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친생부모가 빈곤을 이유로 자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취약한 가정의 아동양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 책정
- 혼인 외 자녀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차별을 개선하여 혼인외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하여 포용적이고 친화적인 환경 조성

### IV. 헤이그국제입양아동협약의 비준

#### ● 배경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해외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입양에 의한 유괴,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1993. 5. 29.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하고 1995. 5. 1. 발효된 다자간 협약
-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24일에 협약에 서명하였으나 현재까지 국회 비준은 마치지 못함

#### ● 개선방향

- 조속히 국내 이행입법을 마련하고 헤이그협약 국회 비준 처리
- 헤이그협약의 내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현재 국회 발의되어 있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과 국제입양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입양 관련 법제도 정비 필요

## V. 과거 불법적인 해외입양에 대한 국가책임 이행

### 1. 국가 차원의 전수조사

- 조사결과 다수의 아동학대 피해, 허위 고아호적 창설, 입양아동의 신분변경, 입양기록의 조작, 친부모의 동의 없는 입양, 사후관리 부재 확인
  - 덴마크 한국인 진실규명 그룹(DKRG) 등 해외입양인들의 인권침해 조사 신청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22. 12. 8. 해외입양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
  - 본 연구조사와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조사 대상은 해외입양인 전수가 아니라 일부에 그치는 점에서 한계 존재
- ⇒ 전수조사를 진행하거나, 최소한 조사를 원하는 해외입양인의 신청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공적 조사 절차와 기구를 마련하여 공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 확인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하여 해외입양인과 그 가족에게 사과할 것

## V. 과거 불법적인 해외입양에 대한 국가책임 이행

### 2. 해외입양인과 그 가족의 피해회복을 위한 보상과 지원

- 해외입양절차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적극적인 해외입양 부양 정책과 그에 따른 입양 법제도의 운용에 의한 결과
  - 양적 조사에 참여한 해외입양인 4명 중 3명은 한국정부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응답, 10명 중 9명 이상이 입양정보찾기에 대한 지원, 심리치료를 위한 지원, 가족찾기를 위한 유전자검사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
- ⇒ 국가는 해외입양으로 인한 단절과 상실의 피해를 치유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설립하여 과거 불법적인 해외입양으로 인권침해를 입은 해외입양인과 그 가족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보상하고 지원해야 함

## V. 과거 불법적인 해외입양에 대한 국가책임 이행

### 3. 입양기록의 공적 관리

- 해외입양인에게 정체성을 알권리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인간답게 살 권리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
  - 불법적인 방식으로 입양된 해외입양인은 친생부모를 알권리 및 정체성을 알 권리를 중대하게 훼손당함
  - 해외입양인은 현재에도 본인의 입양기록에 대한 접근을 부당하게 거부당하고 있음
  - 최근 해외입양에 대한 국가차원의 조사를 실시한 칠레 정부는 해외입양인이 정체성을 찾고 친생부모가 잃어버린 자녀를 찾을 수 있도록 포괄적인 입양자료와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가족찾기에 드는 비용과 가족찾기 과정을 지원
- ⇒ 국가는 해외입양인의 입양기록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정체성을 알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외입양과 관련된 기록과 정보를 민간 입양기관과 아동양육시설로부터 이관 받아 공적으로 영구히 보관할 것

## V. 과거 불법적인 해외입양에 대한 국가책임 이행

### 4. 불법적인 해외입양의 중단

- 양적조사에 참가한 해외입양인 95%는 해외입양 이전에 원가족보호를 우선해야한다고 답변하였으며, 85%는 해외입양을 지속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외입양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변함
  - 2019년 네덜란드 조사위원회는 해외입양 절차상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해외입양의 중단 선언을 권고
- ⇒ 과거 해외입양절차에서 해외입양인과 그 가족의 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사실이 발견된 이상 더 이상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외입양의 중단 선언 필요





발표 (Speeches)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Related to Overseas  
Adoption**



#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related to overseas adoption

## I . Improving adoption-related laws and systems to ensure the best interest of child

### 1. Reinforcing the publicness of the adoption process

- Experience of child abuse: more than 60% of the participants in the qualitative interview and more than 30% of the participants in the quantitative survey
  - Cases where adoption was carried out without the consent of the biological parents, or cases in which the biological parents were forced to consent to adoption
  - With the revision of the Act on Adoption in 2011, the adoption permission system by the court was introduced, and from June 2021, local governments were in charge of adoption counseling for biological parents. But most of the procedures, such as matchmaking and post-adoption management, are still entrusted to private adoption agencies.
  - CRC and the Hague Convention stipulate that the competent public authorities take charge of adoption.
-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Act on Adoption and enact the International Adoption Act so tha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ake charge of the entire adoption process, such as counseling and education for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protection of adoptable children, matchmaking between children and adoptive parents, and follow-up management.

## I . Improving adoption-related laws and systems to ensure the best interest of child

### 2. Unification of adoption procedures for all children

- Currently, the law governing child adoption is divided into the Civil Act and the Act on Adoption.
- Overseas adoption without going through an adoption agency accounted for 9 of the qualitative interview participants and 5% of the quantitative survey participants
- Revisions to the Act on Adoption in 2011 and the Civil Act in 2012 introduced adoption permission by the court, but the Civil Act does not have grounds for counseling for birth parents, education for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post-adoption management, etc.
- The fact that the Civil Act or the Act on Adoption are selectively applied to the adoption process of a child depending on whether the adoption agency is involved or not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giving priority to the interests of the child.

⇒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ivil Act and the Act on Adoption so that the adoption process for all children can be uniformly carried out with the child's interests as the top priority.

## I . Improving adoption-related laws and systems to ensure the best interest of child

### 3. Ensuring children's right to be heard in the adoption process

- CRC (Article 12), the Hague Convention (Article 4), and the United Nations Joint Statement on Illegal Adoption specify that children's opinions should be respected in adoption.
- The current Act on Adoption (Article 13, Paragraph 4) stipulates that consent must be obtained only when adopting a child over the age of 13.
- The current Act on Adoption does not have the provision to guarantee the right to be heard by children throughout the entire adoption process.

⇒ Provide specific and detailed education and manuals to all those involved in the adoption process to ensure that all children's opinions are heard regardless of age in the adoption process and to guarantee the child's right to be heard.

## I . Improving adoption-related laws and systems to ensure the best interest of child

### 4. Securing the expertise of those involved in the adoption process

-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the lack of professionalism of those involved in the overseas adoption process in the past was revealed.
  - Failure to properly provide birth parents with information on adoption, lack of effort to support the family of origin, cases in which siblings were separated and sent for adoption overseas, cases in which adoption documents were manipulated to send them for adoption quickly and easily, etc.
- In order for the overseas adoption process to truly put the child's interests first, the basic premise is that all public officials and workers involved in the adoption process should be familiar with the principles of adoption and pu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first.
  - => Provides education and supervision so that all public officials, adoption agencies, and social workers involved in the adoption process can secure expertise in adoption

## II . Overseas adoptees' access to adoption records and guarantee of finding roots

### ● Background

- Article 7 of CRC: "The child (omitted) has the right to know and be cared for by his or her parents to the extent possible."
- Recommendation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2019: "Informing that adopted children have the right to seek information about their biological parents, and ensuring appropriate access rights accordingly."
- There is a provision for requesting disclosure of adoption information under the Act on Adoption, but only 5.8% of overseas adoptees succeed in finding biological parents and reunited through this provision.
- Among the participants in the quantitative study, 80.7% had negative experience of finding a family.
  - Denial of access to adoption records, failure to find family members due to poor adoption records, lack of public support for family searches, etc.

## II. Overseas adoptees' access to adoption records and guarantee of finding roots

### ● Improvement direction

- Revision of the Act on Adoption to disclose adoption documents including record of biological paren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biological parents in case of death of the biological parents
- Expansion of the subject of request for disclosure of adoption information so that not only adoptees but also their birth parents and their families can find adoptees
- If adoptee's right to access adoption information is infringed upon due to damage, loss, or manipulation of adoption records, the government prepares support measures to guarantee the right of the adoptee to find his/her family and know his or her origin through genetic testing, etc
- Requirements for over 95% of overseas adoptees participating in the quantitative survey
- Provision of support services such as professional interpretation and counseling support to restore the severed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adoptees and their birth parents

## III.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child in origin family

### ● Background

- Birthpar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cited economic conditions, instability of housing situation, absence of a spouse, difficulties in taking care of children and supporting family, and lack of support for family of origin as reasons for adoption.
- In a difficult economic and emotional situation, hospitals or relatives recommended overseas adoption, and the decision to adopt overseas was made without sufficient information provided.
- Since the 1980s, the majority of children adopted overseas have been from families with single mothers, and by 2021, 99.5%
- CRC and the Hague Convention declare that the opportunity to be raised in the family and country of origin shall be given priority to all children.

### III.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child in origin family

#### ● Improvement direction

- Establish a budget to support child rearing so that biological parents who are socially and economically vulnerable do not give up raising their children because of poverty.
- Create an inclusive and friendly environment for pregnancy and childbirth and childcare outside of marriage by eliminating social and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and families outside of marriage

### IV. Ratification of the Hague International Child Adoption Convention

#### ● Background

- The Hague Convention was adopted by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on May 29, 1993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internationally adopted children and to prescribe procedures and requirements to prevent abduction and human trafficking through adoption, and was adopted on May 1, 1995.
- Korea signed the Hague Convention on May 24, 2013, but ratific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has yet to be completed.

#### ● Improvement direction

- Review all amendments to the Act on Adoption and the enactment of the International Adoption Act, which are currently being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o conform to the Hague Convention, promptly pass and ratify them, so that the adoption process conforms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 V . Fulfilling State Responsibility for Illegal Oversea Adoptions in the Past

### 1. Need for Investigation at the national level

- As a result of this survey, it was confirmed that many victims of child abuse, creation of false orphan family registers, change of status of adopted children, fabrication of adoption records, adoption without the consent of biological parents, and lack of follow-up care
  - In response to the application for investiga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by overseas adoptees, such as the Danish Korean overseas adoptees Group (DKRG), the Committee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on December 8, 2022, decided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into human rights violations in overseas adoptions.
  -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s investigation is limited in that it is targeting some of the overseas adoptees who raised the issue.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 national-level organization to conduct research on all Korean adoptees around the world.
- ⇒Conduct a national investigation to find out the actual situa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adoptees, and apologize to international adoptees and their families for the human rights violations confirmed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 V . Fulfilling State Responsibility for Illegal Oversea Adoptions in the Past

### 2. Compensation and support for overseas adoptees and their families to recover from damages

-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overseas adoption process are the result of the authoritarian regime's active support policies for overseas adoption in the past and the resulting adoption legal system.
  - 3 out of 4 international adoptees who participated in the quantitative survey respond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was responsible for compensation, and more than 9 out of 10 received support for finding adoption information, psychological treatment, and genetic testing to find family members
- ⇒The state establishes a national institution that can heal the damage of disconnection and loss caused by overseas adoption, and properly compensates and supports overseas adoptees and their families who have suffered human rights violations due to illegal overseas adoption in the past so that they can recover.



## V . Fulfilling State Responsibility for Illegal Oversea Adoptions in the Past

### 3. Public management of adoption records

- For oversea adoptees, the right to know their identity is a basic right to realize their personality rights,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the right to live like a human being.
  - Oversea adoptees who were adopted illegally have their right to know their birth parents and their identity seriously undermined.
  - Oversea adoptees are still denied access to their adoption records by adoption agencies.
  - The Chilean government, which recently conducted a national-level survey on overseas adoption, established a comprehensive adoption data and DNA database to help international adoptees find their identity and their birth parents' lost children, and support the cost and process of finding a family member.
- ⇒=> The state shall transfer oversea adoption-related records and information from private adoption agencies and child care facilities and publicly and permanently store them so that international adoptees can guarantee access to their adoption records and restore their right to find their identity.

## V . Fulfilling State Responsibility for Illegal Oversea Adoptions in the Past

### 4. Stopping Illegal International Adoption

- 95% of international adoptees who participated in the quantitative survey said that protection of the family of origin should be prioritized before overseas adoption, and 85% answered that there was no legitimate reason to continue overseas adoption and that overseas adoption should be stopped.
  - In 2019, the Netherlands Commission of Inquiry confirmed that there was a structural and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 in the international adoption process and recommended the Dutch government to declare a suspension of international adoption.
- ⇒Overseas adoption should be stopped so that the same damage will not be repeated any more after it is discovered that the human rights of overseas adoptees and their families were seriously violated in the past overseas adoption procedures.



토론 (Discussion)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황준협 변호사**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Youth,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Hwang Junhyup (Attorney at law)



## 해외입양인 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책임을 중심으로

토론자: 황준협<sup>1)</sup>

### 1. 들어가며

2018년 초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가 한국으로 강제추방되었던 A씨, 저 또한 이 사례를 접하기 전까지는 해외입양인에 대해 좋은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어려운 상황을 피해 ‘선진국에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해외 입양인의 이미지. 그동안 해외입양인들에 대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이미지를 그리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A씨의 사례를 접하기 전까지는 해외 입양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A씨를 통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아왔는지 그 현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해외 입양인의 인권 실태에 대해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해외입양인의 인권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가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 합니다)의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는 A씨의 사례를 통해 이것이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문제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고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리인단을 꾸려 약 1년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1월에 대한민국 및 홀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외 입양 아동이 수령국에 입양되고 난 이후 처하게 되는 현실과 국내 입양기관과 국가의 무관심 속에 아동들이 처하게 되는 현실을 보게 되면 미디어에서 전형적으로 그려왔던 ‘성공적인’ 해외입양인의 모습은 그저 운이 좋은 케이스이거나 성공적으로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외입양은 여러 가지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전후 고아 처리의 맥락에서 아동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 하에 이루어졌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해외입양은 선의를 가장하여 악용되어왔습니다. 1970년대의 산업화를 거치며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미국이나 유럽 각지의 수령국 수요에 맞춰 그 본질이 변형되기도 하였으며, 남북의 체제 경쟁 과정에서 북한이 남한의 해외 입양을 선전에 활용

1)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하자 남한은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해외입양을 감축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해외입양은 국가 정책의 관점에서 철저히 이용되었고 ‘아동의 복리’나 ‘아동 최선의 이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국가의 이익이나 입양수요만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동 최선의 이익이 무시된 채 국가의 이익에 의해 합법적으로 보이는 ‘아동매매’가 자행되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 대해 배상 내지 보상을 해야할 주체는 응당 국가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소라미 교수님께서 발제해주셨던 해외 입양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국가의 책임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살을 붙이는 형태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 2. 국가가 해외 입양인을 위해 해야만 하는 조치들

### 가. 해외 입양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및 해외 입양인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및 공개

현재, 국가가 공개하고 있는 해외 입양 통계는 단순히 해외에 입양이 된 숫자와 국가별 숫자 등 수치 정도입니다. 실제 해외 입양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인권 침해실태나 현재 해외입양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이를 알려고 하는 노력도 전무했습니다. 국가는 과거 선의로 포장하였던 해외입양의 참상을 알기 위해 해외입양인들이 겪었던, 또 현재 겪고 있는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조속히 조사부터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사의 범위는 단순히 피해 당사자인 해외 입양인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 조사뿐만 아니라, 해외 입양을 담당하였던 4대 입양기관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위법행위들, 특히 허위 고아호적 창설이나 타인의 호적을 이용하여 신분을 전환하여 입양이 이루어졌던 사례들의 경우 해외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찾기를 하는 데에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에게서 태어났고,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자신은 입양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등과 같은 입양 과정 및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상조사는 4대 입양기관 및 해외 입양에 협력했던 국내 양육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입양 관련 자료를 제출 받거나 또는 이관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 데이터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조사가 수반되지 않는 한 해외입양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걸음을 내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사후관리와 관련해서도 '4대 입양기관이 실시하였던 사후관리의 내용'에 대해서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양 업무는 '입양 이후 아동이 가정에서 잘 적응하고 성장하는 것까지 포함한 아동보호 서비스'입니다. 특히 해외입양에서는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안전을 위해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적을 취득해야만 아동 수령국의 최소한의 사회 안전 장치가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양기관은 입양단계에서는 입양부모의 자질을 검증하고 입양 이후에도 아동이 입양가정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하며, 만약 아동이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례를 통해서만 보더라도 4대 입양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사후관리가 전무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어떻게 사후관리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지점일 것입니다.

또한, 입양의 전 과정에서 국가는 어떻게 기능했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또는 하지 않았는지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나 자료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4대 입양기관장들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해외입양관련 지침을 시달하며 실질적으로 위 4대 입양기관을 자신의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988년 한국의 국외입양에 대해 심층 취재한 미 월간지 <프로그레시브>의 매튜 로스차일드 기사는 입양기관에 대해 '준 정부기관'(quasi-governmental institution)이라고 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4대 입양기관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입양업무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4대 입양기관을 통해 자행되었던 각종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1977년부터 시행되었던 구 입양특례법에 따르더라도, 국가는 위 4대 입양기관들에 대한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4대 입양기관들의 불법행위들을 바로 잡을 책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는 과연 해외입양절차에 있어 법상 부여된 책무를 적절히 이행하였는지도 철저히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우선 해외 입양당사자들에게 그 사실을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입양당사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입양당사자들의 내밀하고 개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또는 당사자가 허락한 범위에서 일반에게 공개될 필요도 있습니다. 일반에 대한 공개를 통해 해외 입양인들의 실상이 알

려져야할 뿐 아니라, 국가가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이와 같은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후 국가가 이행해야 하는 각종 조치들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해야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자로 참여하신 피터뮐러씨께서 대표로 계신 DKRG에서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라 합니다)에 2022년 8월 덴마크로 입양된 한국계 입양인들의 사례에 대해, 입양 당시의 인권침해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고 진정을 접수하였고, 그것에 대해 진화위에서는 2022년 12월 8일자로 해외 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관련 사건(34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진화위의 조사 개시 결정 및 이후 이루어질 진상조사가 해외 입양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4대 입양기관과 국가의 불법행위와 그 과정에서 해외 입양인들이 겪어야 했던 인권침해의 현실을 규명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실 규명 작업에서 정부가 담당하는 이중적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가해자이자 정의 실현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부담하기 때문에, 국가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관한 기록을 권력과 법을 통해 은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나. 사실의 인정과 국가의 책임 인정을 포함하는 공식 사과 및 피해배상

##### 1) 사실인정과 국가의 책임 인정을 포함하는 공식사과

이렇게 철저히 규명된 사실을 바탕으로 국가는 책임있는 주체로서 과거의 국가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이것을 포함하여 진지하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 2) 피해자에 대한 금전배상 및 금전보상

가) 또한 이러한 사과의 일환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금전 배상의 구체적인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유엔 인권피해자 권리구제 원칙(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2005. 12. 16.)(이하 ‘유엔 인권피해자 권리구제 원칙’이라 합니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유엔 인권피해자 권리구제 원칙에서는 배상의 방식으로 원상회복(restitution), 금전배상(compensation), 재활조치(rehabilitation), 만족(satisfaction), 재발 방지 보증(guarantees of non-repetition)을 예시하고 있으며, 그 중 금전배상과 관련해서는 “경제적으로 환산 가능한 (a)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b) 고용, 교육 및 사회적 편익 등 기회의 상실, (c) 물질적인 손해와 잠재적 소득



의 상실을 포함하여 소득의 상실, (d) 정신적 고통, (e) 법적 원조 또는 전문가 원조, 약과 의료 서비스, 심리적 사회적 서비스에 소요된 비용의 손해들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각 사건의 상황을 감안하여 적합하고 비례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적인 피해배상이 제공되어야 한다.”<sup>2)</sup>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해외입양인 피해자들의 경우, 입양가정에서 받았던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인해 신체적·정서적 장애를 겪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안정적인 직장이거나 직업을 갖는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1970년대-1980년대 미국으로 입양되었던 입양인들의 경우 국적취득을 하지 못하여 각종 사회보장서비스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도 하므로 이와 같은 기회의 상실에 대한 배상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입양으로 입게 된 물질적 손해, 그리고 ‘입양의 과정에서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며, 정서적 학대 피해를 당하는 등 여러 차원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고통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의료 전문가의 조력과 사회보장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충분히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금전배상의 경우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일시적인 현금배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연금형식의 지급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다.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

해외 입양인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자신이 버림받게 된 이유, 원가족에 대한 갈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피해자가 이와 같은 혼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의 원가족을 알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 역시 국가의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조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입양과 관련된 기록을 4대 입양기관 및 해외 입양에 관여하거나 조력하였던 영유아 보호시설에서 이관받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미 입양 수령국에서 가족관계를 형성한 입양인에게는 가족들을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을

2) para 20. Compensation should be provided for any economically assessable damage, as appropriate and proportional to the gravity of the violation and the circumstances of each case, resulting from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uch as:

- (a) Physical or mental harm;
- (b) Lost opportunities, including employment, education and social benefits;
- (c) Material damages and loss of earnings, including loss of earning potential;
- (d) Moral damage;
- (e) Costs required for legal or expert assistance, medicine and medical services, and psychological and social services.

통해 수령국 가족들과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며, 강제추방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그 해금조치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조치들이 책임성 있게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담기구의 설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 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외입양절차에서 해외입양인과 그 가족이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받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 이상 정부는 해외입양 정책이 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임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해외입양 중단을 선언하고, 제도적으로도 더 이상 해외입양을 허용하지 않도록 입양특례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피해자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 전체의 입양 아동의 인권과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조치라 생각합니다.

### 3. 마치며

2019년 1월에 대한민국과 홀트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은 약 3년여간의 소송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홀트가 허위 기아호적을 창설하였던 점, 법이 정한 후견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입양아동에 대한 국적취득 확인이나 사후관리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양부모가 아이를 직접 보지도 않고 입양을 할 수 있었던 대리입양의 문제점과 해외입양을 통해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취득하였던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는 이를 잘 알면서도 이를 조장하거나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아 그 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안타까운 심정이나, 당시 규정에 따르면 불법은 아니었고, 또 원고 개인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치부하는 등 실로 납득하기 어려운 항변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외 입양인들은 단 한번도 권리 위에서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해외입양인이 겪고 있는 고통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가에 의해 일어난 일에 의한 것입니다. 해외 입양가정에 내던져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의 뿌리를 알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고, 또 왜 자신이 입양 보내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고민하며, 입양가정에서 겪었던 학대와 폭행으로 인한 상처로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송절차의 한계일 수도 있겠으나, 국가가 자신의 과거 잘못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은가 라는 아쉬움이 큼니다. 1심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고, 불법행위를 자행한 입양기관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에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화위 조사 개시 결정을 통해 과거 해외입양절차에서 이루어졌던 각종 불법행위와 해외 입양인들이 겪었던 인권침해의 사례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 국가의 책임있는 조치를 위한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론 (Discussion)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  
피터 뮐러 공동대표**

Danish Korean Rights Group /  
Peter Møller (Co-representative)



My name is Peter Møller. I was adopted from Korea to Denmark in 1974. For a good half year I have represented hundreds of adoptees from Denmark and hundreds of adoptees from all over the world.

I am therefore also very honored and humbled to be invited here today and speak on behalf of these adoptees.

Dear Congressman Kim Sung Ju. Thank you for hosting this important conference. Your name is known to adoptees internationally far beyond the borders of Korea. I bring the warmest greetings and wishes of adoptees all over the world and a big thank you for bringing hope to many thousands of adoptees.

Thank you to KoRoot for always standing by adoptees for advice or support. Also when it gets tough and rough. I bring you hugs from abroad.

Also a big thank you to the many Koreans who have helped us on our way with advice and help: the co-hosts GongGam and Onyul. Thank you to the research team lead by professor Helen Noh, Soongsil University.

On 23 August 2022, on behalf of 200 Danish adoptees in the organization DKRG (Danish Korean Rights Group), I submitted a more than 20-page long request to the Korean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o initiate investigation into human rights violation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gainst overseas adoptees committed by adoption agencies in Korea and the Korean state at the time of adoption. Along with the DKRG request, I also submitted 53 individual requests from adoptees from Denmark. Between August 23rd and 9 December 2022, around 400 adoptees from all over the world have submitted their cases to the Commission, and DKRG's 20-page request to the commission to initiate investigation into human rights violation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gainst overseas adoptees has grown to around 50 pages. During the same period, the number of members of DKRG has grown to more than 600 Danish adoptees demanding the truth about adoption from South Korea.

One category of cases, are those testifying to the sexual abuse of 6-7 year old Korean children while in the custody of the adoption company Holt, and we have asked the Commission to investigate what it is about Holt and the sexual abuse of Korean girls and boys.

We have also submitted cases from adoptees whose Korean mothers were told their children had been stillborn when the children were indeed alive, and 30-40 years later reappear from the dead reuniting their Korean families to whom they have been made strangers. The adoptees' adoption papers state that their mothers did not want them because they were poor or because they preferred boys. These are the grim realities of Mia's story who was adopted to Denmark, a story featured by SBS in the documentary series [Curious Y] the day before Christmas Eve [Y 617회]. She was lied dead along with a made up false story produced by the adoption agency.

We have also brought documentation on systematic ethnic cleansing of mixed-blood children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se are crimes against humanity. Adoptees all over the

world stand with these marginalized groups of fellow adoptees and their biological parents to ensure that this dark and shameful chapter of Korea's intercountry adoption practice is properly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the severity of the crime.

We want to get to the bottom of this kind of racism and dehumanizing view on individuals; a view intrinsic to Korea's adoption practice resulting in the deportation of thousands of Korean children. In other words, these children were not demanded to leave Korea because of war and hunger. But because of their racial background. It concerns both the crimes against humanity that the Korean state caused, but equally the crimes against humanity that the adoption company Holt has committed, and it is perhaps not just a matter for Korea, but a matter that should be raised to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ssion as well.

News about South Korea's Truth Commission has gone all around the world. South Korea's decision on December 6 to launch an investigation into adoptions from South Korea is historic. Building on this momentum created by the Korean TRC, national investigations into adoptions from South Korea are being initiated around the world, including some of the largest receiving countries such as Sweden, Norway, Belgium, France, Switzerland and Denmark.

In DKRG's case, hundreds of adoptees describe how, among other things, the adoption companies Holt Childrens Services, Inc. and Korea Social Services, Inc. have systematically swindled and deceived the adoptees, the Korean families and the adoptive parents as well with the adoptees' background documents. Holt's fraudulence and scams have echoed throughout Europe in the past week.

The French adoption agency La Rayon de Soleil, which for years has had cooperation with the Korean adoption company Holt, has been stripped of its license to conduct adoption business in France, based on a long list of historical facts investigated by the French state.

Let me mention a few bullet points that are the basis of the historic decision from France:

[Table 1] Reasons for Cancellation of Accredi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Missing documents</li><li>● Falsification of documents</li><li>● Absence of consent from the biological mother</li><li>● False declarations of civil status</li><li>● Fraud in the rules of exit and entry into the countries concerned</li><li>● Kidnappings of children</li><li>● Thefts of children</li><li>● Sale of children</li></ul>
---

Source: Étude historique sur les pratiques illicites dans l'adoption internationale en France [Historical study on illicit practices in international adoption in France] by Yves Denéchère, Fábio Macedo. Université d'Angers. 2023.

The French adoption agency is paying for its complicity in crimes committed by the Korean adoption agency Holt, and these misdeeds stick to both adoption agencies like flies to a heap of garbage.



An at least equally historic event is this study by Korea's ow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t is the largest study to date with such a large number of respondents that, for the first time, you can both generalize with high statistical reliability and, with the study's in-depth interviews, scientific knowledge about adoption with high validity.

The study's data is extensive, and there is a basis for further research in the years to come.

For us adoptees, the study not only demonstrates the many suspicions about illegal adoptions that we from DKRG have brought up to the Commission. The study also demonstrates the many harmful effects that adoptions have had on both the adoptees and the Korean families here in Korea.

We adoptees are simply shocked at the scale and severi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With our case to the Commission, we have presented documentation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taken place, but this study shows how large and widespread this is and, last but not least, the research team have spoken to the victims, so that this whole dimension is included. We now know both how many, and we now know how it affected the victims in their adult lives.

Thus, this important study from the Korean Human Rights Commission puts numbers and words on the violations that adoptees and their Korean families have experienced.

We are no longer talking about abstract experiences, but about concrete violations where percentages can be attached.

Let me give an example. In DKRG, we received a worryingly high number of cases and reports of sexual abuse against adoptees when they were children in Korea. Adoptees who experienced sexual abuse at their places of residence here in Korea were associated with the adoption agency Holt. We also received cases concerning adoptees who, via the adoption agency Holt, were sent directly to pedophile adopters, sometimes single men.

The study puts numbers on this at 13.5% - more than one in eight - of those adopted have been exposed to sexual abuse as a direct result of adoption.

[Table 2] Comparing Prevalence of Sexual Abuse among Adoptees and Regular Danish Population

Place of Abuse and Abuser	Percentage
In custody of adoption agencies	6.2%
By adopters	13.5%
In Denmark*	1-1.5%

\*Source: Fysisk vold og seksuelle overgreb mod børn [Physical violence and sexual assault against children], Mai Heide Ottosen and Sofie Henze-Pedersen, 2021

In Denmark, where I come from, studies show that 1-1.5% of children in Denmark are victims to sexual abuse. This study shows that 6.2% of those adopted experienced sexual abuse in the custody of adoption agencies in Korea and 13.5% of those adopted are sent out to sexual abuse. From our cases, we sadly know the horrifying nature of this child sexual abuse from descriptions shared by the survivors. They describe sexual intercourse and other types of sexual abuse than penetration with children down to the age of 6-7 years!

October 10, 2022, the adoption company Holt stated to the Korean media Yonhap that DKRG's accusations were an expression of "misunderstandings between the adoptees due to legal, cultural differences".

Sexual abuse of children, theft of children, abduction of children, sale of children. The list is long.

I ask what are the cultural differences that Holt points to. The Danish culture? The Korean culture? As far as I know, none of these cultures allow the sexual abuse of Korean children under the age of 6-7. I am convinced that it must be a very special culture that exists in Holt, only.

I am proud and happy that it is my old homeland Korea that leads the way when it comes to investigating adoptions from Korea and dares to look into the dark corners of its own history. First it was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and today it is the study from Korea's ow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 am proud that it is Korea itself that is leading the way. Only one other country in the world has taken the initiative to look into its own country's adoptions. It's Chile. Here, the Chilean government has launched a national investigation. This is a criminal investigation because the adoptions from Chile are considered criminal acts. The adoptions from Chile are very similar to the adoptions from Korea. Theft of children, abductions, falsification of documents, fraud, sale of children and much more.

The cases from DKRG and this important study from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how that we have only scratched the surface in pursuit of the truth about adoptions from South Korea.

We call o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Korean parliament to ensure that we get to the bottom of the role of the Korean state during the authoritarian era and not least the role of the adoption agencies.

DKRG submitted its final batch of cases to the Commission December 9th, the very last day the Commission accepted cases. Since then, an increasing number of requests from adoptees to the DKRG leadership to have their individual adoption case investigated have flooded our inboxes. Although, I'm happy that our DKRG team was able to submit more than 330 cases to the TRC, I'm also concerned about the other +950 cases we have not been able to include.

Just today (Sunday, February 19), I received 3 cases of Holt adoptees to the US who have been reunited with the wrong Korean families. It has been proven through DNA tests. It

brings pain and suffering not only to the adoptees, but also to the Korean families searching for their daughters and sons, that were so shamefully taken away by Holt and KSS without consent.

Holt remains passive. This adoption agency is a black stain on Korea's reputation, and it will be reinforced as national investigations from around the world progress, as has been the case in France last week.

Last week, DKRG unraveled an illegal child trafficking network that operated out of the N.M.C (National Medical Center), a hospital in the 1960s. This network appeared to be operating in collaboration with Harry and Bertha Holt and dealt with the illegal deportation of Korean mixed-race children and other Korean children. We have this from detailed letter correspondence between the network and Scandinavian adopters, which we of course hand over to the TRC's investigators.

It describes how Korean children's names are changed to Scandinavian names on Korean passports and the descriptions of bribes with money and goods such as coffee and sugar change owners to enable the sending of Korean children as fellow passengers to Scandinavian travelers from Korea and Japan.

Adopsjonskontoret skal ha 90 dollar, det er 40 dollar mindre enn alle de 6 andre sådanne her i Seoul. Og enda de har behandlet disse papirene med spesiell servise fordi jeg trodde det hastet slik. Jeg har derfor tenkt, ikke å gi dem penger, for det kan de ikke ta imot, men kjøpe på amerikansk forretning hvor vi har adgangskort, varer som ikke kan fås eller er skrekkelig dyre for koreanere, for ca. 10 dollar, om

dere ikke har noe imot det. Kaffe, sukker. De er meget fine mennesker (hører til den presbyterianske kirke alle de ansatte i denne institusjon) og jeg vil gjerne gi dem en påskjønnelse fordi de har gått så realt (og ulikt koreanermetoder) frem. Og jeg skal jo også om en tid finne en liten søster på samme sted. Jeg synes dette barnehjemmet har en høyere standard enn "Goverments".

*The adoption office wants 90 dollars. That is 40 dollars less than the other 6 offices like these here in Seoul. They have even been faster than the other and offered special service, because I though I was in a hurry. I have decided not to give them money, because they are not allowed to recieve money. Instead I will buy goods in the American store to which we have access card. Goods that they haven't access to or goods that are very expensive for Koreans, 10 dollars, if you don't mind for coffee and sugar. They are very good people (they belong to the Prebytarian church all the employees at this institution) and I would like to give them an appreciation, because they have been so honest (unlike usual Koreans). And soon I have to find you a little sister at the same place. I think the institution has better standard than the "governmental" ones.*

The adoptees who were not able to meet the deadline for the TRC in December have an equal need and legitimate claim to know the truth.

We have a substantial number of adoptees, we are talking in the hundreds, who have not dared to participate in the TRC due to the fear of retaliation from Holt and the other adoption

companies.

I am sure that we, the Korean adoptees and the Korean state together can help clear South Korea's reputation as a country that shamefully sold its children. We have started this journey together with the Commission's investigation into adoptions and with this important study.

I am sure that together we can create clarity, certainty and reconciliation in our further cooperation.

보고서요약본 (Summary)



보고서요약본(한글본)



## 1. 연구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해외입양인의 인권침해 사례 유형과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해외입양 관련 법·제도와 국내 아동보호체계 개선방안, 더 나아가 해외입양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차원 대응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세계에서 최장기간 최대 규모로 해외입양을 보낸 송출국이므로 해외입양인의 인권상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지난 70년 동안 정부 공식 통계만으로도 17만 명(민간 추산 20만 명)에 달하는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냈다. 둘째,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와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해외입양인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를 한국도 실시하기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벨기에는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례를 발견했고, 2021년부터 2년 동안 해외입양을 중단하였다. 셋째, 한국도 이미 해외입양인의 인권침해 사례가 보고 되어 왔기에 인권침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폭넓게 조사하고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입양인 인권개선과 피해 입양인 지원 방안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를 통해 해외입양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국가가 인권보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거나, 국가가 마련한 해외입양제도와 절차의 문제로 인한 피해를 확인할 경우, 한국 정부는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문헌 조사를 통해 한국의 해외입양 관련 제도와 규범, 정책, 입양절차 규정, 비공식적 입양절차 관행 등을 시기별로 정리해 입양아동 인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수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하였다. 또한 해외입양 수령국인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와 해외 입양아동 송출국인 칠레 정부에서 해외입양인 인권침해에 관해 조사·작성한 보고서를 살펴보았다. 이후 한국 해외입양인과 친생부모 면담을 통해 인권침해 경험에 대한 질적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인권침해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자체 개발해 양적조사를 하였다.

## 2. 질적 연구

질적 자료는 초점집단과 개별 심층 면접을 통해 수집했다. 해외입양인과 그 자녀와의 면접을 위해서는 주로 입양 시 인권보호의 수준이 어떠했는지, 혹은 입양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양상이 어떠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친생부모와의 면접을 위해서는 해외입양을 결정하게 된 상황, 입양을 결정하기까지의 상담 과정과 상담 내용, 입양 결정에 영향을 준 요인, 입양 동의서 작성과 자녀와의 분리 과정, 분리 후 심리적 변화, 입양자녀와의 재회 경험, 입양기록의 적절성과 자녀찾기 과정에서의 경험, 입양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등에 관한 질문을 개발하였다.

면접 내용은 참여자 동의 후 녹음했고, 녹음 자료를 전사해 질적 분석의 기초 자료로 사용했으며, 주제분석방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핵심 질문이었던 인권침해 양상을 입양의 단계별로 세분화했고 질적자료 분석에는 통합방법론용 소프트웨어인 MAXQDA2022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의 진실성과 상호 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연구자가 면접에 함께 참여했고, 소감을 나누었으며, 결과분석 후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토의하면서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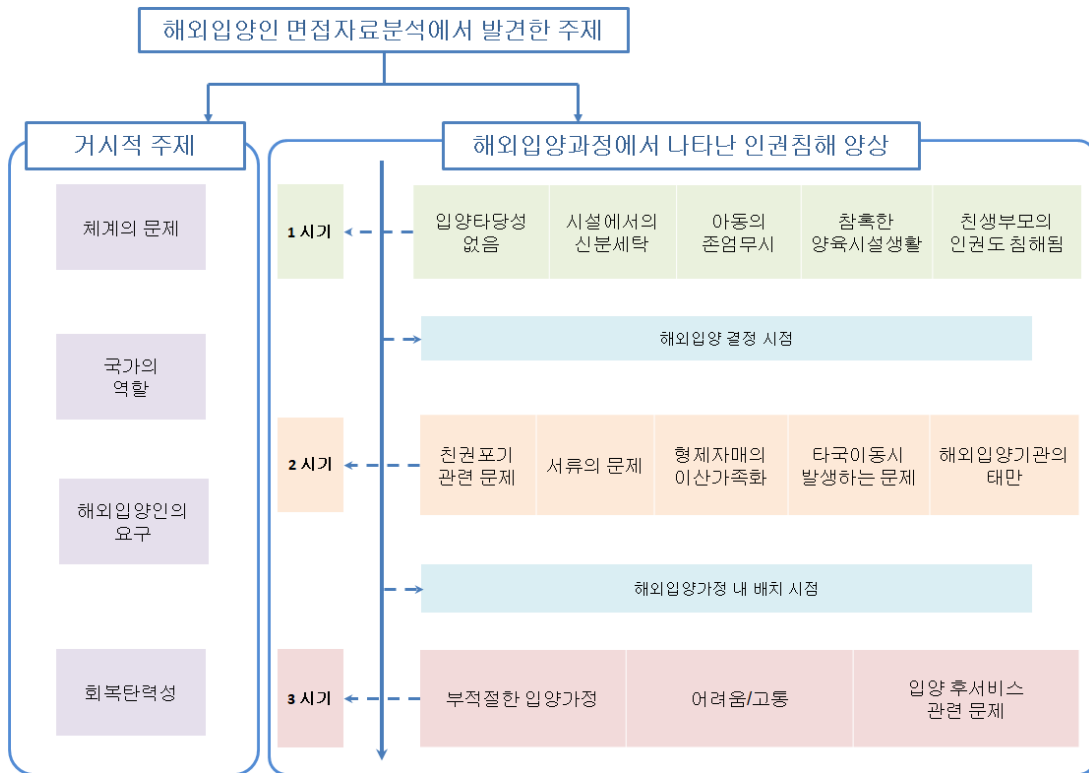
### 1) 해외입양인 질적조사

[표 1] 해외입양인 대상 질적 조사 개요

조사대상	해외입양인 39명, 해외입양인 자녀 1명 (83%가 여성, 75%가 70년대와 80년대생, 47%가 미국입양)
조사도구	자체 개발한 질문
조사방법	개인 또는 집단면접 (대면 또는 ZOOM을 활용한 화상 면접)
조사기간	2022년 6월 27일 ~ 2022년 10월 16일
조사내용	인권침해 양상과 경험, 해외입양에 대한 전반적 의견 등
참여자 모집	해외입양인 단체에 요청해 모집
참여자격	만 18세 이상 해외입양인이나 그 자녀

해외입양인을 대상으로 한 질적조사에 대한 개요는 [표 1]과 같다. 해외입양인 면접자료 분석에서 발견한 내용은 크게 2개 주제, 즉 ‘해외입양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양상’과 ‘거시적 주제’로 분류하였다. 먼저 ‘해외입양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양상’과 관련해서는 해외입양 과정을 1) 아직 입양이 결정되기 이전인 제1시기, 2) 입양이 결정된 이후부터 입양가정에 실제 배치되기 직전인 제2시기, 3) 입양가정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이후인 제3시기로 나눈 후, 면접 자료의 분석에서 떠오른 주제를 이 시기별로 분류하였다. 한편 ‘거시적 주제’와 관련해서는 해외입양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와 국가의 역할 등 거시적 관점에 관련된 주제를 별도로 정리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해외입양인 면접자료 분석에서 발견한 주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발견한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해외입양인이 가장 자주 언급한 주제는 ‘해외입양인의 상품화’였고 그 외 집중적으로 언급한 주제는 제1시기와 제2시기보다는 제3시기, 즉 입양가정에 배치된 이후 해외입양인으로서 겪은 어려움에 응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직 입양이 결정되기 전인 제1시기에는 고아가 아니었고 기아인지도 확실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해외입양이 원론적으로 타당하지 않았다는 ‘입양 타당성 없음’이라는 주제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런데도 해외입양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시설에서 신분세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신분세탁 과정을 통해 친생가족과 연결지점이 끊기고, 시설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된 채 물건처럼 취급되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시설에서 한 생활을 주로 학대, 방임, 착취, 열악한 환경으로 묘사하였다. 제1시기의 이러한 인권침해 경험은 해외입양인 자신뿐 아니라 그 친생가족의 인권침해이기도 하다는 관점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일례로, 살아있는 신생아가 사망했다고 친생부모에게 허위 보고한 후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낸 경우, 입양될 아동을 되찾으려고 즉시 찾아간 친생부모에게 아동이 아직 국내에 있는데도 이미 입양됐다고 포기할 것을 종용한 경우, 병원 권유로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

의했다가 바로 다음 날 입양 결정을 취소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며 아동을 되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이다.

셋째, 입양 결정 후 해외입양가정에 배치되기 전에 해당하는 제2시기에도 인권침해 경험이 다수 발견되었다. 일반적으로 제2시기에는 입양 타당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친권 포기, 즉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가 진행되는데, 친생부모에게 입양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거나 입양기관이 그 의미를 축소해 입양 동의를 조장한 경우, 입양기관이 친생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친인척 등 대리인의 동의를 채택한 경우 등이 나타났다. 친생부모의 ‘친권포기 관련 문제’는 언급 빈도가 높은 주제 중 하나였다. 이처럼 무리하게 해외입양을 진행하면서 입양서류를 조작하거나 많은 정보를 누락 했다는 ‘서류의 문제’도 언급 빈도가 높았다. 한편, 입양 시 친생 형제자매를 함께 배치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가 없었던 증언도 있었다. 아동의 해외이동 과정에서도 훈련받지 않은 무연고의 동반자가 아동을 이동하다가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 다수의 아동을 한 사람이 이송하다가 아동이 뒤바뀐 정황을 파악했다는 이야기, 이동이 터무니없이 오래 걸렸다는 증언 등이 있었다. 입양 수령국의 공항에 도착한 직후 원래 예정된 가정으로 가지 않고 다른 가정에 갑작스럽게 배치된 경우도 있었고, 입양부모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동의 장애가 심하다며 아동을 공항에 방치하고 간 경우도 있었다.

넷째, 입양가정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부적절한 입양가정’, ‘어려움·고통’, ‘입양사후서비스 관련 문제’ 등의 주제가 부각 되었고, 특히 ‘부적절한 입양가정’과 ‘어려움·고통’이라는 주제는 많은 하위 주제로 이어졌다. 입양가정에 배치된 이후의 삶에서 해외입양인이 직면해야 했던 환경과 이들이 겪은 어려움은 해외입양의 타당성에 대해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한다. 먼저 ‘부적절한 입양가정’은 ‘입양가정의 금전 문제’, ‘학대와 방임’, ‘정신적으로 아픈 입양부모’, ‘(입양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기준 이하의 입양부모’, ‘관계의 어려움과 갈등’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특히 학대와 방임은 해외입양인 면접자료 중에서 두드러진 주제 중 하나였고, 이는 면접조사 참여자와 양적조사 참여자 가운데 발견된 높은 학대율 과도 일관된 결과이다.

‘어려움·고통’의 경우에는 ‘법적 지위 없음·집 없음·방황’, ‘인종차별과 편견’, ‘심리적 문제,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고통’, ‘뿌리찾기에서 겪는 어려움’, ‘평생 계속되는 영향’, ‘정체성 찾기의 어려움’ 등의 하위 주제가 발견되었고, 이 하위주제 중 대부분은 코드구분화를 통해 해외입양인이 집중적으로 언급한 주제로 부각 되었다 (그림 2 참조). 인종차별과 편견은 북미와 유럽에서 지역에 무관하게 해외입양인이 보편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소속감의 부재나 불안, 고국에 오고픈 그리움으로 아린 마음, 학대 트라우마, 자살 시도 등 다양한 내용과 경중의 심리적 문제와 정신건강 문제는 입양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겪은 어려움으로 보인다. 참여자 대부분은 뿌리찾기 경험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 기록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하거나 제한된 정보에 의존해 뿌리찾기를 시도하다가 계속 실망을 겪는 것도 어려움을 가중했다. 인종차별과 뿌리찾기의 어려움은 정체성 찾기의 어려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제이다.

이 시기에 겪은 어려움·고통을 중심으로 다수의 주제가 응집한 이유 중 하나로 입양사후서비스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입양가정에서 벌어진 학대와 방임을 관련 기관이 감지하지 못한 채 방치했고 아동이 학대를 보고했어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으며, 이는 입양인의 입장에서는 버려짐의 연속이었다. 한편 해외입양인이 겪은 이러한 어려움·고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이들의 일평생 현재 진행형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면접에 참여한 해외입양인은 해외입양과정의 세 시기별로 나타난 다양한 인권침해가 해외입양을 작동하게 하는 거시적 체계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즉, 인권을 침해하는 해외입양이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은 해외입양이 구동되는 거시적 체계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 한국 해외입양기관, 한국 아동양육시설, 입양 수령국의 정부, 입양 수령국의 입양기관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아동이 친생부모에서 입양부모로 옮겨지는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양상은 관련 주체를 분절적으로 접근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체계를 구성하는 주체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아동이익이 아닌 어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체 체계가 문제이기에 입양인의 인권침해가 일어난 것이 분명한데도 그에 대한 책임자를 지명하기가 어렵다. 한편, 이 체계의 중요한 일원인 입양기관은 아동의 구원자라는 긍정적 이미지로 인식되고, 입양인은 구원이 필요했던 ‘무력아’로 그려지곤 하였다. 입양에 대한 이런 긍정적 이미지는 자신들이 서구의 ‘제국’으로 팔려 간 상품이였다는 해외입양인의 인식과는 어긋난다.

여섯째, 해외입양을 가능하게 한 체계 내에서 국가는 핵심 주체인데, 입양기관을 관리 감독하지 못하고 관련 규정을 적절히 세우지 않아 해외입양의 과잉을 방관했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었다. 면접에 참여한 해외입양인은 입양과 관련한 국가의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고, 이러한 제언과 요구의 바탕에는 ‘한국 출생인은 한국인일 권리가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는 해외입양인에게는 한국인으로 자기 정체성을 가질 권리, 박탈당한 한국 시민권을 되찾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해외입양인의 구체적 요구는 해외입양인에 대한 지원, 손상 치유, 입양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독, 입양 관련 서류관리 강화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이들은 입양 동의 단계에서 친생부모에게 입양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고 동의받을 것, 입양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허락할 것, 원가족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할 것, 입양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할 것, 입양인이 입양 수령국에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도록 지원할 것, 입양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지 감독할 것, 서류의 날조를 방지할 것, 문서를 제대로 보관할 것, DNA 검사를 보편화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일곱째, 면접에 참여한 해외입양인의 서사에는 각종 트라우마와 어려움뿐 아니라 피해와 분노 중에도 강인함과 회복 탄력적인 기질을 보여주는 대목이 많았다. 학대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자기 안전을 위해 입양가정에서 말 그대로 탈출한 이들도 있었고, 동생을 돌보는 부모 역할을 해낸 입양인도 있었으며, 입양 관련 분야의 실천가로 활동하거나 연구자가 된 경우도 눈에 띄었다.

해외입양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질적 연구결과를 보면 해외입양인 다수가 한국 정부와 한국 입양기관은 물론 입양 수령국의 입양기관이 자신들의 인권을 다양한 차원에서 침해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변화가 무엇인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원가정에서 자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한국 입양기관은 아동 이익보다는 기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서류를 날조하고, 아동 인수를 위해 병원과 아동양육시설과 협력관계를 맺고 친생부모를 속이거나, 입양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해외입양을 권유하는 등의 인권침해 행태를 자행했다.

한편 입양 수령국의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의 적격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정신적 문제 등 자격 미달의 입양부모에게 아동을 배치한 경우가 있었고 배치 후 사후관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아동이 입양가정에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로 고통받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입양부모가 직접 한국에 와서 아동을 만나보고 한국 법원에서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입양할 수 있게 한 대리입양제도가 있었기에 더욱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 해외입양제도와 실천은 아동 최선의 이익보다는 신속하고 쉬운 입양의 성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제도 안에서 좋은 입양부모를 만나 잘 성장한 입양인은 운이 좋은 경우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입양부모를 만나 잘 성장한 입양인도 대다수가 성장 과정에서 인종차별 문제로 고통을 받았고,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입양부모의 공감과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면접 참여자들은 입양기록의 위조와 기록에 대한 접근의 제한으로 자기 뿌리와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였다. 해외입양인 면접에서 언급 빈도가 높았던 주제를 시각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코드구름 시각화

## 2) 해외입양 친생부모 질적조사

해외입양인 친생부모를 대상으로 한 질적조사에 대한 개요는 [표 2]와 같다. 연구를 통해 1973년부터 2001년 사이에 자녀를 입양 보낸 해외입양 친생부모 5명에 대한 개별면접을 진행하였다. 해외입양 친생부모에 대한 면접은 어려서 입양된 해외입양인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입양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녀를 입양 보낸 친생부모 자신의 경험이자 입양 당시의 해외입양인 인권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표 2] 해외입양 친생부모 대상 질적 조사 개요

<b>조사대상</b>	해외입양 친생모 2명, 해외입양 친생부 3명 (친생부모는 60대가 2명, 40대, 70대, 80대 각 1명임. 5명의 친생부모가 딸 5명, 아들 4명 총 9명의 자녀를 해외로 입양 보냄.) 해외입양 시기는 1970년대 1명, 1980년대 3명, 2000년대 1명임. 친생부모 5명 모두 입양자녀 찾기 또는 재회의 경험이 있음. 입양자녀 9명 중 1명은 찾지 못함. 나머지 8명은 연락하거나 재회함.)
<b>조사도구</b>	자체 개발한 질문지
<b>조사방법</b>	개인면접 (대면 또는 ZOOM을 활용한 화상면접)
<b>조사기간</b>	2022년 7월 21일 ~ 2022년 9월 16일
<b>조사내용</b>	해외입양 친생부모 경험, 입양절차와 재회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양상, 해외입양에 대한 전반적 의견 등
<b>참여자 모집</b>	해외입양 친생부모 단체와 친생가족 재회 해외입양인에게 요청해 모집
<b>참여자격</b>	만 18세 이상 해외입양인을 둔 친생부모

해외입양 친생부모 면접질문은 본 연구의 과제인 해외입양인의 인권 실태와 친권침해 현황, 인권 개선을 위한 과제 도출이라는 목적을 중심으로 친생부모가 겪은 해외입양 절차와 재회 과정 전반에서의 경험과 해외입양에 대한 의견 등을 주제별로 질문하였다. 해외입양 친생부모 면접을 통해 발견한 내용은 해외입양 친생부모의 ‘입양 결정’, ‘입양 동의’ 그 이후 이어지는 ‘헤어짐’, ‘재회와 이후’ 과정까지를 순차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생부모의 시각에서 본 해외입양과 해외입양인, 친생부모 인권’을 함께 정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발견한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입양 친생부모는 대부분 자녀 양육 과정에서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됨으로써 자녀를 입양 보내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먼저 친생모는 경제적 상황 악화, 주거 상황의 불안정, 배우자의 생계 지원 부족으로 인한 가족부양의 한계, 자녀 돌봄과 가족부양 병행의 어려움, 배우자와의 불화와 신뢰 손상, 원가족의 지원 부재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친생모 혼자 힘으로는 자녀 양육을 지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직접 양육을 하다 자녀를 보낸 친생모와 비교하면 친생부는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덜 경험했으며, 혼인 상태의 변화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양육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상태로 동거하다가 동거녀가 임신 중 관계가 나빠져 출산 이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이혼 후 어린 두 자녀를 직접 돌보려 했지만 포기하고 부모에게 부탁했다가, 그곳에서도 사정이 생겨 아이들이 외가로 보내진 후 연락이 끊긴 사례도 있었다. 기혼 상태에 있던 친생부는 시골에서 소도시로 이사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출산한 아내가 출산 과정에서 큰 수술을 받게 돼 수술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병원의 권유로 아이들을 포기하게 된 경우였다.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해외입양 친생부모는 가족이나 친지 등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낄 때, 아이를 보호해 줄 대안으로 해외입양을 주변 사람이나 병원에서 권유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권유의 문제점은 해외입양이라는 제도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녀와의 헤어짐이 일시적이고 해외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은 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이해하거나, 당장 자신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대신 해결해 주는 대가로 자녀를 포기하는 등 해외입양으로 부적절하게 유인되는 점이었다.

둘째, 해외입양을 결정 과정이 자녀가 해외입양을 간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친생부모는 대부분 해외입양에 관해 잘 알지 못하였고, 몇몇 친생부모는 자녀를 기관 실무자에게 인계하면서도 자기 자녀가 해외로 입양 간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입양기관의 담당자가 친생부모에게 자신들이 누구이며, 해외입양이 무엇이고, 그것이 자신과 자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입양 결정 과정에서 전혀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친생부모 중에는 자녀를 아동양육시설에서 일정 기간 맡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국내 가정으로 입양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해외입양을 직접 결정한 친생부모라도 해외입양 후 자녀와 자기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 친생부모로서 자신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입양 결정 후 자신과 자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입양 결정 후 취소는 할 수 있는지, 입양 후 재회는 가능한지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이나 상담을 통해 이해하고 입양 결정을 내린 경우는 거의 없었다. 심지어는 해외입양 결정이 친생부·친생모의 동의도 없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자녀의 해외입양 결정이 친생부모의 부모나 친지 또는 아동양육시설 관계자에 의해 친생부모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내려진 것이다. 해외입양 절차를 개시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친생부모의 동의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입양이 친생부모의 동의를 거치지 않거나 친생부모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법적 효력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해외입양 친생부모는 자녀의 해외입양을 결정하고 곧바로 자녀를 떠나보내는 경험을 했거나, 자신이 인지하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하는 상황에서 자녀가 해외로 입양 보내진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부모로서 자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자녀를 떠나보낸 상황에서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겪게 하였다.

해외입양으로 자녀와 헤어진 친생부모는 대부분 자기 결정을 끊임없이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지냈다. 친생부모는 아무리 사정이 어려웠어도 아이를 보내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했다며, 아이에게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두고 나온 것이 아이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지 염려하였으며, 당시에 경황이 없는 가운데 성급히 판단한 것이었다고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였다.

아이를 아무도 모르는 이국으로 보냈다는 후회는 아이 소식을 전혀 들을 길이 없는 막막함 때문에 친생부모를 더욱더 힘들게 했다. 해외입양 보낸 후 자녀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가 잘 지내는지 걱정하면서 견디어야만 하는 상황에서도 친생부모는 공식적인 상담을 받거나, 주위 사람들로부 터 진심 어린 위로를 받을 수 없어 혼자서 모든 고통을 남모르게 감당하며 살아가야만 했다.

자녀와의 분리에 따른 공허함, 알코올 중독, 자살 충동, 자살 시도 등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상당한 수준의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상당한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친생부모 대부분은 자신이 자녀를 입양 보냈다는 사실을 주위에 알리지조차 못한 채 혼자 슬픔과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 이러한 자녀와 헤어진 이후의 고통은 시간이 감에 따라 점차 줄어들었지만, 어떠한 외부 도움도 없이,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힘든 상황을 혼자 감내하는 일상을 살아내어야 하였다.

해외입양 친생부모가 자녀를 보내고 난 뒤에 겪은 심리적 고통과 죄책감, 후회, 자녀에 대한 걱정은 상상 이상으로 컸고, 이런 상황에서 친생부모는 자연히 자신의 입양 결정을 번복하고 자녀의 해외입양을 취소할 방법을 찾고자 입양기관이나 자신이 자녀를 입양 보냈던 병원을 찾아 문의하곤 하였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어떤 입양기관에서 자녀를 데리고 갔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입양기관에서는 친생부모에게 해외입양 결정 취소 권한이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외입양 결정은 한번 내려지면 '번복할 수 없다'라고 사실과 다른 말을 했고, 자녀를 포기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아이가 분명히 국내에 있는데도 이미 해외로 입양되어 떠났으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해외입양 친생부모의 입양취소 요구를 거절하거나 포기하게 했다.

어떤 친생부모는 아동의 입양을 결정할 당시 해외로 입양된 자녀가 성인이 되면 찾아올 거라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자녀가 찾아올 날만 기다렸는데 막상 찾아오지 않자 우울을 겪었다. 해외입양 당시 는 물론 지금도 친생부모에게는 입양자녀를 찾을 권리나 자격이 없으며, 자녀가 친생부모를 찾고자 할 때만 만날 수 있다.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자기 자녀들이 해외로 입양 갔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해외입양인 가족찾기 방송을 아침마다 챙겨보고 기다림의 나날을 견뎌야 했던 친생부모도 있었다. 친생부모는 자녀와의 재회는 아니더라도 자녀가 잘 지내고 있는지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연락처가 바뀔 때마다 입양기관을 방문해 자기 정보를 수정하면서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자식을 마냥 기다리는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했다.

넷째, 친생부모는 오랫동안 입양자녀를 찾고 기다렸지만, 정작 친생부모와 입양자녀가 서로를 확인하는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정작 입양자녀가 친생부모를 찾고자 입양기관을 방문한 경우에도 원활하게 친생부모 찾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못하였고, 친생부모가 자기 기록을 정확하게 남기고 입양기관에 수시로 변동 상황을 알려 정보를 업데이트해 놓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이미 가족으로 기록된



적이 있었을 때만 연락과 상봉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친생부모에게 재회 의사를 확인하는 연락 방식이 지나치게 간소해 친생부모가 지나쳐 버리거나, 친생부모가 남긴 자녀의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연락해 와서 상봉하지 못 할 뻔한 경우도 발생하였으며, 친생부모가 연락처를 남겨두었더라도 입양기관의 착오로 연락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공식적 절차로 재회에 실패하였지만, 다행히 DNA를 통한 가족찾기로 연락된 경우도 있었다.

해외입양인 친생부모는 재회의 자리에서 오랜 기다림과 어려운 가족찾기 과정을 거쳐 자녀를 상봉한 기쁨도 크지만, 오랫동안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해 온 해외입양인 자녀와 한국 문화에만 익숙한 친생부모 간 문화적, 언어적 간극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자녀를 입양 보낸 이후 다른 배우자와 새롭게 가정을 이룬 친생부모는 입양자녀의 존재를 알려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때 입양자녀의 존재를 알릴 경우 배우자와 가족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또 입양자녀를 가족으로 잘 받아들여 줄지를 걱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친생부모 중 해외입양인 자녀의 친모와 결혼해서 살거나, 혼자 살고 있는 친생부모의 경우는 해외입양인 자녀의 존재를 알릴 필요가 없었지만, 나머지는 모두 배우자에게 알리는 것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배우자가 자신에게 약속한 것과는 달리 자녀에게 친밀하게 대해 주지 않았을 때 상처받기도 하였으며, 배우자에게 입양 사실을 알림으로써 자신이 위축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해외입양 친생부모는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룬 자녀와의 재회를 ‘행복의 시작’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서로 거리를 조금씩 좁혀가는 ‘새로운 시작’에 가까운 경험이었음을 알아가게 된다. 이들은 서로 조심스럽게 지난 아픔과 어려움을 말하고, 듣고 조금씩 알아가는 기나긴 여정을 함께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차이를 인정해가는 과정을 밟아가게 된다. 실제로 입양자녀와 친생부모 모두 재회 이후 상당 기간, 과거 입양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를 재경험하면서 심리적 우울과 무기력,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입양인은 입양 수령국에서 심리치료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국내의 친생부모는 자기감정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나 전문적 상담을 받을 곳도 없이 외롭고 힘겹게 재회 이후의 트라우마를 감당해야 했다. 이처럼 많은 친생부모는 입양자녀와의 재회를 오랜 기다림의 끝으로 여겼지만, 실제로는 지난 시간의 아픔과 차이, 트라우마와 상처를 함께 나누고 조금씩 이해해가는 긴 여정의 새로운 시작에 더 가까웠다.

다섯째, 본 연구에 참여한 친생부모 5명 모두는 만약 다시 자녀를 입양 보낸 그때로 돌아가 다시 결정하게 된다면 입양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제는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원가족과 헤어지지 않고 한국에서 성장하게 하고, 더는 해외로 입양 보내지 않아도 되길 바랐다. 이러한 대답은 해외입양이 무조건 나쁜 면만 있는 것도 아니며, 해외입양을 간 자녀의 삶이 한국에서 살

았을 삶보다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친생부모로서 겪은 고통은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큰 고통이었으며, 입양자녀가 훌륭히 자라줘서 고맙기도 하지만, 성장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이겨 냈을지를 아는 부모의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해외입양 친생부모는 정부나 입양기관이 자신과 자녀들의 인권을 잘 지켜주지 못했다고 인식하였다. 입양기관은 친생부모에게 입양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없이 얼마 안 되는 돈을 건네면서 애를 사간 거나 마찬가지로 강하게 비판하였다. 자신의 아이가 해외로 입양될 것이라는 사실만 알았더라도 어린 나이에 해외까지 가서 차별받게 하느니 어떻게 해서라도 직접 키웠을 거라고 토로하였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도 먹고사는 데는 걱정이 없었는데 너무 많은 아이를 해외로 입양 보냈다고 하면서, 이제 더는 해외로 아이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해외입양 친생부모는 해외입양의 결정에서 가족찾기와 재회 이후까지 한국 해외입양 제도 안에서 친생부모와 입양인 자녀가 겪은 인권 침해의 현실에 우려를 표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려면 지금까지 정부나 입양기관이 접근해 온 방식이 전면적으로 달라져야 하는데, 특히 입양기관이 재회를 원하는 친생부모와 입양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연결해 줘야 하며, 그 과정에서 친생부모를 무시하거나 죄인처럼 대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대신 최소한의 인권과 존엄성 있는 존재로 존중하는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해외입양 친생부모가 자녀의 해외입양 전후 모든 과정에서 경험한 인권침해 양상은 해외입양인이 경험하는 인권침해 문제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이는 해외입양에서 아동의 인권과 최선의 이익 보장은 친생부모의 인권보장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 해외입양 친생부모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변화 속도는 매우 느리고, 친생부모 당사자가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개선을 요구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전체 해외입양 제도와 실천을 개선하는 노력을 꾀할 때는 특별히 친생부모의 인권보장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 양적 연구

####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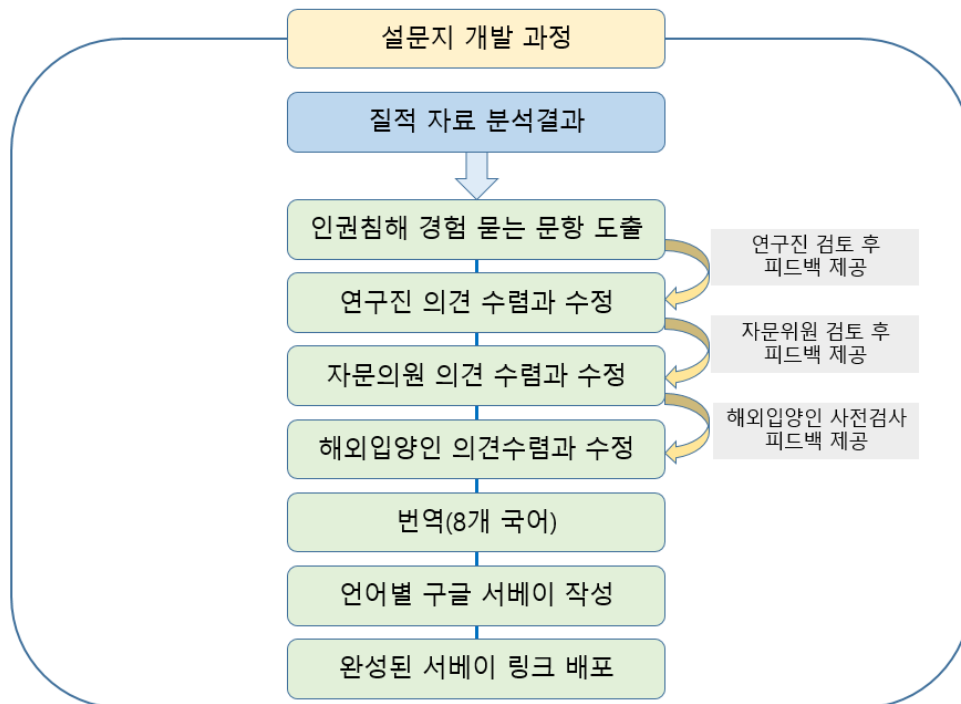
본 양적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자체적으로 개발해 해외입양인 단체를 통해 설문을 홍보·소개하고 응답 링크를 배포하였다. 온라인 설문 기간은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이었다(표 3 참조).

[표 3] 양적 조사 개요

조사대상	해외입양인 658명
조사도구	자체 개발한 설문
조사방법	비대면 구글 서베이
조사기간	2022년 10월 20일 ~ 2022년 11월 30일
조사내용	인권침해 양상과 경험, 해외입양에 대한 전반적 의견 등
참여자 모집	해외입양인 단체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설문 조사 홍보와 권유 요청
참여자격	만 18세 이상 해외입양인

## 2) 설문지 개발과 자료수집, 분석방법

[그림 3]은 설문지 개발과정을 보여준다. 먼저 해외입양인과 친생부모에 대한 질적 자료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개발했다. 설문 초안을 본 연구진 내부 사전검사를 통해 1차 수정하였다. 이후 외부 자문위원 8명의 의견을 수렴한 후 2차 수정하고, 해외입양인의 사전검사와 의견 수렴 후 3차 수정하였다. 개발한 영어 설문은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불어, 독어, 이탈리아어, 노르웨이어, 스웨덴어로 번역해, 총 8개 국어로 된 설문지를 준비하였다. 번역한 설문은 구글 서베이를 활용해 온라인 응답이 가능하게 했다.



[그림 3] 설문지 개발 과정

설문지는 총 12개 영역, 136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집한 자료는 SPS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해 빈도와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에 참여한 해외입양인 658명을 표본으로 삼고 최종 분석하였다.

### 3) 일반적 특성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4] 인구사회학적 특성

n=658

구분	n	%	
현재 성별	남성	124	18.8
	여성	510	77.5
	제3의 성	20	3.0
	트랜스젠더	1	0.2
	밝히고 싶지 않음	2	0.3
	기타	1	0.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	1.7
	고등학교 졸업	48	7.3
	2년제 혹은 3년제 졸업	134	20.4
	학사 졸업	203	30.9
	석사 졸업	214	32.5
	박사 졸업	48	7.3
현재 혼인 상태	미혼	159	24.2
	기혼	285	43.3
	동거	93	14.1
	사별	4	0.6
	이혼	80	12.2
	별거	23	3.5
	기타	14	2.1
현재 경제 상태	매우 낮음	43	6.5
	낮음	105	16.0
	보통	243	36.9
	높음	226	34.3
	매우 높음	41	6.2

[표 4]는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여준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여성(510명, 77.5%)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최종 학력은 석·박사 졸업자(262명, 39.8%)와 학사 졸업자(203명, 30.9%)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 참여자의 약 70%가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가졌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혼인상태는 기혼이나 동거가 378명(57.4%)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미혼, 사별, 이혼, 별거 등은 280명(42.6%)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제 상태는 보통 수준 이상(510명, 77.4%)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약 80%에 이르러 대다수가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약 5명 중 1명은 경제 상태가 낮거나 매우 낮은 것으로 응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구 참여자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2) 입양 관련 일반적 사항

연구 참여자의 입양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은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연구 참여자는 홀트아동복지회(277명, 43.3%)를 통해 가장 많이 해외로 입양되었고 한국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아동복지회가 그 뒤를 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해외입양인 중 개인적으로 입양된 사람이 10명(1.6%)이었고,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도 22명(3.4%)이나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해외입양이 입양기관 외 다른 경로로도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 해외입양 아동 수의 공식적인 통계가 실제 통계보다 적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표 5] 입양 관련 일반적 사항

n=658

구분	n		%	
	n	%	n	%
한국에서 입양을 주도한 주체	홀트아동복지회	277	43.3	
	사회복지회	142	22.2	
	대한사회복지회	96	15.0	
	동방사회복지회	91	14.2	
	개인 입양	10	1.6	
	기타	2	0.3	
	모름	22	3.4	
	무응답	18	-	

구분	실제 출생년도		입양서류에 표기된 출생년도	
	n	%	n	%
1950년대	10	1.5	11	1.7
1960년대	74	11.2	72	10.9
1970년대	313	47.6	316	48.0
1980년대	216	32.8	214	32.5
1990년대	37	5.6	37	5.6
2000년대	8	1.2	8	1.2
구분	n		%	

출생연도의 차이 (실제-입양서류)	입양 당시 국가명		현재 거주하는 국가	
	n	%	n	%
-2세 이하 차이			9	1.4
-1세 차이			14	2.1
차이 없음			610	92.7
+1세 차이			19	2.9
+2세 이상 차이			6	0.9
국적	입양 당시 국가명		현재 거주하는 국가	
	n	%	n	%
미국	202	33.2	222	33.7
덴마크	98	16.1	92	14.0
스웨덴	65	10.7	64	9.7
네덜란드	54	8.9	51	7.8
노르웨이	50	8.2	49	7.4
벨기에	41	6.7	36	5.5
독일	31	5.1	26	4.0
프랑스	27	4.4	19	2.9
오스트레일리아	17	2.8	14	2.1
캐나다	5	0.8	6	0.9
룩셈부르크	2	0.3	2	0.3
이탈리아	2	0.3	3	0.5
기타	14	2.3	69	10.5
무응답	50	-	-	-

연구 참여자의 실제 출생 연도는 1970년대(313명, 47.6%)와 1980년대(216명, 32.8%)가 가장 많았다. 실제 나이와 출생 연도의 차이를 계산했을 때는 차이가 없는 경우가 610명(92.7%)이었지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참여자도 48명(7.3%)이나 있었다. 특히 입양서류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세 이상 많은 것으로 기재된 경우가 25명(3.8%)이나 되었는데, 한두 살 차이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발달상 큰 차이로 이어지는 영유아기에는 입양 후 겪는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본 질적 연구에 참여한 해외입양인 중에는 입양 서류에 기재된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2살 많아 입양부모가 입양인을 지적 지체가 있는 아동으로 여겨 입양가정에서 계속해서 어려움과 갈등을 겪은 경우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가 가장 많이 입양된 국가는 미국 202명(33.2%), 덴마크 98명(16.1%), 스웨덴 65명(10.7%), 네덜란드 54명(8.9%), 노르웨이 50명(8.2%) 순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해외로 입양된 아동의 약 67.0%가 미국으로 간 것을 고려하면(이상정 외, 2018) 본 연구는 미국 해외입양인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 (3) 친생 형제자매에 관한 정보

[표 6]는 연구 참여자 10명 중 2명 이상은 자신이 친생 형제자매와 같은 집으로 입양되었는지 모르

고, 10명 중 5명 이상은 자신의 친생 형제자매는 각자 다른 입양가정으로 입양되었는지를 몰랐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입양서류 대부분에는 친생 형제자매에 관한 정보가 적혀있지 않으므로 친생가족과 재회하지 않았으면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6] 친생 형제자매에 관한 정보

n=658

문항	예 n (%)	아니오 n (%)	모름 n (%)	합계
1. 나는 나의 친생 형제자매와 같은 집으로 입양되었다.	52 (8.2)	437 (69.1)	143 (22.6)	632
	52 (10.6)	437 (89.4)		489
2. 나의 친생 형제자매는 각자 다른 입양가정으로 입양되었다.	34 (5.3)	266 (41.6)	339 (53.1)	639
	34 (11.3)	266 (88.7)		300

Note.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친생 형제자매에 관해 아는 연구 참여자만의 응답을 분석해보면 10명 중 약 9명(89.4%)은 자신이 친생 형제자매와 같은 집으로 입양되지 않았고, 10명 1명 이상(11.3%)은 자신의 친생 형제자매는 각자 다른 입양가정으로 입양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친생 형제자매를 최대한 같은 가정에 입양 보내려는 노력이 미흡했음을 반영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질적연구에 참여한 해외입양인도 지적한 사항이다.

#### 4) 주요 변수 분석 결과

##### (1) 인권보호

###### ① 인권보호

[표 7]은 한국 입양기관이 입양인의 인권을 얼마나 충분히 보호했는지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생각을 보여준다. 한국 입양기관의 경우, 연구 참여자의 70% 이상이 모든 항목에서 한국 입양기관이 자신들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의 95% 이상은 입양기관이 자신이 원가족에서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해외입양을 고려하기 전에 자신의 국내입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표 7] 한국 입양기관의 인권보호 충분성에 대한 인식

n=658

(한국 입양기관은...)	동의	비동의
	n (%)	n (%)
1. 나의 해외입양 절차 과정에서 나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했다.	96 (21.5)	350 (78.5)
2. 내가 원가족에서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14 (3.9)	343 (96.1)
3. 입양 배치과정에서 나와 내 형제의 분리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37 (17.1)	180 (82.9)
4. 해외입양을 고려하기 전 나의 국내입양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17 (5.0)	325 (95.0)
5. 나의 출생과 원가족에 관한 기록을 적절하게 보관했다.	136 (31.3)	298 (68.7)
6. 내가 나의 출생과 원가족 기록에 접근할 권한을 주었다.	153 (29.5)	365 (70.5)

Note 1.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Note 2. '매우 동의'와 '동의'로 답한 내용은 '동의', '매우 동의하지 않음'과 '동의하지 않음'으로 답한 내용은 '비동의'로 recoding해 분석함.

한편 [표 8]은 한국 정부가 입양인의 인권을 얼마나 충분히 보호했는지에 대한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의 90% 이상은 모든 항목에서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한국 입양기관보다 한국 정부의 인권보호 노력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한국 정부는 해외입양에 앞서 자기 친생부모를 적절히 지원하지 못했고(97.5%), 불필요한 해외입양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98.1%)고 응답하였다.

[표 8] 한국 정부의 인권보호 충분성에 대한 인식

n=658

(한국 정부는...)	동의	비동의
	n (%)	n (%)
1. 나의 해외입양절차에서 나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했다.	43 (9.0)	436 (91.0)
2. 나의 해외입양 과정에서 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35 (7.4)	437 (92.6)
3. 나의 해외입양에 앞서서 친생부모를 적절하게 지원했다.	10 (2.5)	395 (97.5)
4. 불필요한 해외입양을 막기 위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9 (1.9)	474 (98.1)

Note 1.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Note 2. '매우 동의'와 '동의'로 답한 내용은 '동의', '매우 동의하지 않음'과 '동의하지 않음'으로 답한 내용은 '비동의'로 recoding해 분석함.



## (2) 입양인이 입양 전에 경험했던 인권침해 사실

## ① 친권포기와 관련된 사실과 경험

[표 9]는 연구 참여자의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생각을 보여준다. 연구에 참여한 해외입양인의 약 50~80%는 친권포기 관련 사실과 경험을 묻는 문항에 대부분에 모른다고 대답했다.

[표 9] 친권포기와 관련된 사실과 경험

				n=658
문항	예 n (%)	아니오 n (%)	모름 n (%)	합계
1. 내 친생부모는 입양의 의미와 영향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았다.	82 (13.1)	53 (8.4)	493 (78.5)	628
	82 (60.7)	53 (39.3)		135
2. 나의 친생부모는 입양을 위해 친권을 포기하라는 강압을 받았다.	76 (12.1)	98 (15.6)	455 (72.3)	629
	76 (43.7)	98 (56.3)		174
3. 나는 친생모가 모르게 입양되었다.	90 (14.2)	167 (26.3)	378 (59.5)	635
	90 (35.0)	167 (65.0)		257
4. 나는 친생부가 모르게 입양되었다.	111 (17.8)	115 (18.4)	398 (63.8)	624
	111 (49.1)	115 (50.9)		226
5. 나는 친생모의 의사에 반해 입양되었다.	83 (13.1)	105 (16.6)	444 (70.3)	632
	83 (44.1)	105 (55.9)		188
6. 나는 친생부의 의사에 반해 입양되었다.	57 (9.4)	101 (16.6)	450 (74.0)	608
	57 (36.1)	101 (63.9)		158
7. 나의 친생부모는 나의 입양절차를 중단하고 싶어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46 (7.5)	102 (16.6)	465 (75.9)	613
	46 (31.1)	102 (68.9)		148
8. 나는 내가 유괴되었다고 생각한다.	54 (8.8)	240 (39.0)	322 (52.3)	616
	54 (18.4)	240 (81.6)		294
9. 고아호적을 가지고 있거나 기아로 보고되었지만, 고아/기아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불충분하다.	233 (37.9)	173 (28.1)	209 (34.0)	615
	233 (57.4)	173 (42.6)		406
10. 고아호적을 가지고 있거나 기아로 보고되었지만, 고아/기아라는 것에 반하는 증거가 있다.	134 (21.9)	191 (31.2)	287 (46.9)	612
	134 (41.2)	191 (58.8)		325

Note.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러한 결과는 해외입양인이 주로 영유기 때 입양되었으므로 친생부모와 재회하지 않았다면 정확히 알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많은 입양인이 입양서류에 담긴 내용을 믿지 못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와 관련된 사실과 경험을 안다고 응답한 연구 참여자 중 약 반수 이상은 친생부모가 입양의 의미와 영향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았고(60.7%), 고아호적을 가지고 있거나 기아로 보고되었지만, 고아/기아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불충분하고(57.4%), 자신이 친생부 모르게 입양되었다(49.1%)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도 40% 이상이 자신이 친생모의 의사에 반해 입양되었고(44.1%), 자신의 친생부모가 입양을 위해 친권을 포기하라는 강압을 받았고(43.7%), 고아호적을 가지고 있거나 기아로 보고되었지만, 고아/기아라는 것에 반하는 증거가 있다(41.2%)고 하였다.

② 한국 시설(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등)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점

[표 10] 한국 시설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점

n=658

문항	예 n (%)	아니오 n (%)	모름 n (%)	합계
1. 한국 양육시설에서 새로운 이름과 나이를 부여받았다.	235 (37.1)	162 (25.6)	237 (37.4)	634
	235 (59.2)	162 (40.8)		397
2. 한국 양육시설에 있을 때 노동을 해야만 했다. (청소, 아동 돌봄, 과도한 허드렛일)	16 (2.8)	418 (72.1)	146 (25.2)	580
	16 (3.7)	418 (96.3)		434
3. 한국 양육시설에서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	34 (5.5)	178 (28.6)	410 (65.9)	622
	34 (16.0)	178 (84.0)		212
4. 한국 양육시설에서 성적 학대를 당했다.	13 (2.1)	196 (31.6)	412 (66.3)	621
	13 (6.2)	196 (93.8)		209
5. 입양 배치 전에 학대받았던 것으로 의심되는 흉터가 몸에 있다	77 (12.4)	367 (59.1)	177 (28.5)	621
	77 (17.3)	367 (82.7)		444
6. 한국 양육시설은 옷과 음식, 교육이 부족했고, 위생불량, 영양실조, 그리고/또는 인원 과밀이 있었다.	121 (19.5)	90 (14.5)	409 (66.0)	620
	121 (57.3)	90 (42.7)		211

Note.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한국 시설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연구 참여자의 약 90%가 모르거나 없었다고 답하였다(표 10 참조). 이는 대다수의 해외입양인이 영유아기에 입양되었으므로, 입양 전 상황에 관해서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한국 시설 경험을 기억하고 응답한 연구 참여자 중 반수 이상은 시설에서 새로운 이름과 나이를 부여받았고(59.2%), 시설에 옷과 음식, 교육이 부족하고, 위생불량, 영양실조, 과밀 인원의 문제가 있었다고 응답해 한국 시설이 아동양육에 적절하지 않은 환경이었음을 시사하였다.

### ③ 해외입양 수령국으로 이동하는 동안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점

입양 수령국으로 이동하는 동안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기억하거나 누군가가 알려줘서 알고 있는 연구 참여자 대다수는 문제가 없었다고 했지만, 약 10%는 이동하는 동안 문제가 있었고, 자신을 인도해준 사람이 자신을 입양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인도했다고 응답해 대리입양제도가 수반하는 수많은 문제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표 11 참조).

[표 11] 해외입양 수령국으로 이동하는 동안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점

문항	예	아니오	모름	합계
	n (%)	n (%)	n (%)	
1. 입양 수령국으로 이동하는 동안 문제가 있었다. (예: 이동하는 동안 적절한 아동보호가 없었다.)	30 (4.7)	251 (39.7)	352 (55.6)	633
	30 (10.7)	251 (89.3)		281
2. 나를 인도해준 사람은 나를 입양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였다.	37 (5.9)	458 (73.4)	129 (20.7)	624
	37 (7.5)	458 (92.5)		495

n=658

Note.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3) 입양서류에 관한 이슈

#### ① 입양서류 정보의 정확성과 포괄성

입양서류 정보의 정확성과 포괄성을 묻는 문항 대부분에 대해 연구 참여자의 약 35%에서 60% 정도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표 12 참조). 실제로 해외입양인이 친생부모와 재회를 안 했다면 입양서류가 얼마나 정확하고 포괄적인지를 알기 어렵다. 다만 자신의 입양서류 정보에 관해 알고 있는 연구 참여자 중 다수는 자신의 배경정보가 정확하지 않았고, 아동인수 보고서와 아동발달 보고서가 정확하지도, 포괄적이지도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표 12] 입양서류 정보의 정확성과 포괄성

n=658

문항	예	아니오	모름	합계
	n (%)	n (%)	n (%)	
1. 기본 인적 사항이 정확하였다. (예: 출생일)	221 (34.2)	143 (22.1)	283 (43.7)	647
	221 (60.7)	143 (39.3)		364
2. 입양서류에 있는 나의 배경정보는 정확했다. (예: 친생부모의 사회적 정보, 나를 포기한 사유 등)	95 (15.1)	247 (39.3)	287 (45.6)	629
	95 (27.8)	247 (72.2)		342
3. 나의 아동인수 보고서에는 나의 배경정보가 적혀있지 않았다	302 (46.8)	115 (17.8)	228 (35.3)	645
	302 (72.4)	115 (27.6)		417
4. 나의 아동인수 보고서는 정확하였다.	89 (13.9)	201 (31.4)	351 (54.8)	641
	89 (30.7)	201 (69.3)		290
5. 나의 아동인수 보고서는 포괄적이었다.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75 (11.6)	343 (53.0)	229 (35.4)	647
	75 (17.9)	343 (82.1)		418
6. 나의 아동발달 보고서는 정확하였다.	115 (18.1)	131 (20.6)	389 (61.3)	635
	115 (46.7)	131 (53.3)		246
7. 나의 아동발달 보고서는 포괄적이었다.	105 (16.4)	259 (40.5)	275 (43.0)	639
	105 (28.8)	259 (71.2)		364
8. 나의 의료정보는 정확하였다.	160 (24.7)	126 (19.5)	361 (55.8)	647
	160 (55.9)	126 (44.1)		286
9. 나의 의료정보는 포괄적이었다.	112 (17.4)	261 (40.5)	271 (42.1)	644
	112 (30.0)	261 (70.0)		373
10. 나의 입양서류에 있는 원가족에 관한 기록은 잘못되었다.	168 (27.0)	192 (30.8)	263 (42.2)	623
	168 (46.7)	192 (53.3)		360
11. 나는 다른 아이로 바뀌었다. (예: 나는 다른 아이의 정보를 가지고 그 아동 대신 입양가정에 배치되었다.)	16 (2.5)	300 (47.0)	322 (50.5)	638
	16 (5.1)	300 (94.9)		316

문항	예	아니오	모름	합계
	n (%)	n (%)	n (%)	
12. 나는 누락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입양서류 정보로 인해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했다.	321 (55.3)	178 (30.7)	81 (14.0)	580
	321 (64.3)	178 (35.7)		499
13. 나는 누락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입양서류 정보로 인해 법적문제를 겪었다. (예: 시민권)	52 (9.0)	467 (80.5)	61 (10.5)	580
	52 (10.0)	467 (90.0)		519

Note.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연구 참여자 10명 중 6명 이상은 누락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입양서류 정보로 인해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했고, 10명 중 1명은 법적 문제를 겪었다. 이는 고아호적 관행과 같이 입양기관에서 입양절차의 편의를 위해 별 생각 없이 한 기록의 위조가 해외입양인 당사자의 삶과 정신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인지를 절감하게 한다.

#### (4) 해외입양 후 경험한 인권침해 경험

##### ① 입양가정 내 아동학대 경험

본 연구에 참여한 해외입양인 10명 중 3명 정도는 입양가정에서 신체학대나 성적 학대, 정서학대, 방임 중 적어도 1개 이상의 아동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표 13] 입양가정 내 아동학대 경험

n=658			
예		아니오	
n	%	n	%
217	33.5	431	65.5

Note. 무응답은 결측값으로 처리함.

##### ② 주요 아동학대 가해자

연구 참여자 중 10명 중 2명(142명, 21.6%) 이상이 신체적 학대를 경험했는데, 가해자로는 약 10명 중 7명이 입양모를 지목했고, 그다음으로 입양부를 지목했다. 정서적, 심리적 학대는 10명 중 약 3명(190명, 28.9%)이 경험했는데, 가해자로는 10명 중 8명 이상이 입양모를, 10명 중 5명 이상이 입양부를 지목하였다. 반면 성적 학대는 10명 중 1명 이상(89명, 13.5%)이 경험했는데, 10명 중 4명 이상이

가해자로 입양부를 지목했고, 10명 중 3명 이상이 입양 형제자매(28명, 31.5%), 10명 중 2명 이상이 입양가족의 친척(23명, 25.8%)을 지목하였다. 마지막으로 10명 중 약 2명(113명, 17.2%)이 방임을 경험했는데, 10명 중 9명이 입양모를, 10명 중 약 7명이 입양부를 가해자로 지목하였다(표 14 참조).

[표 14] 주요 아동학대 가해자

n=658

문항	전체 n (%)	입양부 n (%)	입양모 n (%)	입양 형제 자매 n (%)	입양 가족의 친척 n (%)	입양 가족 중 다른 사람 n (%)	위탁 가정 n (%)
1. 나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람	142 (21.6)	68 (47.9)	99 (69.7)	32 (22.5)	11 (7.7)	5 (3.5)	2 (1.4)
2. 나를 정서적 심리적으로 학대한 사람	190 (28.9)	97 (51.1)	156 (82.1)	41 (21.6)	27 (14.2)	16 (8.4)	2 (1.1)
3. 나를 성적으로 학대한 사람	89 (13.5)	37 (41.6)	6 (6.7)	28 (31.5)	23 (25.8)	10 (11.2)	3 (3.4)
4. 나를 방임한 사람	113 (17.2)	79 (69.9)	102 (90.3)	10 (8.8)	12 (10.6)	6 (5.3)	2 (1.8)

Note. 복수응답

③ 해외입양가정의 파양으로 경험한 어려움

[표 15]는 해외입양인의 파양과 관련해서 경험한 어려움을 보여준다. 연구 참여자 중 10명 중 3명 이상은 자신의 첫 번째 입양부모가 입양하기에 적절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10명 중 거의 1명은 첫 번째 입양 배치가 파양으로 끝난 경험을 했고, 소수이지만, 파양 후 배치된 위탁가정에서 학대받거나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파양으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문제가 생긴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표 15] 해외입양가정의 파양으로 경험한 어려움

n=658

문항	예 n (%)	아니오 n (%)	합계
1. 나의 첫 번째 입양부모는 입양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168 (33.9)	327 (66.1)	495
2. 나의 첫 번째 입양 배치는 파양으로 끝났다. (예: 나는 첫 번째 입양가정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되었다.)	38 (7.4)	477 (92.6)	515
3. 파양 후 배치된 위탁가정에서 나는 학대를 받았다.	12 (3.6)	322 (96.4)	334
4. 파양 후 위탁가정에서 아동학대를 목격했다.	15 (4.0)	358 (96.0)	373
5. 파양으로 인해 내 법적 지위에 문제가 생겼다.	13 (3.0)	419 (97.0)	432

Note.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④ 입양사후서비스의 적절성

[표 16]은 한국 입양기관과 입양 수령국 입양기관의 입양사후서비스의 적절성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표 16] 입양사후서비스의 적절성

n=658

문항	예 n (%)	아니오 n (%)	모름 n (%)	합계
1. 한국 입양기관은 적절한 입양사후서비스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였다. (예: 내가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확인하였다.)	45 (7.2)	258 (41.3)	321 (51.4)	624
	45 (14.9)	258 (85.1)		303
2. 입양 수령국의 입양기관은 적절한 입양사후서비스를 제공하였다.	90 (14.5)	289 (46.5)	243 (39.1)	622
	90 (23.7)	289 (76.3)		379

Note.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입양사후서비스와 관련해서 응답한 연구 참여자는 10명 중 약 8명이 한국 입양기관이 적절한 입양 사후서비스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고, 입양 수령국의 입양기관이 적절한 입양사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5) 지역사회 소속감, 민족적 정체성, 인종차별

① 지역사회 소속감과 민족적 정체성, 인종차별에 관한 경험

[표 17]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지역사회 소속감, 민족적 정체성, 인종차별에 관한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 중 반수 정도는 입양가정에서 자신의 민족적 배경을 이해하고 소속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 10명 중 3명 정도만이 입양가정 안에서 자기 민족적 배경에 대해 좋은 느낌을 받았고, 자신이 성장한 지역사회에서 소속감을 느꼈다. 또한 입양가정에서 성장하면서 한국인 입에 자긍심을 느낀 연구 참여자는 10명 중 2명도 되지 않았고, 10명 중 7명 이상이 입양 수령국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지역사회 소속감과 민족 정체성, 인종차별에 관한 경험

n=658

문항	동의	비동의
	n (%)	n (%)
1. 나는 입양가정에서 나의 민족적 배경을 이해하였다.	310 (50.1)	309 (49.9)
2. 나는 입양가정 안에서 나의 민족적 배경에 대해 좋은 느낌을 받았다.	186 (30.2)	429 (69.8)
3. 나는 나의 입양가정에서 소속감을 느꼈다.	325 (52.9)	289 (47.1)
4. 나는 내가 성장한 지역사회에서 소속감을 느꼈다.	228 (36.7)	393 (63.3)
5. 나는 입양가정에서 성장하는 동안 한국인입에 자긍심을 느꼈다.	111 (18.0)	506 (82.0)
6. 나는 입양된 나라에서 종종 인종차별을 경험하였다.	445 (72.2)	171 (27.8)

Note.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② 입양가정의 지역 특성

[표 18]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 10명 중 거의 9명은 소도시나 대도시 부근 교외에서 성장했고, 대다수가 자신이 성장한 지역에서 소수 인종 집단의 일원이나 비입양인 한국인, 한국인 입양인 혹은 다른 국가 입양인을 거의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주로 백인만 사는 지역사회에서 종종 인종차별을 경험하면서 성장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18] 입양가정의 지역 특성

n=658

구분		n	%
입양가정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특성	대도시	70	11.0
	대도시 부근의 교외	182	28.5
	소도시	270	42.3
	시골지역	116	18.2
성장한 지역 내 소수 인종집단의 존재	매우 보기 어려움	283	44.5
	보기 어려움	217	34.1
	자주 보았음	97	15.3
	매우 자주 보았음	39	6.1
성장한 지역 내 비입양인 한국인의 존재	매우 보기 어려움	510	80.7
	보기 어려움	69	10.9
	자주 보았음	27	4.3
	매우 자주 보았음	26	4.1
성장한 지역 내 한국인 입양인 혹은 다른 국가 입양인의 존재	매우 보기 어려움	340	53.4
	보기 어려움	179	28.1
	자주 보았음	85	13.3
	매우 자주 보았음	33	5.2

Note. 무응답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6) 정보 요청과 원가족 찾기

### ① 원가족 찾기 경험

[표 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 10명 중 8명은 원가족 찾기 경험이 있었다. 이는 기존 해외 입양인의 뿌리찾기에 관한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뿌리찾기를 시도한 결과(박인선, 1993)보다 높은 수치였다.

[표 19] 원가족 찾기 경험

n=658

있음		없음	
n	%	n	%
492	81.7	110	18.3

Note. 무응답과 '기타'는 결측값으로 처리함.

### ② 원가족과의 재회

[표 20]은 연구 참여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친생부모 중 최소 1명과 재회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이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최근 5년간 입양정보공개 청구를 한 해외입양인 중 친생부모와 재회한 비율이 5.7%에 지나지 않았다(식약일보, 2021. 10. 19.)는 것과 비교해 보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설문조사가 주로 해외입양인 커뮤니티나 단체에 연구 참여자 모집에 대한 협조를 구해 이루어졌고, 이러한 커뮤니티나 단체를 인지하고 있거나, 직접 가입해 활동하는 해외입양인은 다른 해외입양인보다 뿌리찾기나 해외입양인 이슈에 더 관심이 큰 특성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표 20] 원가족과의 재회

n=658

문항	예 n (%)	아니오 n (%)
1. 나는 최소 1명의 친생부모를 찾았다.	226 (44.1)	287 (55.9)
2. 나는 친생 형제(자매)를 찾았다.	166 (34.5)	315 (65.5)
3. 나는 확대 원가족/친척을 찾았다.	172 (37.4)	288 (62.6)
4. 내 인생과 관련한 다른 개인을 찾았다.	102 (21.3)	377 (78.7)

Note.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③ 원가족 찾기에 도움 준 사람(또는 기관)과 도움 된 정도

[표 21]은 원가족 찾기에 도움 준 사람이나 기관과 도움 된 정도에 관한 연구 참여자의 응답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 중 10명 중 8명은 원가족을 찾기 위해 한국 입양기관의 도움을 받고, 10명 중 6명 이상이 다른 해외입양인, 입양 수령국 입양기관, 해외입양인 단체에서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신이 받은 도움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물었을 때는 다른 해외입양인과 해외입양인 단체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외입양인의 원가족 찾기를 지원하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해외입양인 10명 중 4명 정도만이 도움을 받았는데, 도움도 별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해외입양인의 원가족 찾기를 지원하는 서비스 확대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21] 원가족 찾기에 도움 준 기관/사람과 도움 된 정도

n=658

	합계	예 n (%)	도움정도		아니오 n (%)
			m	sd	
1. 입양 수령국의 입양기관	520	344 (66.2)	2.27	0.88	176 (33.8)
2. 입양 수령국의 한국 대사관	449	105 (23.4)	2.09	0.76	344 (76.6)
3. 한국 입양기관	546	447 (81.9)	2.32	0.91	99 (18.1)
4. 아동권리보장원	460	181 (39.3)	2.29	0.81	279 (60.7)
5. 한국 시설 (예: 양육시설, 아동보호시설 등)	474	182 (38.4)	2.14	0.91	292 (61.6)
6. 한국 경찰	469	175 (37.3)	2.45	0.96	294 (62.7)
7. 한국 DNA 검사	449	159 (35.4)	2.51	0.93	290 (64.6)
8. 해외 DNA 검사 (예: 23andMe, My Heritage)	493	307 (62.3)	2.49	0.93	186 (37.7)
9. 다른 해외입양인	490	325 (66.3)	3.07	0.92	165 (33.7)
10. 해외입양인 단체	490	323 (65.9)	3.05	0.94	167 (34.1)
11. 다른 비영리단체	449	160 (35.6)	2.86	0.89	289 (64.4)

Note 1.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Note 2. 도움정도는 '전혀 도움 안됨'(1), '도움 안됨'(2), '도움됨'(3), '매우 도움됨'(4)로 구분하여 파악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된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함.

### (7) 해외입양에 대한 생각

[표 22]는 연구에 참여한 해외입양인이 한국의 해외입양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연구 참여자 10명 9명 이상은 한국 정부가 해외입양을 고려하기 이전에 원가족 보호를 우선해야 하며 (568명, 94.7%), 다른 모든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553명, 94%)고 하였고, 거의 9명은 해외입양이 1980년대에는 이미 정당한 조치가 아니었다(456명, 87.4%)고 하였다. 아울러 연구 참여자 10명 중 8명 이상은 한국은 오늘날까지 해외입양을 지속할 정당한 이유가 없고(456명, 87.4%), 오래전에 해외입양을 중단했어야 한다(469명, 85.4%)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의 해외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들 다수가 고학력자이고, 자신이 지각한 현재 경제상태도 보통 이상으로 일반 사회에서는 해외입양의 혜택을 통해 비교적 성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인식될 해외입양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 22] 해외입양에 대한 생각

n=658

문항	동의	비동의
	n (%)	n (%)
1. 한국 전쟁 직후 해외입양은 정당한 조치였다.	272 (55.6)	217 (44.4)
2. 1980년대에도 해외입양은 여전히 정당한 조치였다.	66 (12.6)	456 (87.4)
3. 한국 정부는 해외입양을 고려하기 전에 원가족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568 (94.7)	32 (5.3)
4. 한국 정부는 해외입양을 고려하기 전에 다른 모든 가능성을 타진해봐야 한다.	553 (94.0)	35 (6.0)
5. 한국이 오늘날까지 해외입양을 지속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455 (83.5)	90 (16.5)
6. 한국은 오래전에 해외입양을 중단했어야 한다.	469 (85.4)	80 (14.6)
7.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만 한국 아동을 입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92 (43.0)	255 (57.0)

Note 1.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Note 2. 연구 참여자가 '매우 동의'와 '동의'에 답한 내용은 '동의', '매우 동의하지 않음'과 '동의하지 않음'에 답한 내용은 '비동의'로 recoding하여 구분함.

(8) 배상

① 해외입양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필요성

본 연구 참여자 10명 중 7명 이상은 해외입양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한국 정부의 배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표 23 참조).

[표 23] 해외입양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필요성

n=658

예		아니오	
n	%	n	%
479	72.8	156	23.7

Note. 무응답은 결측값으로 처리함.

② 한국 정부에 바라는 배상

배상이 필요하다고 연구 참여자가 한국 정부에 바라는 배상의 형태는 [표 24]에 제시한 바와 같다. 연구 참여자 10명 중 9명 이상이 모든 항목에서 배상을 원했는데, 특히 해외입양인의 입양서류와 신원 정보를 확인할 통로(465명, 97%), 인권침해가 의심될 때 철저한 조사(459명, 96.8%), 해외입양인과

원가족을 위한 무료 DNA 검사(452명, 96.2%), 해외입양인의 DNA 샘플과 한국에 현재 존재하는 모든 DNA 데이터베이스와의 매칭 작업(448명, 95.5%)이 필요하다고 밝혀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이 자기 뿌리와 정체성을 찾는 데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표 24] 한국 정부에 바라는 배상

n=479

배상 종류	동의 n (%)	비동의 n (%)
1. 해외입양인이 입양서류와 신원 정보를 확인할 통로	465 (97.3)	13 (2.7)
2. 해외입양인이 한국에서 모일 수 있는 센터	431 (93.9)	28 (6.1)
3. 해외입양인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재정적 지원	421 (95.0)	22 (5.0)
4. 해외입양인이 원가족을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때 드는 여행 비용	442 (95.1)	23 (4.9)
5. 인권침해가 의심될 때 철저한 조사	459 (96.8)	15 (3.2)
6. 해외입양인과 원가족을 위한 무료 DNA 검사	452 (96.2)	18 (3.8)
7. 해외입양인의 DNA 샘플과 한국에 현재 존재하는 모든 DNA 데이터베이스와의 매칭 작업	448 (95.5)	21 (4.5)

Note 1.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Note 2. 연구 참여자가 '매우 동의'와 '동의'에 답한 내용은 '동의', '매우 동의하지 않음'과 '동의하지 않음'에 답한 내용은 '비동의'로 recoding하여 구분함.

## 4. 해외입양 관련 정책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 1) 권위주의 정권 시기 해외입양정책

#### (1) 이승만 정권(1948~1960)의 해외입양정책

한국의 해외입양은 이승만 정권 시절 시작되었다. 정부 수립 이후 반공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국일민주의'를 신조로 내세웠던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 이후 한국인 여성과 미군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동'을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했다. 이승만 정권은 혼혈아동과 그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대신 혼혈아동을 민간 구호기관을 통해 미국으로 입양 보내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혼혈고아를 양자, 양녀로 원하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 여차한 외국인의 원망에 부응하도록 조치"하도록 혼혈아동의 해외입양을 위한 정책을 직접 지시하였고 그 결과 당시 보건사회

부 통계를 살펴보면 1950년대 해외입양아동 중 혼혈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 (2) 박정희 정권(1961~1979)의 해외입양정책

박정희 정권은 이승만 정권 시절 법적 근거 없이 정부기관과 민간입양단체의 협의만으로 이루어졌던 해외입양을 법적으로 제도화하였다. 1960년대부터 해외입양 대상 아동은 혼혈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아동, 기아, 미혼모 자녀, 가정해체로 인해 보호자가 없어진 보호 필요 아동을 포괄하게 되었다. 특히 박정희 정권 시기인 1961년부터 1979년 사이에는 미혼모 가정 출신의 아동이 입양되는 숫자가 4배가량 증가했다. 해외입양에서 미혼모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한 사실은 혼혈아동에 대한 정권 차원의 사회적 편견과 배제가 미혼모와 그 자녀에게로 옮겨갔음을 드러낸다. 박정희 정권은 1976년 입양특별법을 만들어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자 국내입양 아동 숫자에 비례해 입양기관 당 해외입양 대상 아동 수를 배당하는 쿼터제를 도입하였다. 1985년에는 해외입양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얼마 가지 않아 단체 출국 금지, 개별 입양의 허용, 국내 여론과 언론의 비난 완화 등의 확인을 조건으로 해외입양 중단조치를 해제하였다. 이러한 박정희 정부의 대응은 해외입양의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변경할 의사가 없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3) 전두환 정권(1980~1987)의 해외입양정책

박정희 정권에서 제도화된 해외입양은 전두환 정권에서 급증하였다. 전두환 대통령이 ‘이민 확대 및 민간외교’라는 명분을 내세워 해외입양을 촉진함에 따라 국내입양 활성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던 해외입양 아동 수 감축 계획과 인원 제한을 철회했고 해외입양은 전면 개방되었다. 전두환 정권은 연간 만 명 이상 발생하는 기아와 미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해외입양 자율화 정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1980년대 한국 아동의 해외입양은 최고조에 달해 10년 동안 6만 5천511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다. 1985년과 1986년에는 한 해 평균 8천 명이 넘는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고 1986년에는 한 해 동안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출신 입양인이 6천188명으로 미국 전체 해외입양의 59%를 차지했다. 전두환 정권이 이민 활성화를 일환으로 취한 해외입양 자율화 정책은 국제사회로부터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했다.

## 2) 입양 관련 법제 현황

### (1) 입양특례법의 변천

전쟁고아의 국외입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정한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은 입양 조치를 ‘간이화’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 아동의 해외입양을 ‘촉진’하고자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외국인이 입양하는 경우 입양기관이 입양절차를 대리할 수 있게 하는 ‘대리입양’의 근거 규정도 명시하였다. 대리입양제도는 아동의 출신국에서 입양부모의 자격을 심사할 수 없게 만들어 아동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을 야기했다. 1966년 일부 법 개정을 통해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만이 입양 알선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입양 알선 기관에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였다.

1976년 입양특례법은 외국인이 국외에서 입양하고자 할 때는 입양기관이 그 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외입양절차를 간소화하여 해외입양 업무를 사실상 입양기관이 전부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입양하고자 할 때는 가정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해외에서 입양할 때는 법원의 인가 절차가 필요 없고 보건사회부 장관의 해외 이주 허가만으로 입양이 가능하였다. 양친이 될 외국인은 국내에 와서 양자가 될 자를 직접 만나보지 않고도 입양 성립 전에 입양을 전제로 아동을 자국으로 입국시킬 수 있었고, 아동을 데리러 한국에 올 필요도 없었다. 입양기관의 장은 무적아동의 취적을 할 수 있고, 보호시설장의 입양 동의로 입양기관에 위탁된 아동에 대한 후견직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995년에는 입양특례법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면 개정했다.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입양기관에 대한 감독,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부모에 대한 사전교육, 입양 후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입양절차를 민간 입양기관에 일임하고 있었고 외국인 입양부모는 아동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입양할 수 있었다. 국내 가정법원의 개입도 필요하지 않았다. 또한 입양정보의 보관 의무를 입양기관에 전적으로 맡겨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했다.

2011년에는 16년 만에 입양특례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입양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신설하였고,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 시점을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주일 후로 제한하는 ‘입양 숙려제’를 도입했다. 또한 입양 동의 전에 친생부모는 반드시 양육 지원 정책과 입양의 법적 효력 등에 관해 상담받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를 출산하기도 전에 친생모로부터 친권포기각서와 입양 동의 서류를 받아왔던 입양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또한 법원으로 하여금 입양이 아동 복리에 최선인지 심사하도록 하여 입양신고 대신 허위 친생자 신고를 하던 기존 입양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나아가 입

양인의 알 권리와 정체성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을 입양인의 권리로 도입했다.

## (2) 민법상 입양제도의 변천

1958년 2월 22에 제정한 민법은 민법 제정 전에 이루어졌던 가계 승계를 위한 입양관행을 법제화하였다. 1990년 민법 개정을 통해 가계 승계를 위한 요소는 대폭 폐지했으나 입양의 성립을 당사자 간 합의와 신고만으로 가능케 하고 있어 입양부모의 자질·요건에 대한 규정이나 이를 심사하는 국가기관의 개입이 전혀 없었던 점에서 아동 복리를 위한 입양제도로서는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5년 민법의 일부 개정으로 친양자입양 제도가 신설되었다.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기재되어 양친의 친생자와 동일하게 입양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친양자 관계의 성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민법상 입양제도에 국가기관의 개입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2011년 입양특례법의 전면 개정으로 법원의 입양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민법도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 입양절차상 법원의 허가제를 도입했다.

## 3) 과거 해외입양절차상 아동인권침해 관행

### (1) ‘전쟁고아’의 해외입양

한국에서 해외입양은 전쟁고아에 대한 민간 차원의 구제 활동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전쟁 후 전쟁고아를 직접 돌볼 수 없었던 우리 사회는 입양을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유일한 대책으로 삼았다. 미국은 1950년 난민법 개정을 통해 양부모를 다 잃은 고아뿐만 아니라 ‘기아가 된 아동’, ‘한 부모만 남은 아동으로 그 부모가 아동을 돌보지 못하고 아동의 출국·입양에 동의하거나 다른 후견인에게 친권을 포기한 경우’까지 고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1961년 미국 이민법의 개정으로 입양아동은 난민법의 쿼터 제한 없이 완화된 요건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해졌다. 항구적이고 정상적인 미국 이민 자격의 하나로 이민법상 ‘고아’ 자격을 신설한 것이다. 이후 미국은 1961년부터 1975년까지 15년 동안 전 세계 34,568명의 고아에게 입양목적의 입국비자를 발급했는데, 그중 한국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54%인 19,283명에 달했다.

### (2) ‘고아호적’ 관행

과거 해외입양 대상 아동 중 다수가 고아호적으로 해외입양절차가 진행되었다. 실제로 친생부모를 알 수 없는 고아에 해당하는 경우도 존재하였으나 친생부모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부모의 존재를 알면서도 불법적으로 아동을 기아로 처리한 사례가 다수 발견



되었다. 또한 실종 아이나 미아인 경우, 가족을 찾아주는 노력보다 입양을 우선 추진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입양기관이 아동을 고아로 처리해 해외입양절차를 진행했던 이유는 고아인 경우에는 여권 발급에서부터 미국 비자 발급, 미국 내 입양재판에 이르기까지 친생부모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입양절차가 더 간단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 (3) '대리입양' 관행

한-미 간 입양절차에는 다른 나라 해외입양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대리입양' 관행이 처음부터 자리 잡았다. '대리입양'이란 입양부모가 아동을 직접 보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입양아동의 출신국에서 입양을 진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입양방식을 뜻한다. 이러한 대리입양은 1950년대 한-미 간 해외입양을 주도한 홀트 양자회의 회장 해리 홀트에 의해 주창되었다. 비용과 시간상 효율적인 입양절차의 수행을 위해 입양 알선기관이 입양부모를 대신해 입양절차를 진행하도록 허용했던 것이다. '대리입양'은 입양부모가 직접 입양아동의 국가를 방문하지 않아도 입양할 수 있게 해 해외입양 과정에서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하였다. 이러한 대리입양 관행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되는 아동 수의 급증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 (4) 입양의 '산업화'

한국 아동의 입양 수수료는 1988년 5,000달러(같은 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4,571달러), 2009년 1만 7,215달러(같은 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1만 7,074달러), 2018년 기준 홀트 인터내셔널 홈페이지에 소개된 입양 수수료는 입양 심사비용, 여행 경비 등을 제외하고도 최대 33,600달러에 이른다. 정부는 입양 수수료를 규제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민간 입양기관은 입양 수수료를 해외로 입양 보낼 아동을 확보하기 위해 양육시설, 병원 등 아동이 있는 시설과 기관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해외입양 수수료의 문제를 지적하며 해외 언론은 한국의 해외입양이 비즈니스가 되어 버렸다고 평가하였다.

## 4) 해외입양 법·제도의 문제점: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 (1)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위반

유엔아동권리협약<sup>3)</sup>과 헤이그협약<sup>4)</sup>은 입양절차상 아동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

3)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21조

4) 헤이그협약 제1조a

며 이러한 원칙은 국내법인 아동복지법<sup>5)</sup>과 입양특례법<sup>6)</sup>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승만 정권 때 시작한 해외입양은 미군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 출생한 혼혈아동을 아버지의 나라로 보내겠다는 목적에 따라 법적 근거도 없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55년부터 1961년 사이에 해외로 입양되었던 아동 전부가 혼혈아동이었으며, 혼혈아동 중 대다수 아동에게는 부모가 존재했다. 부모가 있는 아동을 고아로 만들어서 미국으로 입양 보낸 것이 과연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었는지 의문이다. 박정희 정권 때는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이승만 정권 때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던 해외입양을 법적으로 제도화했다. 하지만 당시 고아입양특례법은 고아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나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최소한의 보호정책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았다. 또한 입양부모의 자격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신속 간이하게 해외로 입양 보내기 위한 내용만 담고 있었다. 혼혈아동으로 시작한 해외입양은 1970년대에 이르러 해외입양 대상 아동 대부분이 미혼모 가정의 아동으로 바뀌었다. 미혼모의 자녀가 해외입양대상 아동이 된 것은 여성의 혼전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차별의 결과이다. 또한 이러한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인 정부가 어떠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이와 같은 미혼모에게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기회를 박탈하고, 아동에게는 부모를 알고 원가정에서 양육될 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과거 해외입양절차와 제도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위반하였다.

## (2) 원가정 양육 우선 원칙 위반

유엔아동권리협약<sup>7)</sup>과 헤이그협약<sup>8)</sup>은 모든 아동에게 출신가정과 출신국가에서 양육될 기회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특히 헤이그협약은 전문에서 원가정 보호를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원가정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내에서 입양할 가정을 찾고, 해외입양은 최후 수단으로 검토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 보내는 아동의 90% 이상이 미혼모 가정 출신이라는 통계는 한국에서 원가정 양육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해외입양대상 아동의 90% 이상을 미혼모 자녀가 차지하게 된 것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서 비롯되었다. 혈연 중심의 가족주의와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작용한 결과 국내입양절차에서는 비밀입양 관행이 자리 잡았다. 국

5) 아동복지법 제2조 제3항

6) 입양특례법 제4조

7)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8)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전문 중 “각국은 우선적으로 아동이 그의 출신가정의 보호 아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상기하고, 국제입양이 출신국에서 적당한 가정을 발견하지 못한 아동에게 안정된 가정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인식하며...”

내입양가정은 입양신고 대신 허위로 입양아동을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했다. 이러한 비밀입양 관행하에서는 친생부모가 입양과정에 개입할 여지를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 미혼모시설에 입소한 임신 미혼모는 아동을 출산하기도 전에 친권 포기각서와 입양 동의서를 작성해야 했고, 출산하자마자 자녀와 생이별해야 했다. 이후 아동의 보호와 입양절차는 입양 알선기관이 전적으로 맡아서 진행했고, 이 과정에 친생부모가 개입할 여지는 전무했다. 입양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동의 상태를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입양 완료 후 아동이 입양가정에서 잘 적응하고 생활하는지에 관해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 이러한 해외입양관행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헤이그협약에서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원가정양육우선의 원칙을 위반한다.

### (3) 입양의 공적 책임 원칙 위반

유엔아동권리협약<sup>9)</sup>과 헤이그협약은 입양을 권한 있는 공적 당국에서 관장할 것을 규정한다<sup>10)</sup>. 현행 입양절차에서는 아동에게 입양이 최선이라는 판단(아동의 입양 적격성 결정), 입양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예비양부모의 상담과 교육,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 입양아동과 입양부모 간 결연, 입양전제위탁 결정까지 거의 모든 입양절차가 민간기관인 입양기관 단독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법원의 입양허가가 필요하게 되었으나, 모든 절차를 거친 후 사후에 입양을 승인하는 정도의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입양을 아동복지체제와 분리해 운영하는 것도 큰 문제다. 아동이 친생부모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아동복지·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입양은 최후방안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입양하고자 하는 부모는 입양기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양을 신청하고, 자격을 검증받아야 한다. 입양 의뢰된 아동과 입양부모가 될 가정의 결연도 입양기관이 아니라 공적 기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진행해야 한다. 입양 대부분의 절차를 민간 입양기관에 일임 하는 것은 권한 있는 공적 당국이 입양을 관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헤이그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 (4) 정체성을 알 권리의 침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7조에서 “아동은 (중략)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동 조문에 근거해 회원국을 상대로 “당사국 내에서 입양아동 본인의 출신을 알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당사국이 입양아동 본인의 출신을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연령 및 전문적 지원 조치를 포함한 상기 목적의

9)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1조

10) 헤이그협약 제4, 5, 6조

법적 절차를 확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sup>11)</sup>. 현행 입양특례법은 제36조 단 한 개의 조문을 통해 입양인이 자신의 입양기록에 접근할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입양인의 가족찾기를 권리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 입양기관과 관련 아동복지시설은 입양인과 관련된 문서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등을 내세우며 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 청구에 비협조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입양특례법상 입양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가족을 상봉하는 사례가 극소수라는 사실은 해외입양인의 정체성을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는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드러내 준다. 해외입양인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 권리는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풀어야 할 화두이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마음속 깊이 내재하는 근원적인 불안과 불화를 해소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입양특례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해외입양인에게 정체성을 알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우리 사회가 제대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

## 5) 해외입양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 (1)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입양특례법 개정과 입양절차 개선

첫째, 아동에 대한 전체 입양절차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장’하에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입양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민법과 입양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입양절차를 ‘일원화’하여 모든 아동에 대한 입양절차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민법과 입양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입양절차에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청취권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입양절차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보장되기 위하여 입양절차에 관여하는 공무원과 입양 관련 기관 종사자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충분한 교육과 슈퍼비전을 제공해야 한다.

### (2) 해외입양인의 입양기록에 대한 접근권과 뿌리찾기의 보장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7조에서는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입양아동이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해외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법령을 개선하고 이를 지원할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1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33.(e).

첫째, 입양인뿐만 아니라 친생부모와 그 가족도 입양인을 찾을 수 있도록 입양정보공개 청구권의 주체를 확대하여야 하며,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이도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는 과거 입양기록의 왜곡·훼손·분실 등으로 해외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 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 등 대안적 지원을 통해 가족찾기가 최대한 -보면보장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해외입양인과 친생부모, 원가족의 재회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전문적인 통역 서비스와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가족의 재회는 서로가 지난 시간의 아픔과 차이, 트라우마와 상처를 나누고 이해해나가는 긴 여정의 새로운 시작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회 여정에 입양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가진 통역 서비스와 상담 서비스 등이 재회 전후로 이루어져야만 수십 년간 단절되었던 가족관계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 (3) 원가정 보호의 원칙 실현

아동권리협약과 헤이그협약은 모든 아동에게 출신가정과 출신국가에서 양육될 기회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해외입양아동 중 99.5%가 미혼모 가정 출신인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려면 정부는 첫째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친생부모가 빈곤을 이유로 자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과 예산을 증대하여야 한다. 둘째, 혼인 외 자녀와 그 가정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차별과 배제를 개선하여 혼인 외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해 포용적이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4) 헤이그협약의 비준

한국은 2013년 5월 24일에 헤이그협약에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을 마치지 못한 상태이다. 헤이그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현재 국회에는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과, 국제입양법 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이다<sup>12)</sup>. 입양절차에서 어디까지를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위임할지 이견이 존재하나, 민간에 일임되어 있던 기존 입양절차를 공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회는 현재 국회 계류된 입양특례법 개정안과 국제입양법 제정안을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에 따라 검토하고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헤이그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도 처리하여야 한다.

12) 2022. 12. 9.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다.

#### (5) 과거 불법적인 해외입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

본 연구에서 진행한 문헌 조사와 질적 조사, 양적 조사 결과는 과거 불법적인 해외입양 절차를 통해 한국 해외입양인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해외입양인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첫째, 해외입양인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는 국가 차원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 확인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해외입양인과 그 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

둘째, 국가는 과거 불법적인 해외입양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한 해외입양인과 그 가족의 피해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절하게 보상해야 하며, 해외입양으로 인한 단절과 상실의 피해와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국가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셋째, 국가는 해외입양인의 입양기록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정체성을 찾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외입양과 관련된 기록과 정보를 민간 입양기관과 아동 양육시설 등에서 이관받아 공적으로 영구 보관해야 한다.

넷째, 과거 해외입양절차에서 해외입양인과 그 가족이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은 사례가 다수 발견된 이상 정부는 해외입양 정책이 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임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 이상 비슷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외입양의 중단을 선언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박인선. (1993). 해외입양인의 뿌리찾기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식약일보. (2021. 10. 19). 해외입양인, 입양정보공개 청구해도 5%만 가족 상봉.

<http://www.kfdn.co.kr/54102> 2022년 12월 18일 인출.

이상정·류정희·임정미·이주연·노혜련·변미희. (2018). *아동보호체계 강화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요약본 (Summary)



**Summary report on the  
Research on human rihgts  
in the oversea adoption process**





## 1. Research Overvie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ain understanding about the types and the actual situations of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concerning Korean adoptees, and thereby, provide recommendations to improve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intercountry adoption and the domestic child protection system in South Korea. Furthermore, this study aims to raise awareness on the need to respond to human rights violations of intercountry adoptees at a state level, and to develop concrete countermeasures to address the issue.

The background of this study is as below:

Firstly, South Korea is the country that has sent the largest number of adoptees overseas for the longest period of time, from the Korean War to 2022. Thus, there is a need for an investigation into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Korean adoptees sent overseas. Based on official data provid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 nation has sent 170,000 children (200,000 based on the estimate of private institutions) for intercountry adoption over the past seven decades. Secondly, South Korea should be prepared to carry out investigations of human rights violation of intercountry adoptees as countries like the Netherlands, Belgium and Switzerland have done at the government level. For example, Belgium discovered cases of human rights abuse through such investigation and has since discontinued international adoption for two years, starting in 2021. Thirdly, since there have been reports on human rights violations of intercountry adoptees, it is necessary not only to investigate these cases more systematically and extensively but to categorize the typ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that have occurred. Fourth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come up with measures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intercountry adoptees, and to support abused adoptees at the state level. If the current research finds human rights abuse cases of intercountry adoptees and confirms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authorities have failed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y to protect human rights, or that the damage resulted from loopholes in the nation's intercountry adoption system and procedur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prepare countermeasures at the state level.

This study first did a literature review of institutions, norms, policies, regulations and informal adoption procedures related to South Korea's intercountry adoption in different periods to understand how the Korean government's degree of responsibility in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adopted children has changed over time. In addition, investigative reports on human rights violations of intercountry adoptees in recipient countries including Denmark, the Netherlands, Belgium, and Switzerland, as well as the reports of the Chilean government, a sending country, were reviewed. This was followed by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qualitative data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Korean overseas adoptees and their birth parents in order to identify aspec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ey have experienced. Finally, quantitative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a survey questionnaire developed based on the data collected from the qualitative study.

## 2.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data has been collected through individual and focus group interviews. Interviews with adoptees and original parents mainly focused on identifying the degree of human rights protection provided at the time of their adoption or the aspec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had occurred during the adoption process. For the interviews with original parents,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to cover the following topics: the circumstances which led to relinquishment and intercountry adoption, the counseling process and the discussions during the counseling that led to the adoption decision,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adoption decision, the process of filling out the adoption consent form and separation with the child, psychological changes after separation, experiences of reuniting with relinquished children, the adequacy of adoption records, experiences birth parents had in the process of searching for the children, and general views on adoption.

Interviews were recorded with participants' consent. The recorded data was transcribed and used as the base data for qualitative analysis, and was systematically analyzed u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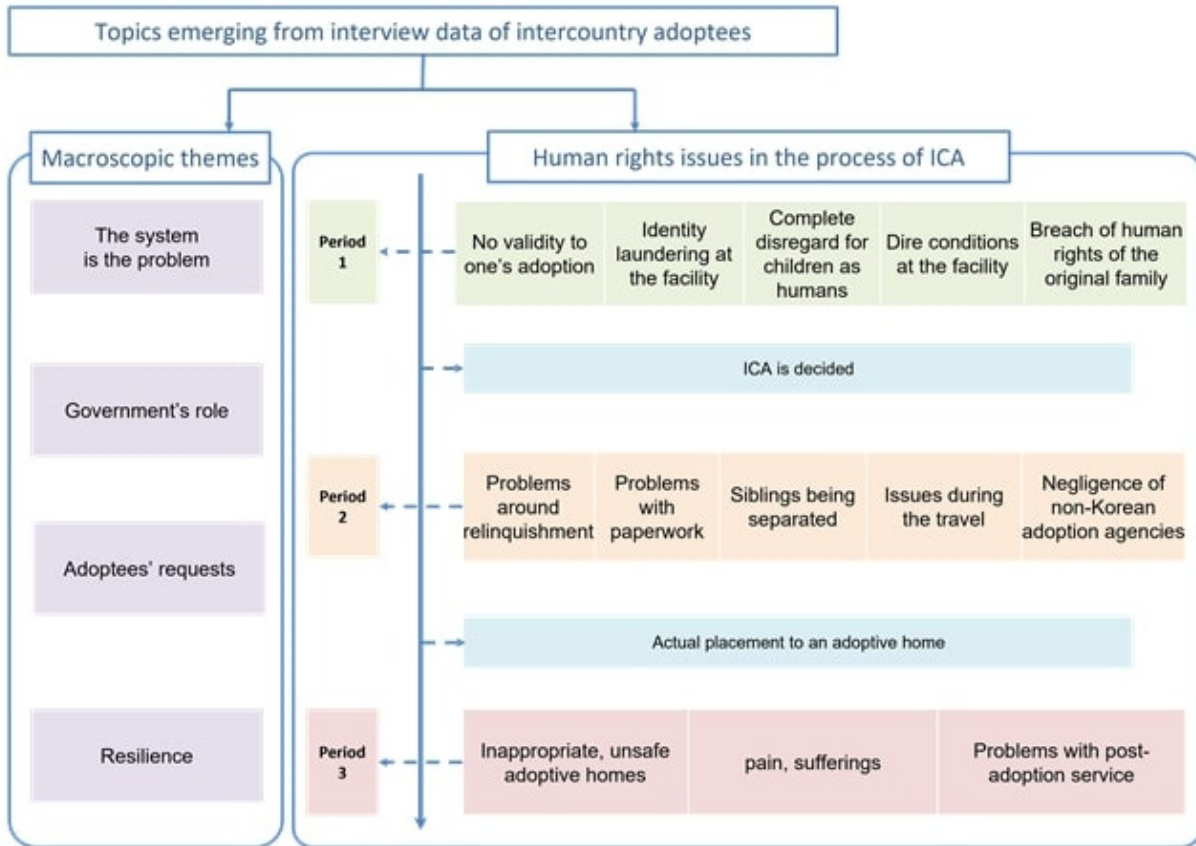
thematic analysis. Questions on the aspects of human rights abuses, the key question of the study, were segmented into each sub-stage of adoption, and MAXQDA2022, a software for mixed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 qualitative data. In order to secure the integrity and intersubjectivity of the research results, the co-researchers joined the interview, exchanged their views, and further shared and discussed the results together to ensure the validity of the analysis.

### 1) Qualitative Research on Intercountry Adoptees

[Table 1] Overview of the Qualitative Research on Intercountry Adoptees

<b>Participants</b>	39 intercountry adoptees, 1 adult child of an intercountry adoptee (83=female, 75%= born in 1970s or 1980s, 47%=adopted to the US)
<b>Tools</b>	Self-developed questions
<b>Methods</b>	Individual or focus group interview (in-person or virtual)
<b>Interview Period</b>	June 27, 2022 ~ October 16, 2022
<b>Contents</b>	Types of human rights issues, attitude toward intercountry adoption
<b>Recruitment</b>	Via various Korean intercountry adoptee groups
<b>Participation eligibility</b>	Intercountry adoptee or a child of an adoptee who are 18 or older

[Table 1] shows an overview of qualitative survey on intercountry adoptees. The analysis of the interview data for overseas adoptees was largely classified into two themes: 'pattern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process of intercountry adoption' and 'macroscopic themes'. The first theme of 'pattern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intercountry adoptions', the overall adoption process, was divided into three stages -- Period 1: time up to the point when adoption decision was made, Period 2: from the point adoption was decided up to before the placement with the adoptive family, Period 3: from the point of living with an adoptive family and beyond-- the topics that emerged from the analysis of the interview data were classified into these three periods. For the theme 'macroscopic topics', topics related to the macroscopic perspective, such as the institutional system and the government's role in allowing international adoption to take place were separately identified (see Figure 1).



[Figure 1] Topics emerging from interview data of intercountry adoptees

The summary of the findings from the analyses are as follows:

The topic which was most frequently mentioned by intercountry adoptees participating in the study was 'the commodification of adoptees', and the other topics which were mentioned extensively were 'pain, sufferings' in Period 3, after they were placed to their adoptive families, rather than hardship that occurred in the first and second periods.

Narratives about the topic of 'no validity to one's adoption' were also present, stating that, in principle, some adoptions were not valid in the first place because in Period 1, the time before the adoption decision, some children were not orphans and it was not certain whether they were abandoned. Participants mentioned that the reason intercountry adoption was possible even in these circumstances was because of 'identity laundering' which took place at the adoption facilities. There have been testimonies that through the process of identity laundering, the connections the children had with birth

families were cut off, human dignity was ignored, and the children were treated like products at the facilities. Interviewees described their lives at facilities using expressions such as abuse, neglect, exploitation, and poor surroundings. The perspective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occurred during Period 1 included violations not only of the adoptees themselves, but also of their birth families emerged repeatedly during the interview. In some of the adoption cases, a baby was sent abroad for intercountry adoption after it was falsely reported to his/her birth parents that their newborn had died. In other cases, some birth parents were coerced to relinquish their child, and some birth parents were told that their child had already been sent to the foreign country when the child in fact was still in South Korea. There was even a case where the birth parents' request for the cancellation of the adoption consent and return of the child was rejected, when it was only on the previous day that they had accepted the hospital's recommendation to relinquish.

Human rights violations were also found in Period 2 – the time between adoption decision and placement with adoptive family. In general, parental consent or relinquishment of parental rights, which is the key to the validity of adoption, is implemented in Period 2. There have been cases where an adoption agency did not fully explain to birth parents the meaning of adoption; or where the adoption agency fomented the birth parents' consent by minimizing its meaning; or where the adoption agency accepted consent of agents such as grandparents or relatives instead of obtaining the birth parents' consent. 'Problems around relinquishment' was one of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topics. There have been multiple cases of 'problems with paperwork' such as manipulation of adoption documents, or omission of critical information while forcing adoption.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also accounts of there being no evidence of efforts to place biological siblings together with the same adoptive parents. There were testimonies of cases where many problems arose due to untrained staff or a stranger accompanying the child during transfers, children being switched while a single staff was transferring a large number of children, or a transfer taking an absurdly large amount of time. Some children were abruptly placed in a

different home and not the originally planned destination upon arriving at the airport of the recipient country. Some adoptive parents left the airport, leaving a relinquished child behind alone at the airport, arguing that the child's disability was more severe than they had thought.

From the point of living with an adoptive family, topics such as 'inappropriate, unsafe adoptive homes', 'pain, sufferings', and 'problems with poor post-adoption service' were highlighted. In particular, topics like 'inappropriate, unsafe adoptive homes' and 'pain, sufferings' encompassed many sub-topics. The environment and difficulties that intercountry adoptees had to face in their lives after being placed to adoptive families raise a fundamental question about the validity of intercountry adoption. First of all, 'inappropriate, unsafe adoptive homes' could be broken down into 'money issues', 'abuse and neglect', 'adoptive parents with mental health issues', 'substandards adoptive parents', and 'conflicts and challenges in relationships'. In particular, 'abuse and neglect' was one of most prevailing topics emerged from the interviews,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high rate of abuse found among the interviewees and the findings from the quantitative survey.

The topic of 'pain, sufferings' included sub topics of 'no legal status· homelessness· wandering', 'racial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psychological, mental health consequences', 'difficulties in searching', 'lifelong impact', and 'difficulties in search for identity'. Most of these sub-topics were highlighted as the adoptees' most frequently mentioned topics through code cloudization (See Figure 2). 'Racial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seem to have been universally experienced by overseas adoptees regardless of regions, both in North America and Europe. The absence of a sense of belonging, prevalent anxiety, heartbreaking homesickness for origin countries, trauma due to abuse, suicide attempts, serious psychological and mental illness seem to be related to the unique situation inherent to adoption. Most of the participants had experiences of birth family search, and in the process of their search, they experienced disappointments because they were denied access to their records and/or had to rely on limited information. Racial discrimination and difficulties in birth family searches are topics

closely related to difficulties in their identity search.

The absence of post-adoption services can be cited as one of the reasons why many topics that emerged in this Period were clustered around difficulties and pain. The abuses and neglect in adoptive families went on unchecked and undetected by the overseeing agencies, and even when the adoptive child reported the abuse, no proper actions were taken. These situations gave adoptees a sense of abandonment repeatedly. Moreover, these difficulties and pains experienced by intercountry adoptees do not seem to be temporary, meaning that they do not fade over time. It seems that these traumas are lifelong, having an ongoing effect even in their present lives.

The intercountry adoptee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interviews believed that va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occurred in each of the three stages of intercountry adoption process were by-products of the macroscopic system that enabled intercountry adoption to happen in the first place. In other words, the fundamental cause of intercountry adoption that violates human rights can be found in the macroscopic system itself which drives intercountry adoption. These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ed during the process of taking children away from their birth parents and placing them with adoptive parents within the complex adoption industry system comprised of multiple agents ranging from the Korean government, Korean overseas adoption agencies, Korean child care facilities, the government of the receiving country, and the adoption agencies in the adoption receiving country.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se violations cannot be fully understood when looking into the matter in a segmented approach. It can only be thoroughly understood when the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and across these multiple agents are taken into account. Even when we know for sure that the macroscopic system which places higher priority on the interests of adults than that of children is responsible for the human rights violations, it is not easy to pinpoint which agent should be held accountable. Meanwhile, adoption agencies, which are important agents of this macroscopic system, have been receiving positive recognition as saviors of children, while adoptees were portrayed as 'helpless children' in need of a savior. This positive image of adoption runs counter to the perception held by

intercountry adoptees that they were mere commodities, sold to the Western “Empires.”

There was a critical point of view that the government, as a key player in the system that made intercountry adoption possible, neglected excessive adoption by failing to manage and supervise adoption agencies in an orderly manner and not properly setting up regulations. Adoptees who participated in the interviews suggested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improve the role and functions related to adoption, under the premise that 'people born in Korea have the rights to be Korean.' This premise can also be seen to imply that intercountry adoptees have the rights to own their identity as Koreans and the rights to regain their unwillingly forfeited Korean citizenship. The specific requests of international adoptees can be categorized into 'help adoptees', 'repair damage', 'supervise agencies', and 'tighter management of adoption-related documents'. More specifically, they requested the following: full and accurate explanations on adoption and its ramifications be given to the birth parents during the adoption consent stage; adoptees' right to full access to their information; sufficient support for birth families; a ban on profit generation from adoption; support in obtaining legal status in the receiving country; ensuring top priority in adoption is placed on children's interests; prevention document forgery; proper document preservation; and universalized DNA testing.

In the interview narratives of intercountry adoptees, not only were various traumas and difficulties voiced, but also strength and resilience were displayed despite damage and anger. There were some adoptees who actively fought against abuses and literally escaped from their adoptive families for their own safety. Some adoptees took on the role of taking care of their younger siblings, and some became activists and researchers in social justice and academic fields related to adoption.

The results of this qualitative research on intercountry adoption show that many intercountry adoptees accuse the Korean government, Korean adoption agencies, as well as adoption agencies in adoptive countries of infringing on their human rights at multiple levels, and strongly call for changes. These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e the Korean government's lack of effort in building a system to secure the rights of children



to grow up with their birth families; Korean adoption agencies' fabrication of documents in pursuit of their own interests rather than protecting the children they were responsible for; adoption agencies predatory practices and deception of birth parents and coercion during the adoption process, such as not fully explaining the implications of adoption, and recommending intercountry adoption in cooperation with hospitals.

In addition, since adoption agencies in adoptive countries did not properly verify the qualification of adoptive parents, nor provide follow-up care, some Korean adoptees were sent to adoptive parents who weren't qualified, for instance, adoptive caregivers who had mental problems. As a result, adoptees suffered physical, sexual and emotional abuses in their adoptive families. What made this seemingly impossible thing happen so easily was the proxy adoption system, which exempted adoptive parents from having to visit Korea to meet their children, and eliminated the need to go through the legal adoption process via a Korean court of justice. Overall, the South Korean intercountry adoption system and its practices seem to have been focused on achieving quick and easy adoption results, rather than pursuing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Under this system, one might even say that the adoptees who were sent to good adoptive parents and grew up well were the few lucky ones. However, no matter how good the adoptive parents were, the majority of adoptees suffered from racial discrimination while growing up, and they did not receive sympathy and support from their adoptive parents on this issue. In addition, the interviewees thought that their rights to know their origins and identities were infringed on due to falsification of adoption records and restriction on access to records. [Figure 2] shows the visualization of topics that were frequently mentioned during the interviews with the intercountry adoptees.



[Figure 2] Visualization of Code Clouds

## 2) Qualitative Research on Birth Parents

[Table 2] shows an overview of qualitative research on birth parents. The research is based on individual interviews with five birth parents who sent their children abroad for intercountry adoption between 1973 and 2001. As there is limitation for the intercountry adoptees who were adopted during their young childhood to know under what circumstances they were adopted, and how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ed in the process of their adoption, the interviews with their birth parents have significant meaning in that they not only reveal the experiences of birth parents themselves, but also allow us to see the actual conditions of human rights surrounding intercountry adoptees at that time.

[Table 2] Overview of the Qualitative Research on Birth Parents

<b>Participant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 birth mothers, 3 birth fathers</li> <li>(Out of 5 birth parents, 2 were in their 60's and 3 were in his/her 40's, 70's and 80's respectively.</li> <li>5 birth parents consented to intercountry adoption of a total of 9 children (5 girls and 4 boys)</li> <li>- The timing of intercountry adoption: 1 case in 1970s, 3 cases in 1980s, 1 case in 2000s</li> <li>- All birth parents searched for their relinquished children or have reunited with them.</li> <li>- Out of 9 adoptive children, 1 could not be found, but the remaining 8 children have reunited or are in contact with their birth parents</li> </ul>
<b>Tools</b>	Self developed questions
<b>Methods</b>	Individual or focus group interview (in-person or virtual)
<b>Interview Period</b>	July 21, 2022 ~ September 16, 2022
<b>Contents</b>	Birth parents' experiences, adoption procedures and condition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process of reunion, general views towards intercountry adoption
<b>Recruitment</b>	Via adoptees' birth parents' organization and intercountry adoptees who have reunited with their birth families
<b>Participation Eligibility</b>	Birth parents of intercountry adoptees who are 18 or older

The interview questions for the birth parents were designed and administered in line with the research aims of the present study: to find out the actual human rights situation of overseas adoptees and violations thereof, and to identify tasks/initiatives for improv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tercountry adoption. The questions asked mainly focused on the birth parents' experiences during the overall adoption and reunion processes, as well as their general opinion towards intercountry adoption. Answers from the birth parents' interviews were reviewed/analyzed in time sequence, starting from 'adoption decision', 'adoption consent', to 'separation' and 'reunion and beyond'. Lastly, 'thoughts on intercountry adoption and the human rights of adoptees and birth parents' were explored from the birth parents' perspective. The findings from this analysis are summarized below.

First, most of the birth parents had to make the decision to send their children abroad for adoption because they faced temporary and/or long-term hardships while raising their children. They were affected by multiple factors such as economic hardship, housing issues, lack of financial support from husbands, difficulty in balancing child care and work, conflict with their husbands, and lack of support from birth families. When combined, these complex factors put birth mothers in a situation where it was virtually impossible for them to continue raising their children on their own. Compared to birth

mothers, birth fathers experienced less hardship and burden in raising children but experienced different types of difficulties mainly due to shifts in marital status. For instance, an unmarried birth father had experienced hardship in child-rearing after his relationship with his partner deteriorated during her pregnancy. Another birth father tried to raise his two young children by himself after divorce, but gave up and asked his parents to raise them for him. But soon after, he had to send the kids to his ex-wife's parents due to the unfortunate circumstances of his own parents and lost contact with the children. Another birth father, had to give up his children following a hospital's recommendation, as he was having hard time financing the operation charges for his wife, who had a major surgery during childbirth, shortly after moving from a countryside to a small town.

Often, acquaintances of birth parents or hospitals where their children were born advised the birth parents to place their children for adoption as an alternative way to protect them. These recommendations came when the birth parents were in a state of panic and crisis because they were not able to get help from relatives or other acquaintances while struggling to raise their children.

The problem with this advice was that the birth parents were wrongly induced to decide on intercountry adoption without having the full knowledge of the system. For example, some parents were under the assumption that separation from their children would only be temporary and that they would be able to reunite with their children after they get a good education abroad. In some cases, birth parents gave up their children in exchange for a relief from the immediate economic problem that they faced.

Second, the decision to relinquish was sometimes made on behalf of birth parents by a third party without the birth parents' knowledge of their children's being placed for intercountry adoption. Most birth parents knew little about intercountry adoption and some birth parents were so ignorant about the system that they had no idea that their children were being sent overseas, even as they handed the children over to the staff at the adoption agency. This was because the staff at the adoption agencies did not provide any explanation to the birth parents about who they were, what intercountry adoption

was, and what change it would bring to them and their children. As a result, some of the birth parents simply thought that child care facilities were taking care of their children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or that their children were finding a new family in Korea.

Even the birth parents who made the adoption decision firsthand were barely given any explanation or counseling as to how their lives and their children's lives would change after adoption, what rights they have as birth parents, what specific experiences they and their children would have after the adoption decision, whether or not adoption decisions could be revoked and whether or not they could reunite with their children later. Worse yet, in some cases, the intercountry adoption decision was made without the consent of the birth parents. In such cases, the decision on a child's intercountry adoption was made by other people such as grandparents, relatives, and even workers at the adoption agencies. Considering that the consent of the birth parents is the first thing to check when starting the process of intercountry adoption, in cases where intercountry adoption was process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birth parents or against the will of the birth parents, the legality of intercountry adoptions may have been grievously compromised.

Third, the birth par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had to go through the experience of having their children being sent away immediately after the adoption decision was made or having to find out later that their children were put up for adoption without their knowledge and consent. These experiences made the birth parents suffer from guilt for having failed to protect their children and having sent their kids away to unknown places to endure times of grief and pain.

Most of the birth parents who were separated from their children due to intercountry adoption suffered from constant regrets and blamed themselves for their decision. They said that no matter how tough things got, they should have looked for ways other than intercountry adoption. They were concerned about how painful it must have been for children to leave the country without any explanation and regretted that it was a hasty decision.

Such remorse for sending their children to unfamiliar foreign countries was amplified

when birth parents found out that there was no way to contact their children. All that they could do was simply endure the pain, not knowing the well-being of their children. The birth parents did not receive any professional counseling services, nor sincere words of consolation from people around them and were left to bear the pain throughout their lives, alone.

The birth parents faced emotional and psychological difficulties to a degree that they had never experienced before, such as emptiness stemming from separation from their birth children, drug addictions, suicidal thoughts, and suicide attempts. Despit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pain, most of the birth parents suffered more because they could not tell anyone that they had given up their children for adoption. Although the agony that came after parting with the kids gradually abated over time, they had to learn to endure it all alone since they were not able to seek outside help.

The level of psychological pain, guilt, regret, and worries for the children that the birth parents experienced was beyond comprehension. While enduring such pain, birth parents visited the adoption agencies or hospitals that mediated the adoption to inquire about ways to reverse the decision and revoke intercountry adoption. However, hospitals would not disclose which adoption agencies their children were taken to, and adoption agencies did not inform the parents that they had the right to cancel their adoption decision. Worse still, the agencies misinformed the parents that once a decision to relinquish their child had been made, it was irreversible. Birth parents' requests to revoke the adoption decisions after just a few days were rejected, or forced to be dropped. Birth parents were told that there is nothing that could be done because the children had already left the country to be adopted overseas.

Since some birth parents were told that their kids would come back to see them later in adulthood, they looked forward to the day when the kids would visit them again but became depressed when they did not return. The birth parents were not entitled to search for their children and this is still the reality to this day. The only way they can reunite with their children is to wait until the adoptees search for them. Some birth parents who only realized later that their children have been adopted overseas started

watching TV programs featuring adoptees' search for original families every morning. They had to endure the pain of waiting day after day. Birth parents hoped to reunite with their birth children, or at least to hear from them. Every time their contact information changed, they visited the adoption agencies and updated the case file, waiting for their children whose life or death were unknown to them.

Fourth, birth parents waited long while searching for their children, but the process of confirming kinship presented many challenges. Even when the adopted child visited the adoption agency to find their birth parents as an adult, the birth family search was fraught with excessive bureaucracy and adherence to rules and regulations that benefited only the adoption agencies. Contact and reunion were possible only when the child was registered as a member in the family registry or when birth parents left accurate records of themselves and continued to update the information by notifying the agency of any changes. Even in those cases, the way the contacts/calls were made to check if birth parents wanted to meet their children were so simplified that it was too easy for birth parents to miss their chance to reunite. There were cases in which birth parents failed to reunite with their children because their adoption papers had names that were different from their original names. In some cases, even if the birth parents left their contact information, reunion did not happen because of errors made by adoption agencies. Fortunately in some cases, reunions happened through DNA profiling and matching even after all formal procedures failed.

While birth parents found great happiness in reuniting with their children after such a long wait and difficult process of searching, they experienced cultural and language gap for having lived in different cultures for a long time, especially when the birth parents were familiar only with Korean culture. Moreover, birth parents who married and created a new family after sending their children for adoption faced the challenge of deciding whether or not to tell their new family about the existence of an adopted child. They worried about how their spouses and new family members would think of them when they confessed that they had given up a baby for adoption, and whether the new family would accept the adopted child as their family member. The birth parents who were

single or whose spouse was also a birth parent of the adoptee did not need to inform the existence of an adopted children, but all the rest decided to inform their new spouses about the adopted children. The birth parents felt their ego shrinking when telling their spouses about the adoption and was hurt when their spouses did not treat the adopted children as nicely as they had promised.

The birth parents expected the long-awaited reunion with their children to be a 'beginning of happiness'. But in reality, they learned that it was a 'new beginning' in which they could only gradually narrow the distance between themselves and their birth children. They carefully talked about their past pains and difficulties, listened to each other and went together on a long journey of getting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acknowledging their differences. In fact, both the adoptees and their birth parents experienced psychological depression, lethargy, and suicidal thoughts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after the reunion from re-living the trauma from the past. Although intercountry adoptees were able to receive psychotherapy in the recipient countries, birth parents in Korea had to struggle with the trauma alone because there was no one to share their feelings safely nor professional counseling available to them. As such, while many birth parents thought that the reunion would be the end of a long period of pain, it was more like a new beginning of a long journey of sharing and understanding differences, traumas, and scars of the past together.

Fifth, all five birth parents who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responded that if they were to go back in time to when they sent their children for adoption and decide again, they would never give up their children. They hoped that the government's various proposed measures will allow Korean children to grow up in Korea and prevent them from being separated from their original families. They also expressed a wish for intercountry adoption to cease. This response did not come from the idea that intercountry adoption was entirely bad or that their adoptive children's lives in foreign countries were worse than the lives they would have had if they stayed in Korea. Instead, it reflected the huge pain the birth parents suffered, which no one would be able to fathom unless they experienced it themselves. It also stems from knowing how much



hardship their children must have gone through living as an intercountry adoptee, even though they were grateful that their children have grown up so well.

The birth parents of intercountry adoptees perceived that the government and adoption agencies did not protect their human rights and those of their children. They strongly criticized the adoption agencies stating that the agencies were essentially buying children for a pittance without explaining to the birth parents the adoption process in detail. They noted that had they known that their children were being sent overseas for adoption, they would have raised their children at all costs and prevent their children from being exposed to racial discrimination at a young age. They asserted that too many children were sent abroad for adoption in Korea, even in the 1970s, when making a living was not a problem, and emphasized that intercountry adoption should not be a family planning option.

The birth parents of intercountry adoptees expressed concern about the human rights violations experienced by birth parents and their children within the Korean intercountry adoption system, from the point of making the decision to relinquish all the way up to family search and reunion. They noted that in order to improve this, the government and the adoption agencies need to completely change the approach they have taken so far. In particular, adoption agencies need to more actively help the birth parents who wish to reunite with their children. And in this process, there needs to be a total shift in perspective towards birth parents, to respect their minimum human rights and to treat them with dignity, and real action needs to be taken to move away from treating birth parents like criminals and forcing them to remain silent.

The patterns of human rights violations experienced by the birth parents before and after their children's intercountry adoption were closely related to the human rights violations experienced by intercountry adoptees. This suggests that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birth parents and working in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are inextricably related in intercountry adoption. In Korea, the pace of institutional change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birth parents in intercountry adoption is happening at an awfully slow pace, and it is still difficult for the birth parents to systematically raise their voices

and demand improvements. Therefore, when making efforts to improve the overall intercountry adoption system and practice,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ensure that the human rights of birth parents are protected.

### 3. Quantitative Research

#### 1) Overview

This quant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The questionnaire was developed by the researchers of the present study and was publicized and distributed through intercountry adoptee-led organizations. The online survey period was from October 20th to November 30th (see Tabl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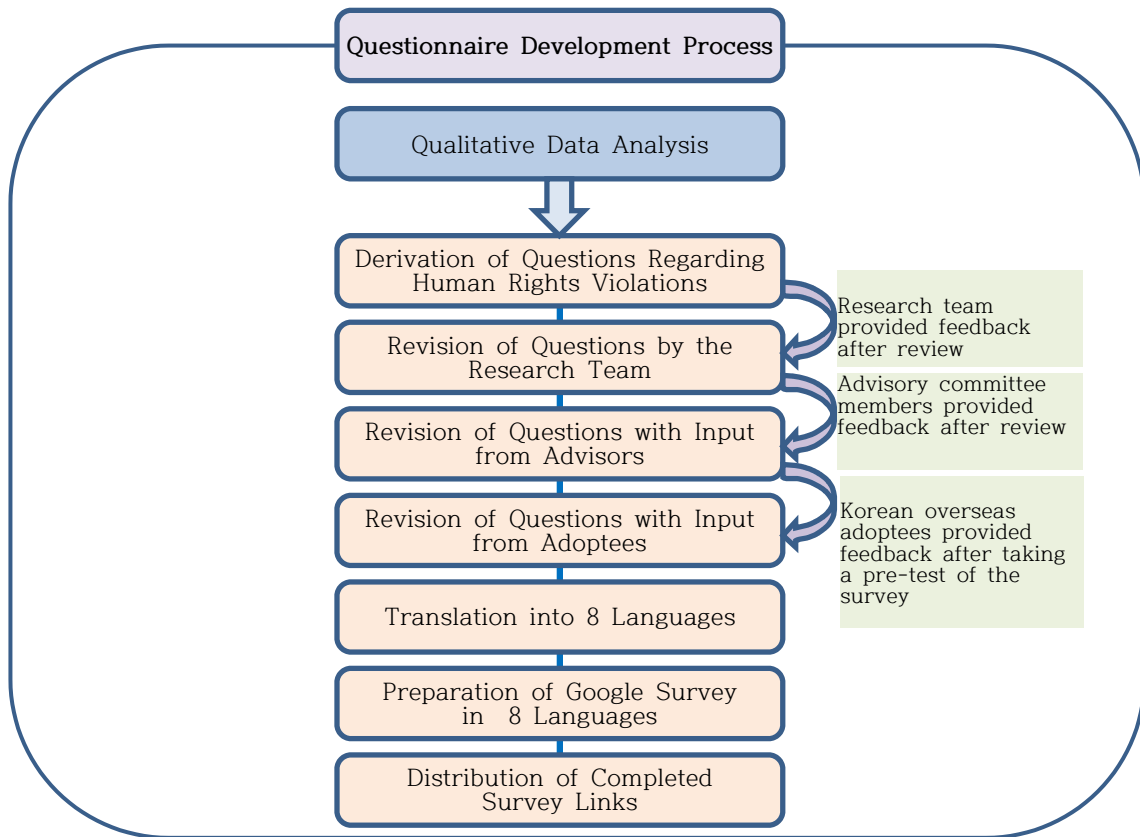
[Table 3] Overview of the Quantitative Research

<b>Participants</b>	Korean intercountry adoptees (n=658)
<b>Tools</b>	Self-developed questionnaire
<b>Methods</b>	Google survey
<b>Survey Period</b>	October 20, 2022 ~ November 30, 2022
<b>Contents</b>	Types of human rights issues, attitude towards intercountry adoption
<b>Recruitment</b>	Via various Korean intercountry adoptee groups and on-line communities
<b>Participation Eligibility</b>	Korean intercountry adoptees who are 18 or older

#### 2) Questionnaire Development,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Methods

[Figure 3] shows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questionnaire. First, an online questionnaire was develop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qualitative data on intercountry adoptees and their birth parents. The first draft of the questionnaire was revised through an internal preliminary examination by the research team. Afterwards, the second revision was made after collecting the opinions of eight outside advisors, and the third revision was made based on review and feedback of intercountry adoptees. The English version of the questionnaire that was developed was translated into Danish,

Dutch, French, German, Italian, Norwegian and Swedish to prepare questionnaires in total eight languages. The translated questionnaires were made available online using Google Forms.



[Figure 3] Questionnaire Development Proces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a total of 12 fields and 136 question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for frequency and descriptive statistics using the SPSS statistical package. In this study, the data obtained from 658 intercountry adoptees who participated in the online survey was used as a sample for final analysis.

### 3) General Characteristics

####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able 4]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658

Categorization		n	%
Current Gender	Male	124	18.8
	Female	510	77.5
	Third gender	20	3.0
	Transgender	1	0.2
	Unrevealed	2	0.3
	Other	1	0.2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11
High school		48	7.3
Some college or university education		134	20.4
Bachelor's degree		203	30.9
Master's degree		214	32.5
Ph.D or other professional degree		48	7.3
Current Marital Status	Single, never married	159	24.2
	Married or in a civil union	285	43.3
	In a domestic partnership	93	14.1
	Widowed	4	0.6
	Divorced	80	12.2
	Separated	23	3.5
	Other	14	2.1
Current Economic Status	Much lower than average	43	6.5
	Lower than average	105	16.0
	About average	243	36.9
	Above average	226	34.3
	Much above average	41	6.2

[Table 4] shows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As for the current gender, the majority were female (510 persons, 77.5%). As for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Master's and Ph.D or other professional degree (262 persons, 39.8%) and Bachelor's degree (203 persons, 30.9%) were the most common, indicating that approximately 70%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completed, at least, higher education. As for the current marital status, 378 people (57.4%) were married or in a civil union or in a domestic partnership while 280 people (42.6%) were single, widowed, divorced, or separated. About 80%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ir current economic status is

average or above average (510 persons, 77.4%) indicating that the majority are in a relatively stable state. However, one in five respondents said that their economic status was lower than average or much lower than average, indicating that there is a considerable number of participants who are suffering financial difficulties.

(2) General Information Regarding Adoption

Gener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adop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is presented in [Table 5]. Among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the most were adopted overseas via Holt Children's Services (277 persons, 43.3%), followed by Korea Social Services, Korea Welfare Society, and Eastern Social Welfare Society. Among the overseas adoptee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ten (1.6%) were adopted via personal channels, and 22(3.4%) responded that they did not know their adoption agency. This corroborates that the official statistics on the number of children adopted overseas in South Korea are misrepresentative of the actual statistics.

[Table 5] General Information Regarding Adoption

n=658

Period	Actual Year of Birth (YOB)		YOB Written on Adoption Document	
	n	%	n	%
1950s	10	1.5	11	1.7
1960s	74	11.2	72	10.9
1970s	313	47.6	316	48.0
1980s	216	32.8	214	32.5
1990s	37	5.6	37	5.6
2000s	8	1.2	8	1.2
Category			n	%
Difference in Actual YOB and YOB on Adoption File (Actual - On File)	-2 Years and More		9	1.4
	-1 Year		14	2.1
	No Difference		610	92.7
	+1 Year		19	2.9
	+2 Years and More		6	0.9
Country	Receiving Country		Current Residence	
	n	%	n	%
USA	202	33.2	222	33.7

Denmark	98	16.1	92	14.0
Sweden	65	10.7	64	9.7
The Netherlands	54	8.9	51	7.8
Norway	50	8.2	49	7.4
Belgium	41	6.7	36	5.5
Germany	31	5.1	26	4.0
France	27	4.4	19	2.9
Australia	17	2.8	14	2.1
Canada	5	0.8	6	0.9
Luxembourg	2	0.3	2	0.3
Italy	2	0.3	3	0.5
Other	14	2.3	69	10.5
Unanswered	50	-	-	-
<b>Category</b>			<b>n</b>	<b>%</b>
Adopting Channels in Korea	Holt Children's Services		277	43.3
	Korea Social Service		142	22.2
	Korean Welfare Services		96	15.0
	Eastern Social Welfare Society		91	14.2
	Private Adoption		10	1.6
	Others		2	0.3
	Unknown		22	3.4
	Unanswered		18	-

As for the actual year of birth of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the majority were born in 1970s (313 persons, 47.6%) followed by those who were born in 1980s (216 persons, 32.8%). And for 610 participants (92.7%),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ir actual ages and the year of birth written on their adoption files, while for 48 participants (7.3%) a discrepancy existed. For 25 participants (3.8%), the ages written on the adoption file were more than one year older than their actual ages, which could have caused problems after the adoption placement as even one or two years of misreported age difference can lead to a significant physical or psychological development gap during early childhood development. One of the intercountry adoptees who participated in the qualitative research was actually two years younger than the age written in the adoption file, so the adoptive parents regarded the adoptee as a child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ich led to constant troubles and difficulties for the adoptee in the adoptive family.

The country that the majority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adopted to was the USA (202 persons, 33.2%), followed by Denmark (98 persons, 16.1%), Sweden (65 persons, 10.7%), the Netherlands (54 persons, 8.9%) and Norway (50 persons, 8.2%). Considering the fact that 67.0% of the entire intercountry adoptees from Korea hitherto were received by the USA (Sangjeong Lee, et al., 2018), relatively fewer adoptees in the USA participated in the present study.

### (3) Information on Original Siblings

[Table 6] indicates that more than two out of ten respondents were not aware if they were adopted to the same adoptive family with their siblings or not, and more than five out of ten did not know if their original siblings were adopted by different families or not.

This is because most of adoption files do not provide information about biological siblings. It is not possible for adoptees to know about their original siblings for sure unless they have reunited with their original family after adoption.

[Table 6] Information on Original Siblings

n=658

Questions	Yes	No	Don't know	Total
	n (%)	n (%)	n (%)	
1. My sibling(s) from the original family was/were placed to an adoptive home with me.	52 (8.2)	437 (69.1)	143 (22.6)	632
	52 (10.6)	437 (89.4)		489
2. My sibling(s) from the original family was/were placed to other adoptive home(s).	34 (5.3)	266 (41.6)	339 (53.1)	639
	34 (11.3)	266 (88.7)		300

Note. Unanswered, 'N/A' and 'Don't know' have been processed as missing value, which could have resulted in a gap in the no. of total cases per question.

When only the responses of those participants who knew about their original siblings were analyzed, around nine out of ten (89.4%) were not adopted to the same adoptive family with their siblings. More than one out of ten (11.3%) answered that their original

siblings were placed in different adoptive families from theirs. This reflects the lack of effort in trying to place original siblings in the same adoptive family (preservation of family) as much as possible, which is something that was commonly pointed out by intercountry adoptees who participated in the qualitative research.

#### 4) Analysis of Main Variables

##### (1) Protection of Human Rights

##### ① Protection of Human Rights

[Table 7] shows what the participants thought about Korean adoption agencies' effort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adoptees. More than 70% of the respondents marked "Disagree" in all the questions, saying that Korean adoption agencies did not protect their human rights sufficiently. More than 95%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agencies did not make enough efforts to prevent them from being separated from their original families and to pursue domestic adoption opportunities before considering international adoption.

[Table 7] Perception of Korean Adoption Agencies' Human Rights Protection

n=658

South Korean Adoption Agencies...	Agree n (%)	Disagree n (%)
1. had my best interest in mind throughout the process of my intercountry adoption.	96 (21.5)	350 (78.5)
2. did everything to prevent me from being separated from my original family.	14 (3.9)	343 (96.1)
3. did everything to keep my siblings together in the process of adoption placement.	37 (17.1)	180 (82.9)
4. involved in my placement did everything to find a placement for me in Korea before they considered intercountry adoption.	17 (5.0)	325 (95.0)
5. properly stored the records related to my birth and original family.	136 (31.3)	298 (68.7)
6. gave me access to the records related to my birth and original family.	153 (29.5)	365 (70.5)

Note 1. Unanswered, 'N/A' and 'Don't know' have been processed as missing value, which could have resulted in a gap in the no. of total cases per question



Note 2. 'Strongly Agree' and 'Agree' were re-coded as 'Agree', and 'Strongly Disagree' and 'Disagree' were re-coded as 'Disagree' for analysis.

Meanwhile, [Table 8] presents the research participants' thoughts about Korean government's efforts in protecting intercountry adoptees' human rights. More than 90% participants answered "No" to all questions, revealing a negative perception of Korean government's efforts in human rights protection. In particular, they said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 provide proper support to their original parents prior to the intercountry adoption placement (97.5%), and did not have systemic measures to prevent unnecessary intercountry adoption (98.1%).

[Table 8] Perception of Korean Government's Human Rights Protection

n=658

Korean Government...	Agree n (%)	Disagree n (%)
1. had my best interest in mind throughout the process of my intercountry adoption.	43 (9.0)	436 (91.0)
2. did everything to protect my human rights throughout the process of my intercountry adoption.	35 (7.4)	437 (92.6)
3. properly supported my original parents before the intercountry adoption process began	10 (2.5)	395 (97.5)
4. had systemic measures for preventing an unnecessary intercountry adoption	9 (1.9)	474 (98.1)

Note 1. Unanswered, 'N/A' and 'Don't know' have been processed as missing value, which could have resulted in a gap in the no. of the total cases per question

Note 2. 'Strongly Agree' and 'Agree' were re-coded as 'Agree', and 'Strongly Disagree' and 'Disagree' were re-coded as 'Disagree' for analysis.

## (2) Violation of Human Rights before Adoption Placement

### ① Facts and Experiences Regarding the Relinquishment of Parental Rights

[Table 9] shows what participants think about the experiences their birth parents had while giving consent during the adoption process. When asked about their parents' relinquishment of parental rights, around 50~80%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answered that they did not know about it.

[Table 9] Facts and Experiences Regarding the Relinquishment of Parental Rights

n=658

Question	Yes n (%)	No n (%)	Don't know n (%)	Total
1. My original parent(s) was/were misinformed about the meaning and ramifications of adoption.	82 (13.1)	53 (8.4)	493 (78.5)	628
	82 (60.7)	53 (39.3)		135
2. My original parents were coerced into relinquishing me for adoption.	76 (12.1)	98 (15.6)	455 (72.3)	629
	76 (43.7)	98 (56.3)		174
3. I was adopted without the knowledge of my original mother.	90 (14.2)	167 (26.3)	378 (59.5)	635
	90 (35.0)	167 (65.0)		257
4. I was adopted without the knowledge of my original father.	111 (17.8)	115 (18.4)	398 (63.8)	624
	111 (49.1)	115 (50.9)		226
5. I was adopted against the will of my original mother.	83 (13.1)	105 (16.6)	444 (70.3)	632
	83 (44.1)	105 (55.9)		188
6. I was adopted against the will of my original father.	57 (9.4)	101 (16.6)	450 (74.0)	608
	57 (36.1)	101 (63.9)		158
7. My original parents wanted to discontinue my adoption but was(were) told that it was too late.	46 (7.5)	102 (16.6)	465 (75.9)	613
	46 (31.1)	102 (68.9)		148
8. I know and suspect that I was kidnapped.	54 (8.8)	240 (39.0)	322 (52.3)	616
	54 (18.4)	240 (81.6)		294
9. I had an orphan hojuk(family registry) and/or was reported abandoned when there wasn't enough evidence to confirm it.	233 (37.9)	173 (28.1)	209 (34.0)	615
	233 (57.4)	173 (42.6)		406
10. I had an orphan hojuk(family registry) and/or was reported abandoned when the evidence proved that I was not.	134 (21.9)	191 (31.2)	287 (46.9)	612
	134 (41.2)	191 (58.8)		325

Note. Unanswered, 'N/A' and 'Don't know' have been processed as missing value, which could have resulted in a gap in the no. of total cases per question.

Though the above questions are hard to answer unless the participants reunited with their original parents, as most were adopted in their early childhood or infancy, it can be reflective of the distrust that many intercountry adoptees have towards the

information written on their adoption files. Those who answered that they remembered the facts and experiences regarding original parents' consent on adoption, more than half answered that their original parents were given wrong information about the meaning and effects of the adoption (60.7%). Furthermore, they were reported as orphans or abandoned children although there was insufficient evidence (57.4%), or adopted without their original parents knowing (49.1%). Moreover, more than 40% said they were adopted against the wishes of their original mother (44.1%), their original parents were coerced into relinquishing parental rights for adoption (43.7%), and that they were reported as orphans or abandoned children despite there being evidence proving otherwise (41.2%).

#### ② Issues at the South Korean Facilities

As for the problems and difficulties experienced in the South Korean child care facilities, about 90% of the participants marked "No" or "Don't know" (See Table 10). This is probably because the majority of intercountry adoptees were sent to the receiving country in their early childhood or infancy and do not remember the circumstances before their adoption. However, more than half of the participants who said they remembered their experiences in South Korean facilities said they were given a new name and age by the facilities (59.2%) and that the facilities did not provide enough clothing, food or education, and they suffered from poor hygiene, malnutrition and overcrowded living conditions, suggesting how inadequate those facilities' environments were for child-rearing.

[Table 10] Issues at the South Korean Facilities

n=658

Questions	Yes	No	Don't know	Total
	n (%)	n (%)	n (%)	
1. I was given a new name and age at the South Korean facility	235 (37.1)	162 (25.6)	237 (37.4)	634
	235 (59.2)	162 (40.8)		397
2. I was asked to work at the South Korean facility prior to the adoption placement. (cleaning, child care, excessive chores)	16 (2.8)	418 (72.1)	146 (25.2)	580
	16 (3.7)	418 (96.3)		434
3. I was physically abused at the South Korean facility.	34 (5.5)	178 (28.6)	410 (65.9)	622
	34 (16.0)	178 (84.0)		212
4. I was sexually abused at the South Korean facility.	13 (2.1)	196 (31.6)	412 (66.3)	621
	13 (6.2)	196 (93.8)		209
5. I had or have marks and scars which have made me suspect that I endured physical abuse before the adoption placement.	77 (12.4)	367 (59.1)	177 (28.5)	621
	77 (17.3)	367 (82.7)		444
6. At the South Korean facility, there was lack of clothes, food, education, poor poor hygiene, malnutrition and/or overcrowded rooms.	121 (19.5)	90 (14.5)	409 (66.0)	620
	121 (57.3)	90 (42.7)		211

Note. Unanswered, 'N/A' and 'Don't know' have been processed as missing value, which could have resulted in a gap in the no. of total cases per question.

### ③ Issues during Travel to the Adoptive Country

Most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who remembered or were informed of the difficulties and problems experienced while traveling to the receiving country said they had no critical issues with it. However, around 10%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experienced problems during the transfer to the adoptive country and the person who escorted them to the adoptive country handed them to person(s) other than their adoptive parents, revealing one of many problems that proxy adoption system entailed. (See Table 11).

[Table 11] Issues during Travel to the Adoptive Country

n=658

Questions	Yes n (%)	No n (%)	Don't know n (%)	Total
1. Issues were reported during the travel to the adoptive country.	30 (4.7)	251 (39.7)	352 (55.6)	633
	30 (10.7)	251 (89.3)		281
2. The person who escorted me handed me over to adults who were not assigned as my adoptive parents.	37 (5.9)	458 (73.4)	129 (20.7)	624
	37 (7.5)	458 (92.5)		495

Note. Unanswered, 'N/A' and 'Don't know' have been processed as missing value, which could have resulted in a gap in the no. of total cases per question

### (3) Issues with the Adoption Files

#### ① Correctness and Comprehensiveness of the Information in Adoption Files

When asked about the correctness and comprehensiveness of the adoption file, 35%~60%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answered that they did not know. (See Table 12). In fact, if an intercountry adoptee had no chance to meet his/her original parents, it is difficult to assess the accuracy and comprehensiveness the adoption file. However, many participants who had some knowledge about the information in his or her adoption file said that the background information on themselves was not correct, and neither the intake report nor the progress report were accurate and comprehensive.

[Table 12] Correctness and Comprehensiveness of Adoption Files

n=658

Question	Yes n (%)	No n (%)	Don't know n (%)	Total
1. Basic identification information (e.g.: date of birth) was correct.	221 (34.2)	143 (22.1)	283 (43.7)	647
	221 (60.7)	143 (39.3)		364
2. Background information about me in my adoption file was accurate. (e.g.: the original parents' socio-demographic information, reasons for relinquishment, etc.)	95 (15.1)	247 (39.3)	287 (45.6)	629
	95 (27.8)	247 (72.2)		342

3. Background information about me in adoption file was missing from my intake report.	302 (46.8)	115 (17.8)	228 (35.3)	645
	302 (72.4)	115 (27.6)		417
4. The intake report in my adoption file was accurate.	89 (13.9)	201 (31.4)	351 (54.8)	641
	89 (30.7)	201 (69.3)		290
5. The intake report in my adoption file was comprehensive (included essential information).	75 (11.6)	343 (53.0)	229 (35.4)	647
	75 (17.9)	343 (82.1)		418
6. The progress report in my adoption file was accurate.	115 (18.1)	131 (20.6)	389 (61.3)	635
	115 (46.7)	131 (53.3)		246
7. The progress report in my adoption file was comprehensive.	105 (16.4)	259 (40.5)	275 (43.0)	639
	105 (28.8)	259 (71.2)		364
8. The medical information in my adoption file was accurate.	160 (24.7)	126 (19.5)	361 (55.8)	647
	160 (55.9)	126 (44.1)		286
9. The medical report was comprehensive.	112 (17.4)	261 (40.5)	271 (42.1)	644
	112 (30.0)	261 (70.0)		373
10. I found false narratives about my original family in my adoption file.	168 (27.0)	192 (30.8)	263 (42.2)	623
	168 (46.7)	192 (53.3)		360
11. I was switched. (i.e., I was sent in place of another child and given that child's identity.)	16 (2.5)	300 (47.0)	322 (50.5)	638
	16 (5.1)	300 (94.9)		316
12. Due to missing or inaccurate information in my adoption file, I experienced emotional/ psychological difficulties.	321 (55.3)	178 (30.7)	81 (14.0)	580
	321 (64.3)	178 (35.7)		499
13. Due to missing or inaccurate information in my adoption file, I experienced legal difficulties. (e.g.: citizenship)	52 (9.0)	467 (80.5)	61 (10.5)	580
	52 (10.0)	467 (90.0)		519

Note. Unanswered, 'N/A' and 'Don't know' have been processed as missing value, which could have resulted in a gap in the no. of total cases per question.

More than six out of ten research participants experienced emotional and

psychological difficulties due to missing or incorrect information in the adoption file, and one out of ten experienced legal problems in the recipient country. It leads to our realization that forgery of records, such as the routine practice of making adoptees orphans using fake family register for the procedural conveniences of the adoption agencies, could seriously affect the intercountry adoptees' life and psychological welfare after placement.

#### (4) Violation of Human Rights after Intercountry Adoption Placement

##### ① Child Abuse and Neglect in the Adoptive Home

Around three out of ten intercountry adoptees who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experienced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traumatic childhood experiences: physical abuse, sexual abuse, emotional abuse, and neglect in adoptive family. (See Table 13).

[Table 13] Child Abuse and Neglect in the Adoptive Home

Yes		No	
n	%	n	%
217	33.5	431	65.5

n=658

Note. Unanswered items have been processed as missing.

##### ② Perpetrators of Child Abuse and Neglect

More than two out of ten research participants (142 persons, 21.6%) experienced physical abuse, and of them, seven out of ten identified the adoptive mother as the perpetrator, followed by the adoptive father. Regarding psychological and emotional abuse, around three out of ten (190 persons, 28.9%) were exposed to it. Of them, eight out of ten adoptees named the adoptive mother and five out of ten pointed to the adoptive father as the perpetrator. Meanwhile, more than one out of ten experienced sexual abuse (89 persons, 13.5%), and of them, more than four out of ten pointed to the adoptive father as the perpetrator, while more than three out of ten pointed to their adoptive siblings (23 persons, 31.5%), and more than two out of ten indicated relatives of the adoptive family as the perpetrator. Lastly, almost two out of ten (113 persons, 17.2%)

adoptees experienced neglect by the adoptive mother (nine out of ten) or by the adoptive father (seven out of ten) (See Table 14).

[Table 14] Main Child Abuser

n=658

Questions	Total	Adoptive Father	Adoptive Mother	Adoptive Siblings	Adoptive Relatives	Other in Adoptive Family	Foster Home
	n (%)	n (%)	n (%)	n (%)	n (%)	n (%)	n (%)
1. Person who abused me physically.	142 (21.6)	68 (47.9)	99 (69.7)	32 (22.5)	11 (7.7)	5 (3.5)	2 (1.4)
2. Person who abused me emotionally/psychologically.	190 (28.9)	97 (51.1)	156 (82.1)	41 (21.6)	27 (14.2)	16 (8.4)	2 (1.1)
3. Person who abused me sexually.	89 (13.5)	37 (41.6)	6 (6.7)	28 (31.5)	23 (25.8)	10 (11.2)	3 (3.4)
4. Person who neglected me	113 (17.2)	79 (69.9)	102 (90.3)	10 (8.8)	12 (10.6)	6 (5.3)	2 (1.8)

Note. Multiple answers were allowed.

### ③ Issues around Adoption Disruption

[Table 15] shows the difficulties adoptees experienced after adoption disruption. More than three out of ten participants said their first adoptive parents were not suitable for adoption. For almost one out of ten participants, their first adoption ended up in dissolution. A few participants experienced or witnessed child abuse in the foster home they were placed in after adoption disruption or had problems with the legality of their residency status due to the dissolution.



[Table 15] Issues around Adoption Disruption

n=658

Questions	Yes n (%)	No n (%)	Total
1. My first adoptive parents were not fit to adopt.	168 (33.9)	327 (66.1)	495
2. My first adoption placement was disrupted. (e.g.: I was moved from my first adoptive home to another place.)	38 (7.4)	477 (92.6)	515
3. I was a victim of child abuse in my foster placement after adoption disruption.	12 (3.6)	322 (96.4)	334
4. I witnessed child abuse in my foster placement after adoption disruption.	15 (4.0)	358 (96.0)	373
5. I have had issues with legal status due to adoption disruption.	13 (3.0)	419 (97.0)	432

Note. No response, N/A and 'Don't know' were treated as missing values, which could have resulted in a gap in the no. of total cases per question.

#### ④ Appropriateness of Post-Adoption Service

[Table 16] presents the opinions of the study participants on the appropriateness of post-adoption services of Korean adoption institutions and adoption agencies in the adoption recipient country.

[Table 16] Issues Regarding Post-Adoption Service

n=658

Questions	Yes n (%)	No n (%)	Total
1. The South Korean adoption agency followed up to verify delivery of proper post-adoption services. (e.g.: It checked to make sure that I had acquired citizenship.)	45 (14.9)	258 (85.1)	303
2. The adoption agency in my adoptive country provided proper post-adoption services.	90 (23.7)	289 (76.3)	379

Note. Non-response, N/A and 'Don't Know' were treated as missing values, which could have resulted in a gap in the no. of total cases per question.

Around eight out of ten participants in the study who responded said that Korean adoption agencies did not check if proper post-adoption services were provided, and that the adoption agency in the adoptive country did not provide adequate post-adoption services.

(5) Belonging to a Community, Ethnic Identity and Racial Discrimination

① Belonging to a Community, Ethnic identity, and Racial discrimination

[Table 17] presents the study participants' experiences on the sense of belonging in a community, ethnic identity, and racial discrimination. It was found that about half of the study participants understood their ethnic background and felt that they belonged in their adoptive families. However, only about three out of ten participants felt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ir ethnic background in adoptive families or a sense of belonging in the community they grew up in. In addition, less than two out of ten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proud of their Korean background while growing up in their adoptive families, and more than seven out of ten experienced racial discrimination in the adoptive country.

[Table 17] Belonging to a Community, Ethnic Identity, and Racial Discrimination

n=658

Questions	Agree	Disagree
	n (%)	n (%)
1. I understood my ethnic background in my adoptive home.	310 (50.1)	309 (49.9)
2. I felt good about my ethnic background in my adoptive home.	186 (30.2)	429 (69.8)
3. I felt that I belonged to my adoptive family.	325 (52.9)	289 (47.1)
4. I felt that I belonged to the community that I grew up in.	228 (36.7)	393 (63.3)
5. I had a lot of pride in being Korean while growing up in my adoptive country.	111 (18.0)	506 (82.0)
6. I often encountered racial discrimination in my adoptive country.	445 (72.2)	171 (27.8)

Note. Non-response, Not Applicable' (N/A) and 'Don't know' were treated as missing values, which could have resulted in a gap in the no. of the total cases per question.

② Regional Characteristics of Adoptive Homes

According to Table 18, nearly nine out of ten study participants grew up in suburbs near small towns or large cities, and the majority rarely saw members of minority ethnic groups, non-adopted Koreans, Korean adoptees, or adoptees with different background in their growing regions, often experiencing racial discrimination in predominantly white communities.

[Table 18] Regional Characteristics of Adoption Families

n=658

Classification		n	%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where adoptive families belonged	Large cities	70	11.0
	Suburb near a large city	182	28.5
	Small city or town	270	42.3
	Rural area	116	18.2
Opportunities to meet ethnic minorities	Rarely	283	44.5
	Not often	217	34.1
	Often	97	15.3
	Very often	39	6.1
Opportunities to meet non-adopted Koreans	Rarely	510	80.7
	Not often	69	10.9
	Able to see often	27	4.3
	Very often	26	4.1
Opportunities to meet Korean adoptees or other adoptees from different countries	Rarely	340	53.4
	Not often	179	28.1
	Often	85	13.3
	Very often	33	5.2

Note. Non-response, Not Applicable' (N/A) and 'Don't know' were treated as missing values, which could have resulted in a gap in the no. of total cases per question.

(6) Information Request and Birth Family Search

① Birth Family Search

As shown in Table 19, eight out of ten study participants had experience in searching for their birth families. This was higher than the figure of more than six out of ten found in a previous study on birth family search by intercountry adoptees (Park In-sun, 1993).

[Table 19] Birth Family Search

n=658

Have Searched		Have Not Searched	
n	%	n	%
492	81.7	110	18.3

Note. No response and 'other' were treated as missing values.

② The Result of One's Search

[Table 20] shows that more than four out of ten study participants have been reunited with at least 1 birth parent. This is a very high figure when compared to the success rate of only 5.7% for intercountry adoptees who have filed for the disclosure of adoption information over the past five years released by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Korea Food and Drug News, October 19, 2021). These results may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survey participants were recruited mainly through communities or organizations of intercountry adoptees since adoptees who are aware of these organizations or are members of these communities may be more interested in birth search than other intercountry adoptees.

[Table 20] The Result of One's Search

n=658

Questions	Yes n (%)	No n (%)
1. I found at least one original parent.	226 (44.1)	287 (55.9)
2. I found my original siblings.	166 (34.5)	315 (65.5)
3. I found my relative(s) from my original extended family.	172 (37.4)	288 (62.6)
4. I found other individuals who were involved in my life.	102 (21.3)	377 (78.7)

Note. Non-response, Not Applicable' (N/A) and 'Don't Know' were treated as missing values, which could have resulted in a gap in the no. of total cases per question.

③ Entities that Helped Birth Family Search and Their Degree of Help

[Table 21] presents the responses of study participants on the entities who helped them with birth family search and how they perceive the degree of help they received from

them. Eight out of ten of the study participants received help from Korean adoption agencies in finding their original families, and more than 6 out of 10 received help from other individual adoptees, adoption agencies in the adoptive country, and adoptee organizations. However, when asked how helpful the entities actually were, only other individual adoptees and intercountry adoptee organizations were perceived as helpful. Moreover, only about 4 out of 10 intercountry adoptees have received help from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which currently supports intercountry adoptee's search for birth families, suggesting that efforts are needed to expand and improve its services to support intercountry adoptees' search for birth families.

[Table 21] Entities that Helped Birth Family Search and Degree of Help

n=658

	Total	Yes n (%)	Degree of Help		No n (%)
			m	sd	
1. The adoption agency in the adoptive country	520	344 (66.2)	2.27	0.88	176 (33.8)
2. The South Korean embassy in my adoptive country	449	105 (23.4)	2.09	0.76	344 (76.6)
3. The adoption agency in South Korea	546	447 (81.9)	2.32	0.91	99 (18.1)
4. 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ren	460	181 (39.3)	2.29	0.81	279 (60.7)
5. South Korean facilities (e.g., orphanage, child care institutions, etc.)	474	182 (38.4)	2.14	0.91	292 (61.6)
6. South Korean police	469	175 (37.3)	2.45	0.96	294 (62.7)
7. DNA testing service in Korea	449	159 (35.4)	2.51	0.93	290 (64.6)
8. DNA test in outside South Korea (e.g., 23andMe, My Heritage)	493	307 (62.3)	2.49	0.93	186 (37.7)
9. Other individual adoptees	490	325 (66.3)	3.07	0.92	165 (33.7)
10. Adoptee organizations	490	323 (65.9)	3.05	0.94	167 (34.1)
11. Other non-government organizations	449	160 (35.6)	2.86	0.89	289 (64.4)

Note 1. No response, N/A, and 'I don't know' were treated as missing values, which could have resulted in a gap in the no. of total cases per question.

Note 2. The degree of help was asked on a scale of four: 'not helpful at all' (1) 'not helpful' (2), 'helpful' (3) and 'very helpful' (4). The higher the score, the higher the level of help.

### (7) Attitude toward/Opinion about Intercountry Adoption

[Table 22] shows how intercountry adoptee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think about

Korea's intercountry adoption. More than nine out of ten study participants said the preservation of original families should be prioritized (568 persons, 94.7%), and all other options should be sought out before the Korean government considers intercountry adoption (553 persons, 94%). Nearly nine in ten said intercountry adoption was not a justifiable measure in 1980s (456 persons, 87.4%). In addition, more than eight out of ten study participants said that there is no justification for South Korea to continue intercountry adoption today (455 persons, 83.5%) and that it should have stopped intercountry adoption a long time ago (469 persons, 85.4%). This negative perception towards intercountry adoption by the study participants needs to be interpreted with more care because the majority of Korean overseas adoptee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who have fared quite well with respect to social indicators that are often used to measure success in life such as education and economic status. Such critical attitude toward intercountry adoption from adoptees who could be considered 'success cases' of intercountry adoption seems to counter the general assumption that intercountry adoption provides better opportunities to children in need.

[Table 22] Thoughts on Intercountry Adoption

n=658

Questions	Agree n (%)	Disagree n (%)
1. Intercountry adoption was a justified measure right after the Korean War.	272 (55.6)	217 (44.4)
2. Intercountry adoption was still a justifiable measure in the 1980s.	66 (12.6)	456 (87.4)
3.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help preserve original families before considering intercountry adoption.	568 (94.7)	32 (5.3)
4.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exhaust all other options before considering intercountry adoption.	553 (94.0)	35 (6.0)
5. There is no justification for South Korea to continue intercountry adoption today.	455 (83.5)	90 (16.5)
6. South Korea should have stopped intercountry adoption a long time ago.	469 (85.4)	80 (14.6)
7. Only overseas South Koreans should be allowed to adopt from South Korea.	192 (43.0)	255 (57.0)

Note 1. No response, N/A, and 'I don't know' were treated as missing values, which could have resulted in a gap in the no. of total

cases per question.

Note 2. 'Very agree' and 'Agree' were combined and re-coded as 'Agree'; 'Disagree' and 'Very disagree' were combined and re-coded as 'Disagree'.

**(8) Reparations**

① Need for Compensation for Damage from Intercountry Adoption

More than seven out of ten participants in this study said tha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provide compensation for the damage caused by intercountry adoption (see Table 23).

[Table 23] Need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from Intercountry Adoption

n=658			
Yes		No	
n	%	n	%
479	72.8	156	23.7

Note. No response was treated as a missing value.

② Desired Reparations from the Korean Government

[Table 24] shows the type of compensation that the study participants who believ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ompensate wanted. More than nine out of ten study participants wanted compensation in all categories. In particular, they expressed a need for a channel to access adoption documents and the identifying information of intercountry adoptees (465 persons, 97%), a thorough investigation for suspected human rights violations (459 persons, 96.8%), free DNA tests for intercountry adoptees and birth families (452 people, 96.2%) and matching between DNA samples of intercountry adopters and all DNA databases currently present in Korea (448 people, 95.5%). Such results imply that the adoptee's greatest interest is focused mainly in searching for their roots and identities.

[Table 24] Compensation Intercountry Adoptees Want from Korean Government

n=479

Type of Compensation	Agree	Disagree
	n (%)	n (%)
1. A channel to give intercountry adoptees an access to adoption documents and identity information.	465 (97.3)	13 (2.7)
2. Center where intercountry adoptees can gather in Korea.	431 (93.9)	28 (6.1)
3. Financial support for intercountry adoptees to receive psychotherapy.	421 (95.0)	22 (5.0)
4. Travel costs for intercountry adoptees to visit Korea to find their original family.	442 (95.1)	23 (4.9)
5. A thorough investigation when human rights violations are suspected.	459 (96.8)	15 (3.2)
6. Free DNA test for intercountry adoptees and birth families.	452 (96.2)	18 (3.8)
7. Matching of DNA samples of intercountry adoptees to all DNA databases currently present in Korea.	448 (95.5)	21 (4.5)

Note 1. No response, N/A, and 'I don't know' were treated as missing values, which could have resulted in a gap in the no. of total cases per question.

Note 2. 'Very agree' and 'Agree' were combined and re-coded as 'Agree'; 'Disagree' and 'Very disagree' were combined and re-coded as 'Disagree'.

## 4. Current Status of Policies on Intercountry Adoption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 1) Intercountry Adoption Policy During the Authoritarian Regime

#### (1) Overseas Adoption Policy of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1948–1960)

Korea's overseas adoption began during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President Rhee Syngman who advocated "One country, one ethnicity" to establish an anti-communist system saw the "mixed-blood" children born between Korean women and the U.S. military personnel as a social problem that hindered national unity. Instead of making a policy to support mixed-race children and their families, the Rhee administration chose to send them to the United States for adoption through private aid agencies. President Rhee personally directed policies for intercountry adoption of mixed-race children to "meet the desire of foreigners who wanted to adopt mixed-blood



orphans" and according to statistics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mixed-race children accounted for a high proportion of intercountry adoption in the 1950s.

### (2) Intercountry Adoption Policy under Park Chung-hee Administration(1961-1979)

The Park Chung-hee regime legally institutionalized intercountry adoption, which was carried out through a simple consultation between government agencies and private adoption organizations without a legal ground during the Rhee administration. Since the 1960s, children eligible for intercountry adoption were not only mixed-race children, but also children with disabilities, abandoned children, children of single mothers, and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because they were left without a caretaker due to family breakup. In particular, between 1961 and 1979, during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the number of adopted children from unmarried mothers quadrupled. The surge in the proportion of children from unmarried mothers in intercountry adoption reveals that the regime's social prejudice and exclusion of mixed-race children have shifted to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In 1976,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establishe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and introduced a quota system to allocate the number of children eligible for intercountry adoption per adoption agency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domestically adopted children to promote domestic adoption. In 1985, a plan to discontinue intercountry adoption was drafted, but soon the suspension on intercountry adoption was lifted on condition that group departure was prohibited and individual adoption was allowed, and as long as the criticism from domestic public opinion and media against intercountry adoption could be eased. These measures taken by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indicate that there was no intention to fundamentally change the policy direction of intercountry adoption.

### (3) Intercountry Adoption Policy of Chun Doo-hwan Administration (1980-1987)

Intercountry adoption institutionalized under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saw a drastic increase in number of cases under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As

President Chun Doo-hwan promoted intercountry adoption in the name of "civil diplomacy," and as a way to "expand immigration", he withdrew the plan to reduce the number of intercountry adoptees, lifted restrictions on the number of intercountry adoptions placed to encourage domestic adoption, and fully deregulated intercountry adoption.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implemented a policy of deregulating intercountry adoption as part of measures to address abandoned and missing children, which amounted to more than 10,000 cases a year. As a result, the number of Korea's intercountry adoption cases peaked in the 1980s, sending out 65,511 children overseas in a period of ten years. In 1985 and 1986, an average of more than 8,000 children were put up for intercountry adoption per year. In 1986, 6,188 Korean children were adopted to the United States, accounting for 59% of all intercountry adoptees received by the U.S. The policy of lifting all regulations on intercountry adoption implemented by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as part of immigration promotion has earned the nation of South Korea the great dishonor of being considered a "child exporter"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2) Status of Adoption-related Legislation

### (1) Changes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The Special Act on Adoption of Orphans enacted in 1961, which was aimed at facilitating intercountry adoption of war orphans, clearly states that it intends to 'promote' intercountry adoption of Korean children by 'simplifying' adoption measures. The Act laid the grounds for the 'proxy adoption' that allows adoption agencies to represent the adoptive parents in the adoption procedures in the case of adoption by foreigners. The proxy adoption system created the risk of violating the child's right to life and physical freedom by exempting requirements to examine the qualifications of adoptive parents in the child's country of origin. Through some amendments to the law in 1966, only adoption agencies approv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were allowed to work on adoption arrangements, and adoption agencies were given the

responsibility of post-adoption management.

In 1976,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simplified the intercountry adoption process and as a result, when foreigners living outside of Korea wanted to adopt Korean children, the adoption agencies could carry out all of the adoption procedure as a proxy of the adoptive parents. In cases of foreigners living in Korea, they had to obtain approval from the family court if they wanted to adopt a Korean child. When adoptive parents who were living abroad wanted to adopt, however, the court's approval process was not required, and they only needed to acquire a migration permit from the Minister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who were foreigners were able to have the children come to their countries even before the adoption was finalized, without having to visit Korea and meet the children in person, simply based on the premise of adoption. The head of an adoption agency was entitled to create a family registry for children who did not have one, and serve as a guardian for the children referred for adoption to his/her adoption agency with adoption consent from the head of child care facilities.

In 1995,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was amended into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Promotion and Procedures. It declared that every child has the right to be raised in the family he/she was born to but also required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provide support and take necessary measures to find and match other families that can ensure sound care for children. The Act mandated education for workers at adoption agencies, supervision of adoption agencies, prior education for adoptive parents through adoption agencies, and post-adoption management. However, all adoption procedures were still entrusted to private adoption agencies, and foreign adoptive parents were able to adopt children without having to present themselves in person. Intervention from the domestic family court was not required. In addition, the responsibility for keeping adoption records was left entirely to the adoption agency resulting in no systematic management at the government level.

In 2011,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was completely overhauled for the first time in 16 years. It added the principle that the interests of children should be

the top priority in adoption, and it introduced an ‘adoption consideration system’ that limits the earliest possible time for birth parents’ adoption consent to one week after the date of a child's birth. In addition, it requires birth parents to receive counseling on parenting support policies and the legal effect of adoption before consenting to the adoption. These changes decreased the frequency of past adoption practices where a waiver of parental rights and adoption consent documents were collected from the birth mother even before the mother gave birth to a child.

In addition, the past adoption practice of adoptive parents falsely registering the adopted child as their own came to a halt since courts were required to intervene in the adoption process by examining whether adoption wa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s welfare. Furthermore, to guarantee the adoptees' right to know and to restore their identity, the 'right to request disclosure of adoption information' was introduced as an adoptee's right.

## (2) Changes in the Adoption System under Civil Law

The Civil Act, enacted on February 22, 1958, legislated adoption practices that had been carried out for family succession before the Civil Act was enacted. Although the elements of adoption that had been allowed and practiced for family succession were abolished extensively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ivil Act in 1990, the revised adoption system was still perceived as falling short of meeting child welfare standards because it allowed adoption to take place only by agreement and reporting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There was no regulation on the qualifications and requirements of adoptive parents, nor a mandate for state agencies to examine them. In 2005, with a partial revision of the Civil Law, a Full Adoption System was introduced. The system allows adopted children to follow their adoptive parents' surnames and birth origins, and to be listed as biological children in the family register, so that they can be members of the adoptive family just like the birth children. To establish a full adoption relationship, permission from the family court was required, and this was the first time a state agency was required to take part in the adoption process under civil law.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adoption permission system by the court through the full revis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in 2011, the Civil Act was also amended in 2012 to introduce the system of court approval in the adoption procedures of minors.

### **3) Violation of Children's Human Rights in the Past Intercountry Adoption Procedures**

#### **(1) Intercountry adoption of 'war orphans'**

In the aftermath of the Korean War, Korean society did not have the capacity to take care of war orphans, and turned to adoption as the only measure to take care of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Through the revision of the Refugee Act in 1950, the United States expanded the scope of orphans from orphans who have lost both parents, to include 'abandoned children', and 'children with only one parent who cannot take care of the child and consented for the departure and/or adoption of the child' or who 'gave parental rights to a guardian.' With the amendment of the US Immigration Act in 1961, adopted children were allowed to enter the United States with relaxed requirements free of the quota restrictions of the Refugee Act. As one of the permanent and legal immigration qualifications to the United States, a new category of "orphan" was created under the immigration law. Since then, the United States has issued entry visas for adoption to 34,568 orphans around the world for 15 years from 1961 to 1975, of which 19,283, or 54% of the total number were Korean children.

#### **(2) Practice of 'Orphan Family Registration'**

In the past, many of the children who were put up for intercountry adoption were adopted as orphans. While there were actual cases of orphans whose birth parents could not be tracked down, there were also many cases where no effort was made to obtain the consent from the birth parents, or children being illegally recorded as abandoned while the existence of their parents were known. Some cases have even been confirmed where priority was put on placing the missing/lost child up for adoption rather than on trying to find his/her family. The reason the adoption agencies registered children as orphans in the intercountry adoption process was because the adoption process was

much simpler and quicker in the case of an orphan child, as it did not require consent from birth parents and a range of procedures from passport issuance to US visa issuance to adoption trial in the U.S. became simplified.

### (3) Practice of 'proxy adoption'

The practice of 'proxy adoption', which is unheard of elsewhere, was carried out from the very beginning in the adoption proces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roxy adoption' refers to an adoption method that allows adoptive parents to go through an adoption process in the child's country of origin through an agent without having to see the child in person. Such proxy adoption was advocated by Harry Holt, the president of the Holt Bilateral Conference, who led intercountry adop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1950s. To carry out the adoption process in a cost-effective and time-efficient manner, adoption agencies were allowed to proceed with the adoption process on behalf of the adoptive parents. 'Proxy adoption' allows adoptive parents to adopt a child without having to visit the adopted child's country, saving time and money in the intercountry adoption process. This practice of proxy adoption played a major role in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children adopted from South Korea to the United States.

### (4) 'Industrialization' of Adoption

The adoption fee for Korean children was USD 5,000 in 1988 (Korea's per capita income in the same year: USD 4,571), USD 7,215 in 2009 (Korea's per capita income in the same year: USD 17,074), and as high as USD 33,600 as of 2018, which does not include adoption review costs and travel expenses according to the Holt International's website. The government has not taken practical measures to regulate adoption fees, and some private adoption agencies used them as lobbying funds for facilities and institutions with children, such as child care facilities and hospitals, to secure children to be sent overseas for adoption. Pointing out the problem of intercountry adoption fees, foreign media has openly criticized Korea's intercountry adoption system as a business, rather than a practice of altruism.

#### 4) Problems of Intercountry Adoption Law and System: Based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 (1)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best interests of childre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Hague Convention stipulate that the child's interests should be given top priority in the adoption process, and this principle is also reflected in the Child Welfare Act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Intercountry adoption began during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and was carried out without any legal grounds for the purpose of sending mixed-race children born between U.S. military personnel and Korean women to the birth father's country. As a result, all children who were adopted overseas between 1955 and 1961 were mixed-race children even when most mixed-race children had parents. It is highly questionable whether it was in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to turn children with parents into orphans and send them to the United States for adoption. During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Orphan Adoption was enacted in 1961 to legally institutionalize intercountry adoption, which was carried out without legal basis during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Howev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Orphan Adoption at the time did not stipulate any specific provisions to protect orphans or ensure minimum protection policies such as identifying those who are obligated to support the children. In addition, it only provided grounds for quick and easy procedure for intercountry adoption without mentioning the necessary qualifications of adoptive parents. Intercountry adoption, which began by sending mixed-race children abroad, shifted its target by the 1970s to children born to unmarried mothers. The reason the children of unmarried mothers became the target of intercountry adoption was because of the negative perceptions and social discrimination against women's premarital pregnancy and child birth. This was also a result of the government merely accepting this perception and failing to come up with support measures for them. The past intercountry adoption procedures and systems deprived unmarried mothers of the opportunity to give birth and raise children, and fundamentally blocked children's right to know their parents and be raised in their

original family, thus violating the principle of best interest of children.

(2)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giving priority to the original families to raise their childre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Hague Convention declare that the opportunity to be raised in the family and country of origin should be guaranteed to all children as a top priority. In particular, the Hague Convention declares in its preamble that protection of the original family is a principle, and that if it is not possible to protect the original family, an adoptive family must first be searched for in Korea, and intercountry adoption should be considered as the last resort.

Statistics show that more than 90% of children sent overseas for adoption from Korea since the 1980s are from unmarried mothers, indicating that the principle of giving priority to raising a child in the family of origin has not been upheld in South Korea. Social prejudice against unmarried mothers was the main driving force behind the fact that more than 90% of children put up for intercountry adoption were children of unmarried mothers. As a result of blood-centered familism and social prejudice against adoption, the practice of secret adoption took deep root in the domestic adoption process. Domestic adoptive families falsely reported the adopted children as their children born to them. Because of the acceptance of secret adoption practices, there was no room for biological parents to intervene in the adoption process. Pregnant unmarried mothers who entered facilities for unmarried mothers had to sign a waiver of parental rights and consent to adoption before giving birth, and had to agree to be separated from their children as soon as they gave birth. From that moment on, adoption agencies became completely in charge of the care of children and adoption procedures, and there was no room for original parents to intervene in the process. Birth parents were not given any information about the child's condition, adjustment status and well being not only during the adoption process, but even after the child was placed with an adoptive family. These practices within intercountry adoption violate the principle of giving priority to the original families to raise their children which is specified i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Hague Convention.



### (3) Violation of principle of public responsibility in adopti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Hague Convention stipulate that adoption be administered by competent public authorities. In Korea's present adoption process, almost all of the adoption procedures and decisions are made and carried out by private adoption agencies alone, ranging from adoption decision (determining that adoption i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to counseling and education of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protection of adopted children, matching adoptive parents with adopted children, to the decision to send children to foster homes. After the revis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in 2011, adoption permission from the court became necessary, but it functions more as a rubber stamp approving adoption after all the procedures have already been completed. Current system of conducting adoption procedures separate from the child welfare system is also a serious problem. Adoption should be considered as a last resort only after all possible child welfare and social welfare services are provided so that children can be raised by their birth parents. Also, parents who wish to adopt a child should be required to submit application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not to adoption agencies, and have their qualifications verified. Matching children referred for adoption and prospective adoptive parents/families should also be carried out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 public institution, and not private adoption agencies. Leaving most of the adoption procedures to private adoption agencies violates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Hague Convention, which stipulate that adoptions should be supervised by competent public authorities.

### (4) Violation of right to know one's identity

Article 7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stipulates that "the child (omitted) has the right to know and be reared by his or her parents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Under this clause,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expressed concerns regarding "the fact that the right to know the origin of an adopted child is not protected in the country concerned", urging the member state to

“ensure the right to know the origin of the adopted child and establish legal procedures for the above, including appropriate age and professional support measures.” The curren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provides the basis for adoptees to access their own adoption records through only one provision, Article 36. Not recognizing that the adoptees' family search is a right, some adoption agencies and child welfare facilities decline the adoptees' requests for disclosure of adoption information, citing their obligation to keep adoption documents confidential. The fact that the number of adoptees that have reunited with their families via requesting disclosure of adoption information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is extremely low, reveals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aws and systems that do not guarantee the right to know one's own identity. For intercountry adoptees, the right to know their identity is a topic that is continually addressed throughout their lives, and unless this problem is resolved, the fundamental anxiety and discord deeply embedded in their hearts cannot be resolved. To this e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need to be revised, and above all, our society needs to properly face how important the right to know one's identity is to the intercountry adoptees.

## 5) Measures to Improve Laws and Systems Related to Intercountry Adoption

- (1) Amendment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to ensure best interests of children and improvement of adoption procedures

First,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should be amended so that the entire adoption process for children is carried out in a way that guarantees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econd, the Civil Act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should be amended to ‘consolidate’ the adoption process, which is currently divided and governed separately by the Civil Act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so that the adoption process guarantees the best interest of children in all cases.

Third, listening to the opinions of all children regardless of their current age in the adoption process should be mandated, and specific and detailed procedures that guarantee children's rights to be heard must be established.

Fourth, appropriate and sufficient education and supervision should be provided so that the public officials who are engaged in the adoption process and the staff/workers of adoption-related organizations are able to gain expertise in order to ensure that a child's best interests come first in the adoption process.

#### (2) Guarantee search for origin and access to intercountry adoptees' adoption records

Article 7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guarantees the child's right to know their parents, and in 2019,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advised the Korean government to ensure that the adopted children have access to information about their birth parents. To guarantee the right of intercountry adoptees to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the following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improved and the manpower and budget to support them should be expanded.

First, the group of people who are entitled to exercise the right to request disclosure of adoption information should be expanded so that not only the adoptees, but also their birth parents and other original family members, can search for each other, and the grounds that allow exemption to parental consent in disclosing adoption information should be expanded.

Second, in case an intercountry adoptees' right to access adoption information is violated due to distortion, damage, or loss of past adoption records, the state should support the search for birth families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through alternative measures, such as DNA testing.

Third, a support system for reunion of intercountry adoptees, their birth parents, and other original family members must be institutionalized to provide necessary services, such as professional translation and counseling. A family reunion is a new beginning of a long journey to share and understand the pain, differences, trauma and wounds of the past. Therefore, professional translation and counseling services equipped with expertise

in adoption-related issues must be provided before and after the reunion so that the family relationships that have been cut off for decades can be successfully restored.

### (3) Fulfilling principle of original family preservati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Hague Convention declare that all children should be guaranteed the opportunity to be raised in their family and country of origin as a top priority. However, our reality is that 99.5% of intercountry adopted children are from unmarried mothers. To improve this reality, the government should first increase support and budget for child rearing in non-traditional families so that socially and economically vulnerable birth parents do not give up raising their children due to poverty. Second, social and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against non-marriage families and their children should be improved to create an inclusive and approachable environment for non-marriage pregnancy, childbirth, and parenting.

### (4) Ratification of Hague Convention

South Korea signed the Hague Convention on May 24, 2013, but has yet to ratify it. To implement the Hague Convention, an amendment bill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and legislation of the International Adoption Act have been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Although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on how much of the adoption process should be entrusted to privat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a general social consensus has been reached on the need to improve the existing adoption process in a way that would strengthen public responsibility, and place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as the top priority. Therefore,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review and enact the current amendment bill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and the enactment bill of the International Adoption Act that are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best interests of children as soon as possible, and based on such enactment, should ratify the Hague Convention as well.

(5) The state's responsibility for illegal intercountry adoption of the past

The results of literature review,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conducted in this study show that the human rights of Korean intercountry adoptees were seriously violated through illegal overseas adoption procedures in the past. To restore the damage caused by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intercountry adoptees, the following measures must be taken at the national level.

First, an investigation of all Korean intercountry adoptees should be conducted at the national level to determin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n apology should be formally issued to intercountry adoptees and their families for any human rights violations confirmed through the investigation.

Second, the state should fully and appropriately compensate intercountry adoptees and their familie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past caused by illegal overseas adoption, and it should establish a national center to heal the harm and trauma of disconnection and loss caused by intercountry adoption.

Third, the state should transfer intercountry adoption-related records and information from private adoption agencies and child care facilities to a public and permanent institute to guarantee access to intercountry adoptees' adoption records and restore their right to find their identity.

Fourth, since human rights guarante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have been found to be violated in many cases, the government should acknowledge that the country's intercountry adoption policy violates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their families, and declare an end to intercountry adoption so that similar tragedies will not be repeated in the future.

## References

- Park, I. S. (1993). A study on the birth family search of intercountry adoptees.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 Korea Food and Drug News. (2021. 10. 19). "Intercountry adoptees' reunion with birth families stands at only 5% even with the request for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adoption", <http://www.kfdn.co.kr/54102> Retrieved on Dec. 18, 2022.
- Lee, S., Ryu, J., Lim, J., Lee, J., Noh H. & Byun, M., (2018). 'A study on measures to strengthen the child protection system',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 memo

Lined area for taking notes, consisting of multiple horizontal dotted lines.





